

AIR FORCE

空軍

1984



우리가 다져온 안정과 우리 국민 모두의 드높은 自信感은 평화와 統一, 그리고 번영의 民族史를 다가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先祖들은 「白紙 한장도 마주 들면 가뻐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세계사람들과 손을 잡고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 돕고 힘을 모으면, 우리는 平和와 正義를 누구보다 알차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설령 시련과 도전이 온다 해도 서로 돕고 힘을 모아 헤쳐나가면 우리는 아무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일을 많이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국민 여러분과 나라 전체에 새 아침의 광명이 고루 비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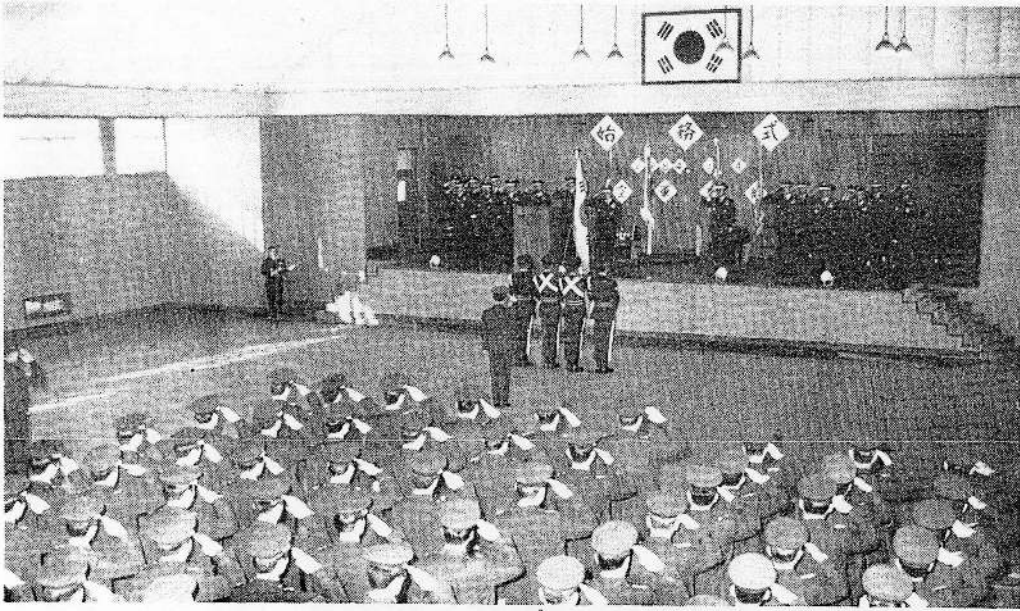
— 全斗煥대통령 新年辭 중에서 —

새해를 맞은 全斗煥대통령

国民 여러분과 나라 전체에
새아침의 光明이 고루 비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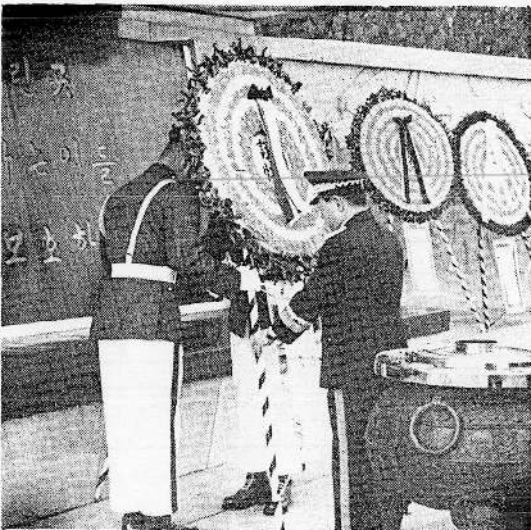
全斗煥대통령은 1月1日 갑자년 새해를 맞아 「우리가 맞이한 갑자년은 古來로 새로운 60년의 주기가 시작되는 첫해로서 모든 것의 처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오늘 이 時間이 세계와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 平和와 正義가 꽃피는 희망의 世紀를 여는 첫 날 아침이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구한다」고 말했다.



★ 공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본부회의실 12. 20)



★ 김상태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관, 참모는 새해 아침, 동작동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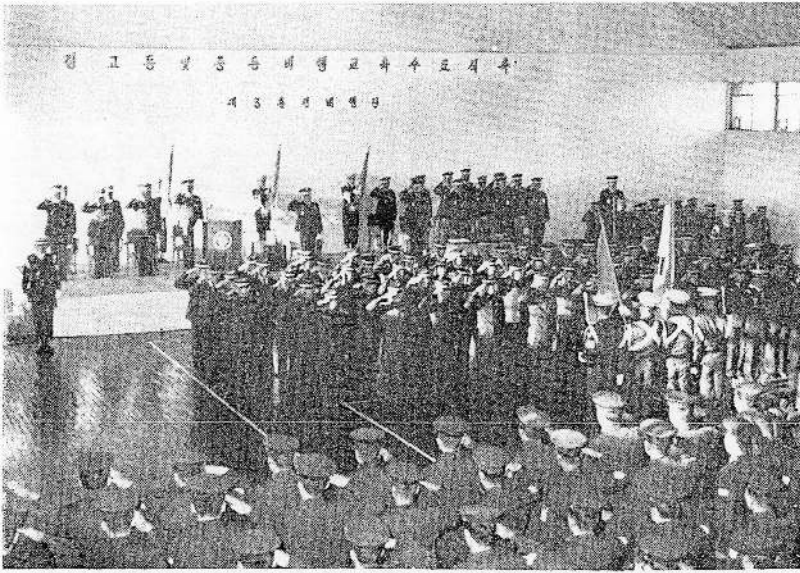




★ 신임 육군참모총장 본부 내방 <12. 23>

★ 미 공수사령관 접견 <1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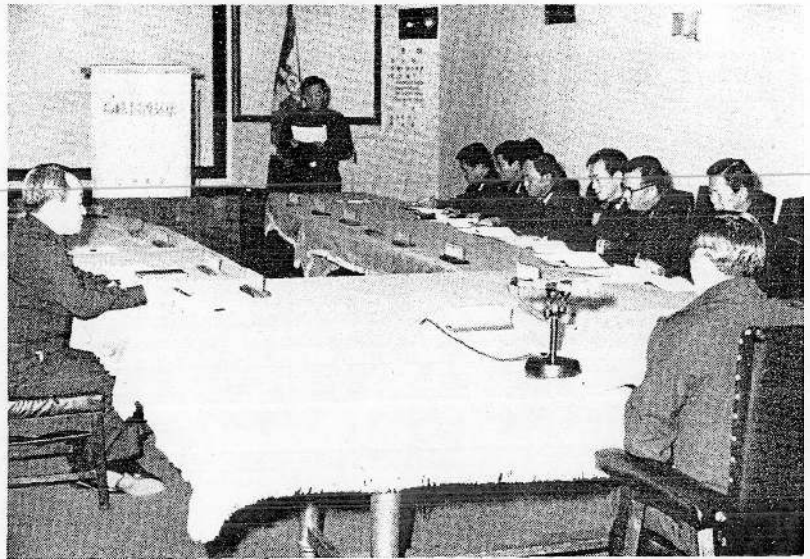




★ 고등 및 중등 비행교육수료식 거행 (5718부대)



★ 정신전력 지도위원회 회의 (본부제 1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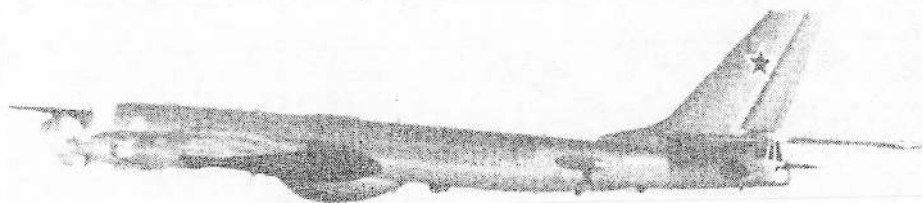
★ 3만시간 무사고 비행
 시상식 (제3975 부대
 1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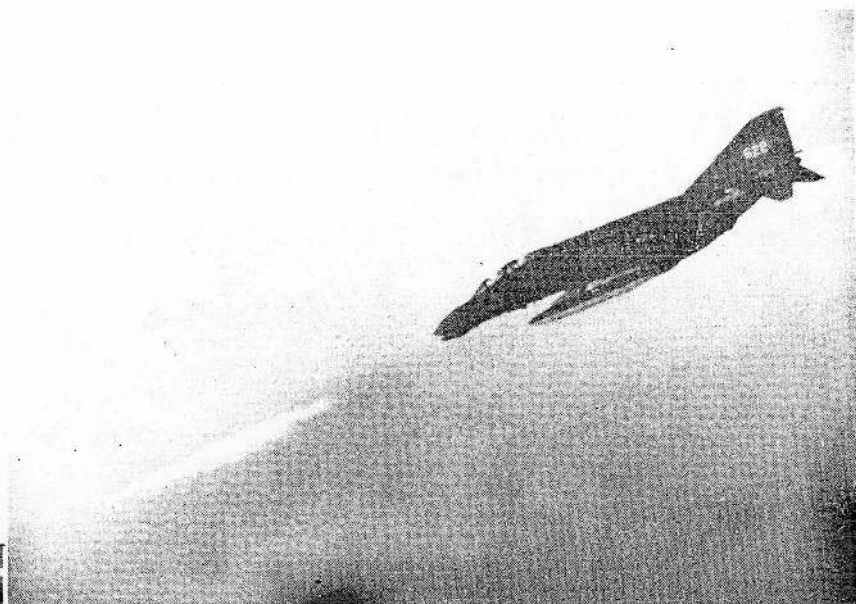
★ 장교부인회, 청애재활원 및 국군수도통합병원 방문
 (12. 1)







★ 지난 12월 2일, 독도
남동부 상공 한국방공식
별구역을 접근한 소련의
폭격기(g대)를 확인, 감
시비행하고 있다.



가상 敵陣을 일격에 명중, 초
토화시키는 制空統一의 기수,
공군의 위용

甲子年을 맞으면서



政 訓 監 金 熙 中
空 軍 准 將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장병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유난히도 우리를 어렵게 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KAL기 격추사건과 아웅산묘소 암살폭발사건 등 거듭된 공산도당의 비인간적 만행이 우리의 가슴을 울분과 통탄으로 들끓게 했으며, 몇몇 기관의 대규모 금융부정사건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존경받고 사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국민적 열의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어려움을 국민적 단합과 냉철한 자기 반성의 계기로 삼아 안보역량의 강화와 선진조국에의 전진을 가속화함으로써 극복해왔습니다만, 이같은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이같은 상황은 苦盡甘來라는 말을 되새기게 합니다. 고생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는 뜻이긴 하지만 이 말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도 저절로 즐거움이 온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굳건히 이겨내며 고생을 감내하면 그때는 반드시 즐거움이 온다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변함없는 복귀의 적화야욕과 격변하는 국제정세, 그리고 계속되는 세계 경제의 불황과 이에 따른 높은 무역장벽을 우리에게 가해지는 시련이라고 생각할 때, 보다 굳센 의지와 불굴의 실천력으로 전국민이 합심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갈 때, 우리에게선 선진조국의 밝은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갑자년은 60간지의 시작으로서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진지한 마음으로 맡은 바 일들에 정성을 다하여 복된 미래를 향해 달려나갑시다.



新 年 辭

空軍參謀總長

空軍大將 金 相 台

친애하는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선진조국 창조를 위한 새로운 전진과 도약을 다짐하는 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본인은 먼저 전투비행단, 벽고지 레이다사이트 등 전후방 각 지역에서 조국 영공수호의 사명완수에 헌신 노력하고 있는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충심으로 치하하며, 가정과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지난 한 해동안 우리 공군은 국내외의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공통일의 공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화단결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 결과 완벽한 영공수호는 물론, 필승공군의 새로운 면모를 과시하면서 내실 있는 전력증강과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년에도 극동을 비롯한 세계정세는 경제적인 불황과 더불어 강대국 간에 힘을 앞세운 군사적 긴장고조와 군소 국가간 무력대결로 인해 세계평화는 계속 위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극동지역에 핵무기를 포함한 육·해·공군의 무기 현대화와 전력증강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는 소련의 군사적 팽창은 우리에게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변정세 변화에 편승한 북괴는, 한반도 무력적화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무장공비 침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려 광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완벽한 대적 경제태세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처럼 급증하는 안보적 위협과 내외의 시련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군의 당면목표인 제공통일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84년을 “제공태세 확립의 해”로 설정하여 공군력을 더욱 내실 있게 증강, 발전시키고, 물샐틈없는 영공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당부하는 바입니다.

첫째, 주야간을 막론한 초속 대응태세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전격적인 기습과 동시다발에 의한 충격전 양상으로 발전하는 현대전에 있어서 우세한 화력과 기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군의 역할은 초전의 승패는 물론, 전승의 향방을 좌우하는 관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습 침투해 오는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적의 침략의도를 조기에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작전지휘 및 정보지원체제를 갖추어 초전필승의 강력한 제공태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울곡 등 공군의 현대화를 위한 전력증강 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평소 피눈물나는 맹훈련을 거듭하여 고도의 전술전기를 포함한 대적 절대우위의 실전 전투력과 전적필승의 정신무장을 강화함으로써, 언제 어떠한 형태의 적 도발도 일격에 섬멸, 분쇄시킬 수 있도록 주

야간을 막론한 전천후 초속대응태세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전력증강에 기여하는 경제적 군 운영체제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국방예산은 국가경제의 제반 여건상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군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하겠으며, 어떠한 재정적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도 군의 작전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군의 현대화와 전력증강은 반드시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은 치밀한 계획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실무요원의 전문화와 창의력을 개발하며, 예산개혁작업 추진으로 효율적인 군수,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 절약된 예산은 보다 실질적인 전력향상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전력증강을 위해서는 새로운 장비도입이나 무기체계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전장병의 정신전력강화와 더불어 현존전력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때, 보다 내실 있는 발전이 이룩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모든 자원의 효율 극대화와 전력의 안전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고도의 전비태세 유지에 적극 기여하는 경제적 군운영체제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생활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군은 고도 정밀한 무기체계와 전문화된 정예 전투요원을 유기적으로 조직화하여 유사시 하나의 통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하에 운용되어야 하는 까닭에 전후방 요원이 엄정한 군 기강을 스스로 확립하고, 충천하는 사기와 왕성한 근무의욕을 바탕으로 공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생활화시켜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휘관은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부대 및 공군발전에 직결됨은 물론, 전투력의 핵심인 장병 사기와 정신전력 강화에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전 장병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강력한 인화 단결과 헌신적인 임무수행이 곧 제공통일의 목표달성에 첩경임을 깨달아 스스로 적극 참여하여 “싸워 이기는 훌륭한 그리고 멋진 공군”을 만드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여 우리는 국가안보의 참된 주역으로서 1984년도 정부 시정목표인 (1) 안보역량의 강화 (2) 안정성장의 지속 (3) 신뢰사회의 정착 (4) 질서의식의 함양에 우리 군이 앞장서 영광된 선진조국과 민족 번영을 위한 범국민적 화합 단결을 선도하고, 제공통일의 그 날까지 조국 영광방위 임무완수에 신명을 바칠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거듭 다짐하면서,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들의 전투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1984. 1. 1

새 次元의 韓 · 美 관계

—레 건 美國대통령의 訪韓成果와 관련—

文 道 彬

<서울신문·논설위원>

同伴安保 「死活的 關係」로 格上

지난 11월에 있던 레이건 美國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은 당초 81년 金斗煥大統領의 訪美에 대한 答방으로 계획된 것이었지만 막상 그 登程은 온 세계의 경악과 公憤을 불러일으킨 蘇聯의 KAL機 격추만행과 北傀의 평군암살 테러만행 등이 있는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례적인 친선방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그러한 의의와 성과는 레이건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의 두 차례에 걸친 頂上회담을 결산하는 15개항의 공동성명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양국 대통령은 공동성명 제2항에서 KAL기 격추만행과 平군 테러만행을 자행한 범죄집단들에 대해 국제사회는 마땅히 共同制裁를 가해야 할 것임을 거듭 촉구함과 아울러 이 두 사건으로 말미암아 최근 韓半島 및 東北亞의 긴장상태는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어 제4항에서는 『韓國의 안전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主軸이 되며 나아가 美國의 안전에 직결됨을 유의하면서 한국의 안전을 위

한 미국의 계속적인 강력한 公約을 재확인한다』고 선언했다.

安保분야에 있어서 韓國의 안전이 美國의 안전에 직결된다는, 즉 양국안보의 「死活的 關係」(Vital Interest Relation)가 공동성명에서 명시적으로 천명된 것은 韓·美 頂上회담 史上 전례 없는 일이다.

이에 관해 尹誠敏 국방부장관은 지난 연말 國會 證言에서 『레이건 미국대통령이 訪韓 때 美國과 韓國을 안보측면에서 「死活關係」로 규정하는 것은 미국이 군사작전상 韓半島를 1급지역(核戰도 불사하는)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지되어 왔듯이 韓半島는 카터 前미국대통령 당시 미국의 군사전략상 2급지역(有事時 육·해·공군에 의한 지원)으로 분류돼 있었다. 그러했던 두 나라 관계가 이제 NATO(北大西洋條約機構)와 맞먹는 「死活的 關係」로 格上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 참으로 마음 든든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양국 대통령은 이러한 새 차원의 同伴安保關係를 굳게 다지는 실천방안으로서 駐韓美軍의 계속 유지 및 전력증강과 韓國軍 증강에 필요한 최신무기체계 및 기술의 지원 등에 합

의를 보았다.

뿐만 아니라 레이건 美國대통령을 수행한 한 고위 당국자는 만일 한국이 공격을 받을 시 미국은 核報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敵對勢力들에게 경고한 바도 있다.

이 엄중한 경고와 함께 획기적으로 강화된 韓·美 동반안보관계를 北傀와 그 배후지원세력들은 추호도 誤判해선 안 될 것으로 믿는다.

平和統一에의 共同認識

한편 양국 대통령은 外交협력 및 對北대화 전략에 있어서 과거보다 進一步한 합의를 보았다.

공동성명 제5항에서 韓半島의 긴장을 완화하고 韓民族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南北對話 再開努力과 82년 全대통령이 제시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관철에 대해 레이건 대통령은 건폭적인 지지 태도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79년 카터 前미국대통령이 訪韓했을 때 발표된 朴·카터 공동성명에서는 南北韓에 美國을 합친 이른바 3當局會談이 제의됐었다. 이는 韓半島의 통일문제가 自主的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과 美國과 단독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북괴측의 주장을 다분히 절충한 것 같은 냄새가 짙은 것이었다.

그러나 全·레이건 공동성명은 韓國이 主導하는 대화재개 노력을 적극 지지함과 동시에 특히 韓國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가 없는 한 美國은 北傀와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이는 美國이 韓半島의 평화통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韓國民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풀이되는 것이다.

이어 레이건 대통령이 『北傀의 주요 동맹국들이 韓國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괴에 대한 어떠한 일방적 조치도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증진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언명한 것은 최근 美행 정부가 외교관들에게 對北傀 제한접촉을 허용했다가 철회한 조치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美國의 對북괴 제한접촉이 현실적인 제약조건으로 미루어 性急한 조치임을 지적했던 우리 정부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 준 것이라 하겠다.

또 성명 8항에서 美國은 韓國의 유엔加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사실 유엔憲章의 普遍性원칙에 비추어 더우기 유엔이 인정하는 韓半島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우리 韓國이 아직 유엔에 가입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응당한 發言權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여러 制約을 받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매우 不合理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의 국제정치가 안고 있는 큰 자체 모순의 하나라 할 이 해묵은 문제를 美國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적극 나선 것은 우리 외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수확이라 믿어지는 것이다.

經濟懸案의 포괄적 妥結

經濟분야에 있어서 또한 양국 대통령은 自由貿易주의의 증진, 기술교류의 확대 등 원칙적인 문제에 인식을 같이 했음을 강조했다.

이것은 두 頂上이 양국간의 경제현안들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고 이해를 깊이한 결과로서 그동안 실무자선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과제들이 앞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그동안 실무자들 간에서는 구체적으로 美國측이 韓國에 대해 수입문호를 보다 넓히고 對韓 투자분위기를 마련하도록 요청했으며, 韓國은 수입규제의 완화와 一般特惠關稅의 연장 조치 등을 미국측에 요청했었다.

공동성명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기회를 가졌으며 광범위한 의견교환이 있었음을 제11항에서 밝힌 것이다.

두 나라 대통령이 이와 같이 양국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재확인했다는 것은 事案의 당장의 해결보다도 전반적인 협력분위기 조성과 互惠精神의 다짐이라는 면에서 고무적인 뜻을 갖는다.

공동성명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오늘날 韓·美 양국은 交易量이 연간 1백10억달러에 이르고, 韓國은 美國의 중요한 교역대상국(제9위)인 동시에 제5위의 農産物 수입국이며, 美國은 韓國의 제1위의 교역상대국이라는 사실을 보더라도 지속적인 韓·美 경제협력은 불가피한 추세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한편 레이건 대통령은 美國이 韓國에 대해 계속하여 에너지資源 및 에너지技術의 안정적인 공급국이 될 것임을 확약했다. 그는 또 安保上의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한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지원할 것도 다짐했다.

이를 밝힌 공동성명 제12항은 이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기대이상의 성과라 하겠다. 특히 中東정세가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이 시점에서 美國과 같은 經濟大國의 對韓 에너지 지원이 확약되었다는 것은 앞날의 긴급사태 對備를 위해 우리에게 참으로 값진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양국 대통령은 또한 공동성명 제13항에서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며 韓·美 경제교류의

중심지인 釜山에 美領事館을 가까운 장래에 새로 개설키로 합의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다방면에 걸쳐 이미 최상의 상태에 있는 양국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보다 심화시키기 위해 안보·정치·경제·과학·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共同議題에 관한 會合과 協議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이는 太平洋지역이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韓·美 양국이 태평양 연안국의 일원으로서의 共同體인식을 새로이 하고 공동번영의 목표를 보다 강력히 추구해 나가기로 합의한 두 나라의 意志를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行動으로 보인 自由守護

끝으로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양국대통령이 현재의 韓·美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최상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제15항에서 이러한 友好關係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레이건 대통령이 쏘대통령의 워싱턴 재방문을 요청하였으며 쏘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락했음을 밝힌 점이다.

이는 血盟의 友誼 속에 다져진 自由守護의 공동노력을 일층 강화해 나갈 것과 함께 새 太平洋시대를 향한 양국의 공동번영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히 추구돼 나갈 것으로 期待되는 韓·美修交 제2세기의 앞날을 밝게 내다보게 하는 역사적인 里程碑라고 평가된다.

이 이정표의 확고부동함은 특히 레이건 대통령의 國會연설과 그리고 異例의인 最前方시찰에서 행동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국회연설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KAL기 사건 및 랭군테러사건 등에 언급하면서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해 두 나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목념을 울리자고 했을 때, 그리고

美國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위험한 비무장지대(DMZ)까지 방문하여 자유수호에 헌신하고 있는 韓·美장병들을 친히 격려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명깊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레이건 대통령의 전선방문은 北傀의 랭군테러 실패에 이은 後繼도발이 우려되고 있는 때에 韓·美연합군의 對敵경계태세 강화와 아울러 현행 「攻勢의 방어 대응태세의 확고한 유지를 미국의 國家元首로서 직접 당부했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지난 연말 全대통령도 韓·美軍 전방부대를 시찰 『韓·美軍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연합작전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함과 함께 『앞으로 北傀의 무력도발이 더욱 늘어나리라고 예상되니만큼 韓·美軍은 긴밀히 협조, 어떠한 형태의 도발에도 완벽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주지되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北傀는 랭군테러사건으로 인한 외교적 고립과 南北韓간 국력격차의 심화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또한 世襲체제를 둘러싸고 날로 격화되고 있는 그들 권력 내의 暗鬪 등 내부적 갈등 때문에 그 돌파구를 對南 모험도발에서 찾고자 어느 때보다도 혈안이 되어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韓·美軍 장병들은 양국 대통령의 간곡한 당부를 깊이 명심, 만일 적이 도발해 오면 현전선에서 단호히 섬멸함은 물론 즉각적인 공세작전으로 적의 심장부에 致命的인 보복공격을 가함으로써 사태를 승리로 종결짓는 「공세적방어」 대응태세를 양국군의 긴밀한 협조아래 항상 고도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임은 더 강조할 나위도 없는 것이라 하겠다.

새 韓·美關係와 우리의 課題

결론적으로 말해 이번의 韓·美頂上회담은 두 나라가 서로 不可分의 血盟임을 다시 확인

하고 韓國의 통일·안보·외교노력에 있어서 양국이 입장을 완전히 같이하는 運命共同體임을 재인식함과 동시에 경제·과학·기술·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긴밀한 관계를 보다 심화시켜 나가야 할 同伴관계에 있음을 내외에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성과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과제는 국민 모두가 국가발전과 國力伸張을 위해 더욱 결속하여 한 마음으로 精進해 나가는 일이라 하겠다. 美國의 對韓公約이 아무리 굳건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확고한 의지와 힘이 있을 때라야 그 약속은 온전히 이행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全대통령은 지난 81년 訪美귀국인사에서 바로 이 점을 지적, 『오늘의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강한 빔을 가지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강해져야만 한다』고 集團安保의 本質에 관한 국민들의 새로운 각성을 촉구한바 있다.

또 버마慘事와 관련한 특별담화에서도 全대통령은 『先進祖國 창조의 과업을 달성하는 길만이 우리의 生存과 安寧을 파괴하려는 적의 기도를 분쇄하는 근원적인 길』이라고 밝히고 『우리의 국력신장을 위한 세계 속의 大行進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시도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렇다. 국력신장으로 선진조국을 하루 빨리 구현하는 국민적 노력의 지속적 전개만이 우리의 생존과 안녕과 번영을 보장해 주는 오직 한 길이다. 우리는 새차원의 韓·美關係가 우리에게 이렇듯 막중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음을 깊이 깨달아 그 실천의 길에 범국민적 힘을 모아 나갈 것을 다 같이 거듭 다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의

人口問題와 그 對策

宋 起 東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1. 7월 29일 下午 10시 51분 28초

지난 여름 더위가 한창이던 83년 7월 30일 우리나라의 신문들은 하나같이 큼직한 사진 한장씩을 실었다. 오만상을 찌푸리고 울고 있는 간난애와 이를 대견한듯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4천만명째의 한국인」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었다. 어젯밤 그러니까 7월29일 10시51분28초에 태어난 「희한한 운명의 主人公」인 것이다.

또 그 날짜 신문들은 똑 같이 「4」자 옆에다 「0」자가 7개씩 붙은 숫자판 사진을 요란하게 실고 있었다. 우리나라 人口가 드디어 4천만을 돌파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衝擊的으로」 보도해 보이겠다는 의도인듯 하다.

그리고 신문들은 「인구密度 세계 3위」「현행 人口정책 성공해도 2千年엔 5천만돌파」라는 副題까지 달고 있었다.

「政策이 성공해도」라는 假定아래서도 17년 후면 다시 1천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斷定」하고 있는데 「不成功」일 때는 도시 어떻게 된다는 意味일까. 실로 섬뜩한 느낌마저 든다.

경제기획원 통계당국이 얼마전에 우리 나라

인구증가율을 연평균 1.57로 가정, 컴퓨터로 추정해낸 것인데, 이에 따르면 하루에 2천5백15명이 태어나는데 비해 사망은 6백97명이고 1백21명이 해외로 나가 人口의 純增은 하루 1천6백97명이었다.

해방 직후 공칭 세계인구는 20억이었고, 우리 나라 인구는 3천만이었다. 그런데 세계 인구는 올해 이미 46억을 넘어섰고, 미국의 한 人口연구소에 의하면 지금부터 5년 안에 50억을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40년만에 2倍半이나 불어나는 것이다.

해방 때 우리 인구 3천만이란 물론 南北을 합친 것인데 지금은 줄잡아 6천만이라 2倍가 된 셈 아닌가.

최근 10년간 우리 인구는 해마다 약 60만명씩 불어나고 있다. 흔히 말하듯 한 해에 「大田만한 새 都市」가 생겨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야! 놀라운데』하고 웃어넘길 참일까.

하루에 1천7백명꼴로 불어나 1년이면 大田 人口 만큼씩 늘어나고 있는 이 「人口爆發」 현상을 왜들 피부로 느껴 서둘러 대처하지 않는다는 反問인 것이다.

물론 그동안 당국도 여러 차례 人口정책에

대한 심의와 거기에 따른 관계법의 개정논의 등을 해오고는 있다. 하지만 언제나 「제자리 걸음」 아닌가.

制度나 法令의 개정, 또 慣習과 意識의 개조가 그리 손쉬운 일은 결코 아닐지라도 「南韓 人口 4천만 돌파」라는 「衝擊的인 現實」을 目睹하고서도 어느새 또 半年을 흘러보낼만큼 「衝擊的으로 못받아들이는」데 대한 숨찬 反問인 것이다.

실상가상으로 人口문제 중 또 하나의 難題는 人口의 「都市集中化」 현상이다. 그 가운데서도 「서울人口集中化」문제는 고질 중의 고질 병이다. 왜 그럴까.

2. 「서울은 滿員이다」

漢城, 漢州, 楊州, 南京, 漢陽府, 漢城府, 京城 등 옛비슷한 이름을 나열해 놓았지만 그것이 한눈에 짐작가듯 바로 우리 서울의 三國時代로부터의 이름들이다.

李太祖 3년 10월 28일 이곳을 도읍지로 정하고 천도, 우리의 首都로서 커온지도 어느덧 5백 89년이나 된 우리의 이 서울特別市가 요즘 超過密 狀態 속에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다.

지난 83년 9월말 현재 서울人口가 무려 9백 45만명이라니 1천만명선이 코앞에 다가선 것이다. 물론 이것은 常住人口가 아닌 住民登錄人口이기에 실제 눈에 띄는 서울人口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조만간 「1천만 서울市民」은 결코 어김 없는 사실인듯 하다.

지난 82년 10월 1일 현재 서울인구가 8백 91만명이었으니 1년새 54만이나 늘어났단 말이냐 하고들 우선 먼저 놀란다. 전국의 인구증가율이 1.6%인데 서울만은 무려 6%선이란 얘기가 된다.

어쨌든 1천만명선에 육박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니 4천만인구의 근 4분의 1이 서울에 몰려 서로 대질되며 비비대고 살고 있는 꼴이다. 이러니 아우성 안 된다는게 되레 이상하다.

유엔 人口年鑑과 美國의 人口연구소 등의 통계들이 조금씩 엇갈리고는 있지만 우리 서울이 세계 10대 「人口都市」의 上位圈에 들어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10大都市가 아닌 10대 「人口都市」라는 요상한 표현이 「過多自嘲症」증세라고 핀잔 받을지 모르지만 사실 서울의 肥滿症은 참으로 고질 중의 고질임이 분명하다.

과열화에 따른 公害, 住居, 教育, 雇傭, 交通, 流通 등과 거기에다 安保的 차원이라는 무거운 짐까지 겹친 슬한 合併症증세를 앓고 있는 서울肥大症은 실로 예사일이 아닌 것이다.

서울사람의 2할 이상이 세방살이요, 국제기준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서도, 또 콩나물시루 버스 속에서 아침 저녁 시달린 짜증을 소주잔으로 눌러 삭히면서도 서울市民은 불어만가니 어찌하랴.

서대문에서 종로 한길을 따라 후를 물면 그 滯車시간 많은데 몇 번씩 짜증을 내야만 한다. 서울에서 가장 넓다는 간선도로가 요모양이니 더는 말할데 없다.

이렇듯 교통문제 하나만 봐도 금방 「窒息서울」을 실감케 된다. 그러니 꼬불꼬불한 좁디 좁은 골목길이 迷路처럼 얽혀있는 게딱지 같은 주택지역의 생활환경은 아예 들춰낼 것까지도 없다.

연전에 어느 작가가 신문연재소설을 썼는데 제목이 「서울은 滿員이다」였다. 이젠 그 표현도 고칠 때가 넘었다. 「서울은 超滿員이다」라고, 「窒息서울」, 이걸 대체 어찌잔 말인가.

3. 就業기회와 教育환경

프랑스에 유학 간 어느 한국 젊은이가 유학 중에 프랑스 처녀와 사귀다 보니 끝내는 결혼으로 끝인, 이 新婦, 남편의 나라 대한민국에 신접살림 차리려 왔는데 보금자리를 찾아 서울을 비롯 여러 곳을 돌이서 돌아왔지만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펄쩍 뛰었다. 新郎은 마지막으로 濟州島로 신부를 데려갔더니 여기같은 견디어 보겠노라는 대답을 끌어냈다 한다. 『말새끼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의 자식은 서울로 보내라』는 우리 속담을 뒤집어 얹어놓은 격이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다.

서울시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한 市民意識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 계속 살고 싶다」는 시민이 56.7%나 되었다 한다. 이는 10년쯤전인 72년 조사 때의 23.8%에 비하면 무려 두 배를 훨씬 넘기고 있어 놀랍다.

또한 「지방에 가 살고 싶다」는 대답이 72년의 30%에서 20.9%로 줄어들고 있다.

참 회한한 일이다. 이렇듯 어지럽고, 시끄럽고, 짜증은 나면서도 「그래도 서울이 좋다」는 서울거주 選好경향만은 갈수록 높아만 가니 야릇하다.

실마하니 市당국에서 「아름다운 서울」을 뽑내기 위해 어물쩍했울리는 만무한데 아무래도 「서울의 매력」은 따로 있는성 싶다.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 要因이라 한다.

그래도 나은 就業기회와 그래도 나은 教育환경이 「매력 아닌 매력」이란다. 서울에만 가면 그래도 어떻게든 돈벌이가 된다는 收益性과 그래도 좋은 학교가 집중돼 있는 서울의 教育환경이 눈코를 찌르는 公害도, 짜증나는 交通地獄까지도 참고 견디게 하는 힘이 있다

는 證據다. 곧 都市의 便宜性이다. 그렇다면 서울人口 集中化방지의 處方은 自明해진다.

물론 여기엔 전체 人口에 대한 抑制策이 병행되지 않으면 긴 눈으로 볼 때 都市時代化방지책도 無意味해지긴 하지만,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립니다』.

서울의 讚歌, 그 노래 가사는 멋지고 아름답다. 하지만 그 종로거리에 새로 간 매끈한 보도블록에다 4천만 시민 가운데 누가 버리고 갔는지 수없이 늘어붙어 있는 까만 「추잉검屍體들」은 또 4천만 가운데 누가 밟고 가는가. 시끄러운 클랙션 소리에 상을 찌꾸리며, 매캐한 매연에 더욱 상을 찌꾸리며, 그리고 발바닥에 밟히는 녹진한 추잉검의 감촉에 끝내는 오만상을 찌꾸려야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首都 서울.

대관절 묘책은 없는 것인가.

4. 문제는 「아들 選好思想」

「人力은 資源이다」

물론 옳은 말이다.

개발 초기의 우리나라는 값 싸면서도 질 좋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세계와 겨루며 버티어 왔다. 물론 지금은 그 20년 전과는 단판으로 국제經濟環境은 갈수록 어렵고 힘겹게 돼 버렸다.

이에 국제경쟁력을 부추하고 「제2의 도약」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제 勞動集約의 생산체제에서 技術集約적 체제에의 移行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人力은 여전히 우리의 밀천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 인구는 한편으로 자원을 갈아먹는다는 兩面性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손쉽게 대충만 따져 보자.

우선 食糧需給계획을 비롯 住宅, 교육, 雇傭에다 교통, 복지후생 등 온갖 衣食住와 이에 따른 모든 정책에 해마다 「大田人口」만큼은 늘려 잡아야 한다는건 더는 말할 나위도 없다. 말하자면 모든 정책에 앞서서 人口政策이 굳혀져야 한다는 뜻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난 3월 釜山에서 83년 가족계획사업 평가대회가 열렸었다. 그때 학자들은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 人口가 더 이상 늘려 福祉를 위협한다』고, 이 실감나는 말이 비단 그 모임에서만 나왔을리 없는데도 인구억제정책은 아직까지 뚜렷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물론 束手無策이었다는 건 결코 아니다.

10년 전인 72년께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2%의 고비를 넘겨 1.89%였다. 그 2년 후인 74년에는 1.73%, 76년엔 1.61%, 그리고 78년에는 1.53%로 계속 떨어졌다. 이 숫자만 봐도 그동안 당국의 가족계획이 그런대로 순조롭게 돼왔다는 증거이긴 하다. 물론 요 2~3년 동안은 이른바 6.25적후의 「베이비 붐」 탓에 증가율이 1.57%로 反騰하고는 있지만, 얼마 전 人口保健연구원에서 조사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2자녀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여성이 54.6%였고, 3자녀 이상을 원하는 여성은 39.9%였다. 이는 12년 전인 71년에 2자녀만 원하는 여성이 겨우 6%였고, 3자녀 이상 희망자는 무려 93%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産兒제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도 당국의 힘이 컸을 것이다. -

그런데 한 가지 회한한 현상이 있다. 같은 조사에서 「딸만 둘일 경우」 아들 불 때까지 낳겠다는 여성이 48.8%나 된다는 이 현실을 直視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2자녀가 理想型이라고 여기고 있는 여성 가운데도 어찌다 딸만 둘 낳았을 때는 아들 보기 위해서 3자녀 이상도 不辭하겠다는 억척派가 많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기에 문제의 초점은 아무래도 「아들選好思想」 바로 이것이다.

5. 人口政策은 보다 果敢히

한 마디로 人口抑制정책은 보다 과감히 실천해야 한다는데 歸一하고 만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지위를 과감히 높여 남아選好意識을 줄여보자는, 즉 戶主制 폐지, 相續制度의 전면 개편 등 法制度부터 고쳐야겠다. 물론 말로는 쉽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난관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과감히」이란 낱말이 필요하다. 「男女差別 완전 철폐」 없이는 「人口時限폭탄」을 결코 제거할 수 없다.

여기에 社會的 側面에서 여성 就業의 문호 완전 개방, 결혼연령을 높여 出産力을 낮아지도록 「과감히」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에는 法과 稅制面, 社會福祉 등에서 현저한 差等を 두는 「經濟的 인센티브」를 역시 「과감히」 밀어부쳐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罰則制를 두라는 뜻이 아니다.

전체적인 觀點에서 다시 서울만을 좁혀 보면 더욱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한해에 「大田人口」만큼 느는데 그 태반이 서울로 몰린다는 현상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抑制策의 「과감한」 실천에 병행해 서울의 경우는 그 「都市의 便宜性」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 놓아 보자는거다.

한때 「行政首都」 얘기가 있었지만 고작 서울 남쪽 果川에다 제2 청사를 옮겨 놓는데서야 무슨 실효가 있을까. 人口政策면에서 말이다...

일자리의 地方분산도 어느 정도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需의 觀點에서 再透視해볼 필요가 있다.

教育기회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좀 엉뚱한 생각이라고 핀잔할지 모르지만 굳이 이제는 「서울大學校」가 꼭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는 결단코 없다.

결코 뽑낼 것도 없는 「세계 5大都市 서울」은 「1천만市民」을 코 앞에 바라보며 우물쭈물하고 있을 참인가.

5년 전 서울人口가 7백50만인데, 5년 후 지금 9백50만이니, 다시 5년 후는 1천2백만가량

되겠다고 주판알만 땡기고 있을 참인가. 爆發직전의 이 아슬아슬한 曲藝가 또 5년, 그리고 또 5년, 실마 하니 못살겠느냐고 惰性에 젖어 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낭패다.

1년 전에 30분 걸리던 江南에서의 都心出勤이 이제 50분도 더 걸린다는 이 어김없는 實相은 몇년 후엔 「交通完全癱痺」가 된다는 것을 警告하고 있지 않은가.

「내일이면 늦으리라」는 作品이 있었다든가 그게 어쩐지 우리 서울을 두고 한 말인 것같이 아찔해온다.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다. 『지금 서울은 超滿員이다!』

4大 施政目標

安 保 力 量 的 强 化

安 定 成 長 的 持 續

信 賴 社 會 的 定 着

秩 序 意 識 的 涵 養

3.1 精神과 國民和合

— 65주년에 생각한다 —



李 炫 熙

<文博·성신여대교수·한국사>

뿌리깊은 自立意識

1919년 3월 1일(토요일)에 폭발하기 시작한 3.1독립만세운동은 그 이전부터 내재적으로 성숙 발전되어온 전통적인 韓民族의 獨立意志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며, 1945년 8월 15일 民族의 光復時까지 그 의지와 이념은 오천만 민중의 힘에 의하여 계승 유지되었던 것임을 밝혀야 될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擧論한다면, 우리의 독립정신은 日帝 당국자들이 언필칭 주장한대로 3.1운동 당시에 急造되고 우연하게 절규 주장한 「獨立理論의 體系」가 아니고 뿌리가 깊다는 점을 명백히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의 사상적인 배경은 현실에 대한 일대 용단이기도 하였던 自覺·批判·反省을 불러 일으킨 16·17세기의 「實學思想」의 近代 지향적인 민족의식, 자각이념에서부터 발원하였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와 계기를 거치는 동안에 19세기 후반기에 성숙 발전하기 시작한 「開化思想」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이는 맥맥히 흐르고 있는 人脈·著書·思想面

에서 확실히 그렇게 연결되었다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다시 시대적 조류와 세계사적인 발전의 추세에 따라 20세기의 「獨立思想」으로 團合和合을 전제로 하여 大同合流되어 뿌리깊게 맥락지어진 것이다.

이같은 사상적인 맥락이 복합적으로 흐름에 따라 우리는 獨立思想의 영향은 그 원류가 곧 實學思想으로까지 소급해서 그 배경을 잡아볼 수 있다고 요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 물론 實學思想이 開化思想으로 영향을 미친 사상적 흐름을 인식할 때, 1860년대의 斥邪衛正思想과 東學思想에도 이의 영향이 복합적이고 다원적으로 맥락지어졌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각종 資料가 뒷받침 해주고 있어 그렇게 견주어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이 독립사상 체계 인식에 영향을 미친 實學思想은 主商的인 海外交流論과 이에 버금가는 北學派의 理論에서 더욱 농도깊게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人脈에서의 연결면에서 뚜렷해지는 것이다.

즉, 조선후기 實學者들이 韓末 開化思想家에게 혁신이념, 철학적 해석방법 적응이론 등을 전수하여 다시 이들이 20세기의 독립운동

가들에게 행동적인 자극을 주게 되었다. 20세기의 獨立運動家群이 實學과 開化 관계 서적을 탐독하고 사숙과 師弟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조선후기 실학자 연암 朴趾源의 영향을 韓末開化思想家인 손자 朴珪壽가 이어 받고 朴珪壽의 문하에 金玉均·朴泳孝·俞吉潑·金允植 등이 出入하면서 이 사상을 開化와 獨立思想으로 연결하고 朴殷植·申采浩·李鍾一 등 독립운동가들이 사사하거나 出入하며 지대한 감동·감화를 받고 있음을 지적해 볼 수 있다. 또 茶山 丁若鏞 문하에도 李重協·李最 등의 실학자가 영향을 받고, 다시 그 문하에 南鍾三·李道宰·李沂(이기) 등 개화사상가들이 옷깃을 스치면서 훈도받기에 寧日이 없었다. 秋史 金正禧 문하에는 흥선대원군 李昞應·金綺秀·吳慶錫 등 開化革新사상가들이 出入하여 영향을 받았음에서 그 인맥적인 연결은 다원화되고 복잡화 되었음을 理解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인맥이 연결됨에 영향을 미친 매개체는 實學 및 開化 관계의 서적이었다. 「해국도지」, 「영환지략」, 「조선책략」, 「이언」, 「연암집」, 「다산전서」, 「열하일기」, 「담헌연기」, 「북학의」 등이 그것이다. 20세기의 독립사상가 및 운동가들이 그같은 서적을 탐독함으로써 독립사상은 더욱 신념깊게 뿌리를 박았던 것이고, 전위적 행동에로의 거창한 참여를 스스로 유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實學思想의 영향이 開化, 東學, 斥邪思想에 미치고 19세기 이후 정착한 기독교의 博愛·平等·平和思想도 이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집권층보다는 민중에게 「市民意識」을 터득케 하고 理解시키는 방향에서 새로운 의식구조가 형성되게 되었다.

따라서 3.1독립운동의 배경은 전통적이고 내재적으로 成熟 發展되어온 자주·자립의 뿌리깊은 自立意志가 국제정세의 변화와 추이에 따라 自主적으로 폭발된 민중구국의 구체화라고 지적할 수 있다. 종래적 관점인 3.1운동 발발의 배경이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과는 관련이 비교적 희박하다고 필자가 典據를 제시하고 여러 紙·誌에서 주장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3.1운동은 우리 근대사에서 두번째 맞는 혁명인 것으로 이제 해석 제시되어야 한다.

民衆運動의 勝利

따라서 3.1운동은 이 이전부터 태동하여 각계 각층의 조직 결사 항쟁이라는 民衆運動의 총괄이며 그 승리의 구체화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독립사상의 맥락이 외부의 어떤 사조나 계기에 의하여 체계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라는 점을 강조하였거니와, 民衆의 독립운동은 日本 등 외세 침략 국가들에 대한 저항의식이 그때 그때 전통적으로 연결되어왔음을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민중운동을 들추어 본다면, 1894년의 甲午東學革命운동에서의 反封建과 抗日救國運動을 손꼽아 볼 수 있겠다.

이 운동은 비로소 市民意識으로의 혁명적 이념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겠는데 佛의 대혁명과 비교할 수 있는 그것은 봉건주의에 반기를 들고 의식의 혁명을 구가하였다는 면에서 「혁명」으로 불리워지는 것이다. 그해 말경 다시 일어난 이 운동은 抗日救國民衆運動으로 東學教徒가 先導하였고 다수의 농민이 뒤따른 民衆救國運動의 전형적인 형태를 취한 지도자 정신이 뚜렷치 못한 민중운동이었다. 이 운동

은 實學과 開化思想의 영향을 다분히 받았다
는 면에서, 東學 창도이념과 甲申政變에서의
국민국가 형성의 기치가 높이 표방되기에 이
른 것이다.

東學革命運動 이후의 민중운동은 곧 「義兵
戰爭」(1895~1915)으로 표현되는 20년 동안의
斥邪衛正思想의 행동적인 구체화라고 말할 수
있다. 儒生層의 兩班이 선봉장이 되었으나 개
층에는 평민출신과 포수출신의 순수 「민중계
층」이 主導的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義兵」을 민중운동의 적극성을 띤 한 사회
계층이라고 지적해 볼 수 있다. 1910년대 후
반에 가서도 종교인 가운데 몇몇은 쇠잔해지
는 「義兵」의 부흥을 아쉬워하고 재기할 것을
절규함으로써 의병이라는 民衆運動이 곧 3.1
독립운동으로까지 국내외에서 연결되고 있었
다는 고귀한 전통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전국적인 대규모의 민중운동에 병행
하는 독립자주운동으로는 結社抗爭을 거론할
수 있다. 1896년 이후 3년 정도 萬民共同會로
까지 확산되었던 獨立協會의 민권과 국권의
수호, 自強運動, 政體의 개혁운동은 實學과
開化思想이 再顯으로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결사운동으로 조직성에 특징을 두고 있
는 것이다. 여기에 贊養會의 女性들이 독립협
회 자립운동에 대거 참여하였음은 女性開化運
動이 救國運動으로의 일대 전환점과 그 가능
성을 齎來케 한 계기였고 그들의 활동을 뒷받
침한 中流 및 최초의 女性啓蒙紙인 제국신문
의 弘報性은 주목받을 만하다. 또 같은 시기
에 李鍾一 등이 조직 활동한 大韓帝國民力會
의 민권수호 및 利權保護의 절규도 민중운동
의 가능성과 성공물을 높였다는 면에서 歷史
에서 새로이 照明을 받아야 함을 필자는 강조
해 둔다.

특히 1905년을 전후로 한 시기로부터 1919년
3월 1일 이전까지 연면히 유지 계승되었던 愛
國啓蒙運動과 1910년 이후의 각종 地下의 양
상을 띤 秘密結社 獨立抗爭은 곧 독립운동으
로의 源流의 背景을 결정적으로 형성하고 후
원하였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發展史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즉, 1904년 東學의
孫秉熙 등이 중심이 된 甲辰開化 새생활운동
의 제창과 그 실천운동의 전개 이후 교육·언
론·종교운동은 요원의 불같이 거세게 타올랐
다. 이들은 한결같이 그것이 민족운동이었다
고 자부하였음을 볼 때 「힌슬리」교수의 「民族
主義와 國際體制」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
치적 忠誠의 民族國家形成 단계로의 移轉 현
상」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近代國家로서의 의
식구조가 형성되어감을 認識할 수 있겠다.

結社運動은 輔安會·大韓自強會(大韓協會)
·憲政研究會·新民會·YMCA 등의 특색 있는
민족운동이 연결되었으며, 言論運動은 독립선
문 이후 제국신문·皇城新聞·大韓每日申報·
萬歲報·大韓民報·경향신문 등이 이 운동을
필봉으로 적극 후원하였고, 教育運動으로는
培材·梨花 이후, 普成·養正·徽文·中央·
大成·五山·서건서숙 등 국내외에 3천여개
학교가 신식교육을 통해 독립운동의 역군을
길러 뒷날 민중운동의 지도자가 되었음은 의
미 깊은 일이었다.

宗教運動은 天道教·基督教·佛敎 등이 각
기 신앙의 양심을 들어 구국운동에 적극 참여
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1910년 8월 대한
제국은 民權이 확립되지 못한 데다가 近代化
에 뒤져 日帝에 의해 強占 당하는 비운을 맞보
았다.

그러나 구국의식으로 충만해 있던 民衆들은
「國民國家運動」을 그해 9월 말부터 구체적으

로 추진하고 있었다. 天道敎의 李鍾一 등은 1914년 普成社內에 天道敎國團이란 비밀결사를 설치하고, 甲午(1894)와 甲辰(1904)의 민중운동을 再顯하려는 움직임 보여 이것이 孫秉熙 등과의 연결로 3.1운동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외 獨立義軍府·光復會·朝鮮國權恢復團·國民會·조선산직장려회 등 비밀결사가 이 민중운동을 3.1독립운동으로 결산케 하고 成功과 勝利를 거두게 하였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3.1운동의 주도적 추진세력은 東學-天道敎徒들에 의한 甲午·甲辰의 민중운동을 再顯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있었고 그들이 기독교·불교·여성계·학생·유림들과 제휴 내지는 설득하여 국민화합이라는 대동단결을 전제로 하고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었다.

民族進路와 國民和合의 章

3.1독립운동을 가능케 한 추진세력은 국내 외에 걸쳐 시기는 약간 다르나 거의 같은 理念과 方法으로 집결되었으며, 전통적이고 내재적인 자주자립의 독립의지로 각계 각층의 민중이 대동 단합하고 크게 합류하여 민중운동의 승리를 결과케 하였다.

따라서 3.1독립운동 65주년을 맞는 입장에서 的 視角과 評價를 다음과 같이 내리면서 歷史的 敎訓으로 삼아볼까 한다.

첫째, 이 운동은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의하여 폭발된 것이기보다는 民族史의 자주·자립의 뿌리깊은 민족관이라는 전통이 實學·開化·東學·斥邪思想과의 융합·접촉과정에서 독립의지로 구체화된 민족자활의 범국민화합운동이었다.

둘째, 이 운동은 天道敎側에 의하여 제2의

3.1운동(1922)까지 시종 계획·추진된 것으로 甲午東學革命(1894)·甲辰開化 새생활운동(1904)·甲寅 민중운동(1914)의 「三甲運動」으로 표현되는 민중운동의 재현임을 지적할 수 있겠다. 天道敎側에서는 이미 1894년의 東學革命運動 때의 교훈을 되살려 민중운동은 언제든지 決行하되, 大衆化·一元化 非暴力을 최대의 방법으로 삼아 그 進路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大衆化라는 의미에서 종교계·교육계·사회일반계층과의 연합을 시도하였으며, 一元化에 따라 3월 1일을 기해 동시에 이 운동을 전국 각지에서 일으키게 하였고 다수의 民衆을 무력 앞에서 의연히 守護하기 위하여 非暴力의 온건하고 平和로운 방법을 취하였던 것이다.

셋째, 이 운동은 국내에서 제일 먼저 조직 단계로 들어간 이후 上海·中國·滿洲·露領·日本·美洲·歐洲 등지에서도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격적인 국민국가형성을 위한 「독립운동」을 계획 추진하였다. 특히 滿洲 일대에서 독립지사들에 의한 1918년 戊午獨立宣言書의 발표나 1919년 2월 8일의 東京 韓國人 留學生의 독립선언은 국내 독립선언의 시기를 앞당긴 것 같으며, 憲兵警察統治의 억압과 高宗의 갑작스런 독살로 인한 暴崩 등은 국내 민족운동의 결정적인 시기를 촉진 자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네째, 이 운동은 민간정부로서의 국민화합의 최대 상징인 大韓民國臨時政府를 수립하게 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따라서 이후 1945년 민족의 광복을 맞을 때까지 27년동안 국내외의 통제적 사명을 띤 正統 大韓政府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건국의 理念을 기저로 하게 하였으며 비로소 민족운동의 분수령을 만들었던 것이다.

다섯째, 이 운동 이후 비로소 우리 民族은 進路와 方向을 확정하였던 것이다. 즉, 民族 實力의 養成·外交自立主義의 표방·武裝勢力을 양성하여 獨立戰爭을 수행하도록 방향 감각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照明되어야 하겠다.

여섯째, 이 운동은 男女老幼·貧富貴賤·地闊·門闊·學闊을 초월한 大韓人의 全民衆이 격의 없고 조건없이 총화단결하여 國民화합의 역사적 모범을 보임으로써 오직 한 가지의 목표인 「國民國家 樹立」을 향해 「獨立長征」을 표방한 민족의 엄숙한 명령이었다. 그러므로 自由·正義·眞理를 구현하는 「民族의 廣場」 구실을 충실히 감당해낸 것으로서 民族運動 方向感覺에 있어서 成功한 大衆自活運動이었다고 생각된다.

일곱째, 이 운동은 한국에서 市民意識을 터득케 하고 民族主義 民衆運動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아시아 全地域에 새로운 「민족운동」을 파상적으로 확산 촉진시켰다. 즉, 中國의 5.4運動, 印度의 反英 무저항 운동, 이집트의 反英運動 등을 차례로 촉진케 하여 한민족의 불요불굴의 저항정신이 獨立精神으로 연결되었다는 신화를 남겨주었다.

따라서 世界 自由人에게 韓民族의 투지·자립의식·강인성·민족의 우수성 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生動하는 民族이라는 어론을 조성케 하였던 것이다.

여덟째, 開化女性도 救國運動으로서 한몫

구실을 한 이 운동은 첫 독립의지에 주체성을 띤 조직화운동으로, 국민각자에게 이 사상과 이념을 意識化하고 客觀化하며 가치관을 확립 시키미 필요할 것이다. 또한 건국의 이념을 제시한 면에서 이 정신은 영구히 후손에게 자주·자립·단결의 상징으로 남겨주어야 하며, 그 정신이 곧 민족중흥과 祖國의 近代化와 창조 및 통일외지로 연결되고 밑거름이 됨을 인식시켜야 하겠다.

결국 3.1정신은 민중역사와 시민계층의 승리의 역사이며 혁명외식의 소산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정신이 30여일 뒤 上海 중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민주공화국을 수립, 1945년 민족의 광복기까지 정통적으로 유연히 계승 유지될 수 있었던 민족적 저력이 되었으며 國民화합의 큰 역사적 계기를 금그어 주었다고 믿는 것이다.

3.1정신의 발현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세대를 청산하고 신세대라는 近代意識의 문턱에서 새 조국창조의 힘찬 고동소리를 내 뽐게 된 것이다.

세계 자유 우방인이 입을 모아 한국의 3.1 혁명정신은 세계 민주정치 구현과 生動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고 매우 자랑스럽게 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슴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3.1정신 65주년을 맞는 아침에 조용히 생각해 보았다. 3.1정신, 너 그것은 영원한 活火山이라고……



보다 높은 경계심 으로 자주국방을



장영상
△「농심」공장장▽

갑자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갑자년 새해를 맞아 공군장병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운과 건투를 빌어 봅니다.

실로 지난 한 해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도 많았고 감당키 어려운 충격적 사건도 적지 않았던 해였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ASTA 및 IPU총회 같은 국제적인 행사,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 「레이진」의 대통령의 방한은 정말 뜻깊고 고무적인 행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KAL기 격추사건, 버마 암살 폭발사건은 지금껏 비분을 금할 수 없는 국가적 시련으로 결코 잊어선 안 될 대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충격적 사건도 우리는 여기

에 적절한 응분의 대응태세와 성숙하고 의연한 자세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슬기와 저력을 내외에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우기 우리는 국가적 어려움과 불행을 전 화위복의 전기로 삼아 심기일전하여 국력신장, 국가안보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살인집단 북괴의 호전적 작종 도발이 격화됨으로써 우리의 안보현실에,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기의 테러 살인집단 북괴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말할 수 없는 심한 수모와 질시, 그리고 보다 강력한 규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웅산폭과 암살사건 이후 버마정부의 대북 괴 단교, 정부승인 취소, 공관원 추방 등 최강경 조치로 북괴가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하나의 테러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세계에 공포한 것이며 특히 비동맹 제3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에 동조하고 있으며 「코스타리카」 같은 국가도 북괴단교와 외교관 추방을 시키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등 많은 나라로부터 치욕과 제재조치를 받음으로써 심한 국제적인 고립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생겨나면서부터 폭력과 테러, 그리고 무장도발을 유일의 수단으로 알고 있는 북괴살인집단이 세계여론에 귀를 기울일 리 만무하며, 국제질서 파괴행위야말로 스스로 자기무덤을 파는 자멸행위임을 알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해서 국제사회에서의

교립화 내지는 응징·규탄의 소리가 높다해서 그 얼어붙은 야수와 같은 마음이 반성은 커녕 오히려 어떤 형태로든지 국제사회를 교란시켜 저들의 폭력혁명노선을 강화하는데 더욱 광분할 것입니다.

더우기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더한층 도발을 격화시키는 것이 저들의 심성이고 보면 앞으로는 더 강력한 대남도발을 획책하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 지난 12월 4일, 새벽을 틈타 부산 다대포해안으로 무장간첩을 침투시킨 사건입니다.

다행히 우리 국군의 철동같은 경계망에 의해 일망타진되고 적의 야욕이 분쇄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천인공노할 버마암살폭발 사건으로 우리 국민의 가슴에 맺힌 아픔이 채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저질러진 악랄한 도발이라는 데서 우리를 경악케 하고 분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한 호전집단이며 반민족적인 무리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명 높은 북괴의 테러군성과 호전성에 대해서는 이제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국군장병들은 그 정체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이상 거기에 대처하는 마음의 자세를 한층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찌기 6.25의 민족상잔과 월남전을 통해 자주적인 국방과 유비무환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몸소 체험하고 그 절실함을 깨달았습니다.

더우기 인지사태에서 국방의 무력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재삼 느꼈으며 무

엇보다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강대국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북괴의 끊임없는 대남적화야욕망을 억지하고 그에 대처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태세를 완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자주국방의 배양을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특히 국방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신념아래 자위의식을 기초로 총력안보태세를 굳건히 그리고 착실하게 다져왔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는 날로 발전하는 국력을 바탕으로 방위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주력함으로써 이제 자주국방의 튼튼한 기반을 닦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군사적 역량 뿐 아니라 정신적·도덕적 측면에서도 북괴를 압도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자주국방은 필승의 신념과 총력전의 결의로 굳게 무장된 정신전력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현대전은 총력전이기 때문에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은 일단 전쟁상태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국토를 지키는 국방의 기수라는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더욱 꾸준히 노력하여 북괴 스스로 침략을 포기하는 그 날까지 선진 조국창조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지상 명제요 소명인 것입니다.

智·勇·德을 겸비한 將兵되기를

李 時 榮

△「여성자신」社 기자▽



나에게 있어서 '軍人'이란 개념은 나라를 지키고 수호하는 씩씩한 아저씨라는 국민학교 시절, 위문편지를 쓰던 때의 이미지와 좀 나이가 들어서면서 획일적이면서도 위압감을 갖게 하는 그다지 좋은 의미의 이미지는 아닌 두 가지면으로 내재되어 있었다.

특히 군대에 대해서는 별반 아는 바가 없었을 뿐더러 군인이라하면 영화를 통해서 알았던 육군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오빠들이 많은 덕분(?)에 얼핏 귀담아 들은 제급얘기를 아는 정도였고 심지어는 일등병과 이등병의 우선조차 파악 못할 정도였으니 나의 군대에 대한 지식은 제로상태라 해도 과장은 아니었다. 영화를 통해서 본 군인에 대한 인상도 그리 좋은 것은 못되어서 나에게는 친근감을 주는 대상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이렇게 군대에 대해서 문외한이던 내가 육

군 외에 공군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리 오랜 편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상상의 세계인 하늘을 맘껏 날 수 있다는 파일럿(Pilot)에 대한 동경이 그 시초였던 것 같다. 그리고 그 후에는 같은 Club 선배이자, 지금의 ○○인 사람을 통해서 공군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고나서부터 이제껏 내가 가지고 있던 군인의 이미지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무엇보다도 내마음에 드는 것은 신선한 감각의 군복이다. 너무 나의 주관에 관여하는 것인진 모르나 전공이 전공인지라 나의 경우 사람을 만나면 맨먼저 눈이 가는 것은 복장이다. 공군 특유의 색깔인 감색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차분하면서도 지적인 느낌을 주어서 좋다. 여기에도 감색을 좋아하는 나의 주관에 강하게 작용했음은 부인 못할 사실이지만.....

여름용 하복은 푸른 하늘을 상징하는 연한 스카이가 블루가 무척이나 산뜻하다. 여성들이 공군의 군복에 매력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곤 하는데 딱딱하지 않고 약간은 리버럴(Liberal)한 색상 때문인 것 같다.

또 하나 이것이 공군이 주는 매력이라고 꼽는다면 Gentle한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나 할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첫인상(First Impression)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변수가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여 내가 공군에 대해서 가질 수 있었던 첫인상은 팬스레(?) 기사도를 발휘할 듯한 분위기가 참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공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파일럿에 대한 매력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수천피트(Feet)의 상공을 무대로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것 이거야말로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런 까닭에 빨간 머플러의 파일럿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의 영원한 동경의 대상이리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지식들을 접하게 되어 과거에는 잘 알지 못했던 군사지식도 국민들에게 특히 적지 않은 숫자의 여성들에게도 흥미거리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덕택에 공군이 적은 인원이지만 군사상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정도는 일반적인 사실로 되었다.

광대한 미지의 세계 하늘을 무대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군·우리 나라의 안보를 위해 일익을 담당하느라 모두가 힘쓰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나 조금 더 욕심을 내어본다면 공군과 일반인과의 일상적인 관계에서 현재보다는 좀더 나은 공군이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바람을 적어보려고 한다.

첫째로 과거와는 달리 매스컴이 매체가 되어 軍과 民 사이에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 아직은 약간의 장벽이 있는 것 같다. 완전한 장벽의 해소를 바라기는 불가능하지만 지금보다는 좀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으

면 하는 바람이다.

둘째로는 공군이란 집단 내에도 여러 가지 세분화된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군대라는 성격을 띠게 되므로 무관이란 인상을 강하게 준다. 일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공군으로서의 직책 이외에 문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융통성 있는 공군이기를 바라고 싶다. 지(智)·용(勇)·덕(德)을 겸비한 진정한 벼를 아는 공군을 기대해 본다. 이것은 반드시 공군에게만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군인 전체에 대한 바람이다.

우리 주변에는 군인과 일반인의 별개라는 생각이 상상외로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는 경우를 본다. 이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양자 서로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반인들은 고정관념은 버려야 할 것이며 이에 앞서 군인 스스로 이러한 선입견을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야말로 군·관·민 일체를 실행하는 조그마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항들이 이 글을 쓰는 나 자신의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리기 보다는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져서 모든 군인의 모범으로써 노력하고 발전해가는 공군이기를 당부해 본다.



하늘을 바라보며

김
남
희

△
송의여고 · 교사
▽



‘空軍’ 하면 누구나 먼저 하늘을 생각하듯이 나 역시 하늘을 생각하게 된다. 하늘을 생각하노라면 떠오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썩쩍 쥐베리와 ‘어린 왕자’ 흰 구름의 방랑시인 헤르만 헤세, ‘별 헤는 밤’을 노래한 우리의 영원한 청년시인 윤 동주님……

하늘은 우리의 영원한 꿈이자 이상이요 동경, 아니 돌아가야 할 본향이기도 하다. 언젠가 교실에서 우리 학교 여고생들에게 손바닥보다 약간 큰 종이를 나눠 주고 볼펜 하나만으로 하늘을 그려보라고 한 적이 있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당황하는 눈빛이었으나 잠시 생각하더니 각기 제 나름대로 하늘을 그렸다. 그림의 내용은 저마다 달랐다. 별이 총총한 하늘, 태양이 빛나고 있는 하늘, 흰 구름이 두둥실 흘러가는 하늘…… 태양과 달, 별의 모양도 제각기 달랐다. 학생들은 서로의 그림을 비교해 보고는 그 차이점에 새삼 놀라워하고 흥미있어 했다. 얼마전에 참석했던 어느 강습회에서는 교육계의 원로되시는 분으로

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요즘 국민학생들에게 하늘을 그려보게 하였더니 온통 인공위성으로 가득 찬 하늘을 그려 놓으며 하는 말이 하늘에도 교통순경이 있어야겠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또 어떤 아이는 도화지를 새까맣게 칠해 놓아 그 이유를 물으니 매연으로 더러워진 하늘을 그렸노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이다. 하늘 하면, 지극히 전원적인 풍경 위에 펼쳐진 파아란 하늘과 평화로이 떠가는 흰 구름 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기성세대 일반에게는 도저히 상상 밖의 일이기도 하다. 이렇듯 하늘은 또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내가 존경하는 어느 분께서는 땅에 살되 땅을 하늘처럼 여기고 살며, 하늘을 또한 땅처럼 여기며 살자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 언뜻 듣기에 아리송하지만 가만히 그 뜻을 음미해 보면 알 것도 같아진다.

그것은 어쩌면 이 땅과 이 민족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그래서 죽는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일세에 이는 바람에도 피로와했던’ 우리 윤 동주님의 깊은 속마음과도 통하는 마음 같다. 우리 민족은 태고적부터 유달리 하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부끄럼 없이 살고자 한 민족이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수긍할 것이다. 그러한 민족 정신이 세대에서 세대로 끊임없이 전해내려와 윤 동주 시인으로 하여금 ‘序詩’를 읊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들도 그 시에 그토록 깊이 공감하는 건지도 모른다.

하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이렇듯 어제 오늘이 아닌, 핏줄에서 핏줄로 면면이 이어져

대려온 근원적인 것이어서인지 나에게 우리 민족에 대한 원초적인 믿음과 긍지가 있다. 그것은 애국가의 끝키절인 ‘... 하느님이 보우 하사 우리 나라 만세!’를 부르거나 들을 때 갑자기 이유도 없이 콧날이 시큰하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이 엄습하는 것과도 상통하는 거의 본능적인 믿음이고 긍지인 것이다.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애정같은 것이랄까.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면 나는 3년전 비행기 창틈으로 내다보던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기억해 보곤 한다. 그때 나는 해외 연수차 프랑스를 향해 우리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다. 김포공항에서 밤 9시 반에 이륙한 터이라 창밖은 깜깜 절벽이어서 나는 잠을 청했다. 얼마를 잤는지 창문을 가린 덮개를 들추고 창밖을 내다 본 나는 탄성을 지르고 말았다.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는 칙칙같은 어둠 속을 날고 있었는데 어느새 창밖은 온 천지가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마치 천국 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비행기는 분명 지구를 반 바퀴 돌아 프랑스를 향하여 날고 있는 중이었다. 얼마 후 발 아래 구름바다가 보이기 시작했고 이윽고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토록 눈이 부시게 푸르던 하늘 빛도 점차 회색으로 변해갔다. 마침내 비행기가 파리의 공항에 도착하여 공항 밖으로 나와 보니 파리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색빛으로 잔뜩 흐려져 있는 파리의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나는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 회색 빛 구름 너머에서 여전히 찬연하게

빛나고 있을 그 푸르른 하늘을—. 그래서인지 나는 자주 자주 하늘을 쳐다 보곤 한다. 그러면 아무리 흐리고 바람 부는 날일지라도, 아무리 매연이 심한 때일지라도 내 마음엔 항상 눈이 부시게 푸른 하늘이 보이곤 한다. 그리곤 어디선가 ‘어린 왕자’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 하곤 한다. “중요한 것은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해” 하고,

그렇다! 잘 보려면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또 얼마나 자주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당하며 미혹의 길을 걷는지! 그리하여 스스로를 땅에서만 허우적대는 벌레같은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다. 인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마음으로 불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마음으로 불 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주 하늘을 올려다 볼 것이다. 비록 반 동강난 좁은 땅에 살지라도 늘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 푸른 하늘로 가득히 채울 때, 우리의 마음도 하늘을 닮아 넓고 푸르려져서 개인적 아집과 한계를 뛰어넘게 되리라. 그리하여 하늘과 땅이 지평선으로 만나듯 우리도 언제 어느 곳에 있던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로 만나게 되리라.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는 다시 윤 동주님의 노래를 나직이 불러 본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 가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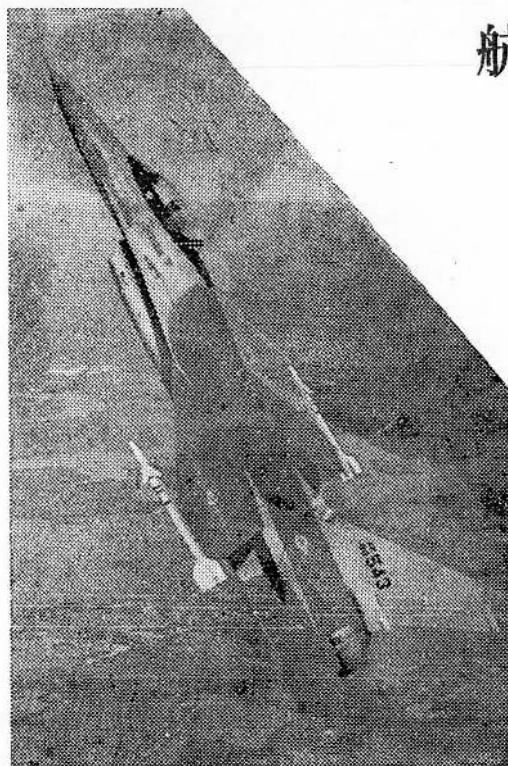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끝으로 공군장병여러분의 건투를 빈다.

航空機素材研究

대위 최 청 호

<空軍士官學校 教授部>



<위용을 자랑하는 F-16A 전투기>

1. 머리 말

항공기 素材를 크게 분류하면 특수강, 비철 금속, 복합재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의 발전이 결국 항공기의 성능을 지켜 온 원동력이라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항공기는 성능과 안정성을 모두 가져야 하므로 耐蝕性, 耐熱性, 強性, 加工性 등이 우수한 재료가 요구된다.

근본적으로 Al合金과 같은 비철금속 재료는 耐蝕性이 좋으며 比強性이 높아 항공기 날개와 동체의 외피에 적합하며 Ni合金은 高溫強

도가 높아 제트엔진의 터빈익에 적합하다. 재료가 가지는 強性 뿐만 아니라 比強性이 문제인데, 比強性이 큰 재료는 단위 중량당 강도가 큰 재료를 말하며, 구조물의 무게를 감소시킴으로 항공기의 성능을 증가시킨다. 加工性에는 기계적 加工은 물론 冷間加工, 용접성, 주조성, 硬化能을 들 수 있다. 항공기 재료의 특성은 탄소강을 열처리하여 필요한 강도나 인성을 얻는 방법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耐熱鋼이나 耐蝕鋼과 같은 특수강들은 탄소강에서처럼 열처리가 단순하지 않으며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고 있다. 더우기 비철금속의 경우에는 時効硬化에 의한 방법으로 材料에 強性を 부여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더욱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항공기 素材로써 사용되는 比強性이 큰 재료는 복합재료이다. 이 材料는 이미 산업분야의 오락기구와 생활필수품의 제조에 이용되고 있으나 항공기 素材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밀제조에 의한 고도의 접합기술이 요구되므로 일부 선진국에서만 생산하여 항공기에 사용하고 있다.

항공기에 사용되는 특수강, 비철금속 등의 급진적 발전은 194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복합재료의 발전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까지 항공기에 사용되어 온 재료를 분석하고 재료의 특성과 실제 이용에 따르는 加工性を 중심으로 다루었다.

2. 항공기 素材의 분석

가. 構造用 재료

항공기 구조용 재료로 Al합금이 사용된 것은 1887年 Schwarz의 비행선이었다. 그후 1903年 Wright 형제의 동력기의 엔진 실린더 볼록에 8%의 Cu를 함유한 Al합금을 사용하였고, 1907年 Al-프로펠러의 사용 이래 Al-Skin, Seat Cowling, Cast bracket 등으로 용도가 확대되었다. Al판재는 1919年 Junker의 F-13機에 동체와 Wing Skin으로 사용되어 구조물의 이용이 가능하였다. 1921년 당시의 McCook-Field의 Engineering division에서 Al구조물인 CO-1 정찰기가 설계되었다. 1차 대전中 高强度 Al-합금인 Duralumin(Al-Cu-Mg系)이 미국에서 개발되었으며, 그후 2017-T4, 2024-T3의 재료로 개량하여 McDonnell Douglass의 DC-3機에 사용되었다.

鍛造材로서는 2014-T6가 2차대전까지 주로 사용되었으며, 1943년에 Al-Zn-Mg-Cu系인 7075-T6가 개발되어 미해군 P2V 정찰기에 사용되었고, 최근까지도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1950年代 초기 7178-T6 재료가 Alcoa社에서 개발되어 F-4, B-52, C-130과 Boeing 727機 등에 사용되었으나, 파괴인성(Fracture toughness)이 7075-T6 보다 낮으므로 제한하여 사용하고 있다.

박판용 재료는 7178이 사용되었으며, 단조

재료로서는 2024-T6가 사용된 이후 1954年 7079-T6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鑄造用 Al합금재료는 355, 356, 354, A356, A357, 359, TENS50 등이 있으며 초음속 항공기에서는 공기의 압축성 효과로 인하여 機體의 표면온도가 250°F 정도까지 가열되므로 인공時効된 2××× 계열이 Skin재료로 가장 많이 쓰인다.

압출형 재료는 2014-T6, 2024-T6, T81 등이 많이 사용되며 熱을 받는 부분의 단조품재료는 2618-T81 등이 사용되고 있다.

Honeycomd 재료로서 5052 박판과 구조물로는 7075-T6가 사용된다. 1960년대부터 각종 새로운 Al합금의 개발을 Mil-Standard 1530에 규정하였으며, 요구되는 재료의 특성으로는 횡방향 耐應力부식균열성의 개선, 인성의 개선, 靜的 인장강도, 耐피로성 및 용접성과 高溫强度의 향상 등이다. 이러한 재료로는 7××× 계열의 7175, 7049, 7475, 7050과 2××× 계열의 2219, 2021, 2048 등이 개발되었다. 이 중에서 耐應力부식균열성, 파괴인성, 정적인장강도, 耐피로성의 개량으로 大型 板材로서 7175, 7049, 7050, 2124, 2048 등이 사용되며, 용접성, 高溫特性을 목적으로 2219, 2021 등이 우주기기에 사용된다.

機體에 Ti합금이 사용된 것은 1953년에 처음 비행한 DC-7機의 엔진 Nacelle 및 방화벽 부분이였다. 이후 날개 및 동체구조물, 외피 등으로 점차 용도가 확대되었다. Ti합금은 比強性이 크므로 항공기를 경량화할 수 있으며 고온강도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Ti합금은 1000°C 이상에서의 고온강도가 큰 Ni系 및 내열강 보다는 낮은, 600°C의 온도까지 고온강도가 큰 재료로서 Ti-6Al-4Y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Ti-6Al-6V-2Sn, Ti-4Al-2Sn-

4Mo-0.5 Si, Ti-2.5Cu 등의 합금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 엔진재료

航空機의 고성능, 고속화의 요구에 따라 보다 높은 엔진의 추력을 요구하게 되었고 엔진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은 高温에서의 사용조건에 대한 안정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재료에 요구되는 특성으로는 고온에서의 파괴강도, 피로강도, 耐산화성, 耐蝕性, 耐熱性 등이 있다. 2차대전 초기에 Jet-Engine 재료는 저합금강(Lower-Alloy-Steel), Stainless 17-22A와 같은 Martensite系의 재료가 많이 쓰였으나 최근에는 엔진의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材料로 개발된 것이 M200, 713C와 같은 Ni기 초합금이다.

다. 高强度 재료

항공기의 Landing Gear 부분에는 착륙할 때 충격에 견딜 수 있는 高强度, 高인성 재료가 요구된다. 1960年 INCO社에서는 Maraging Steel을 개발하였으며, 진공용해방식으로 AISI

4340, 9Ni-4Co, 300M Steel, D6AC 등을 제조하였다. C-5A機의 Landing Gear 재료는 진공용해하여 제조된 300M 소재로서 강도는 약 280~300Ksi 정도이다. 耐熱, 耐蝕을 요하는 부품에는 高强度鋼 이외에 Stainless 재료가 많이 쓰이고, 이 계열의 재질은 주로 301, 305, 321, 347 등과 석출경화형의 AM350, 430, 17-7PH, 17-4PH 등이 있다.

1970년대 比强性이 가장 큰 재료로 사용되어 항공기 경량화를 이룩함과 동시에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재료가 복합재료이다. 복합재료는 재료의 결정격자 단위의 섬유로 만들어 모재(Matrix)에 접합시킨 比强性이 큰 재료로서, Landing Gear door, Flap, wing tip 등에 사용된다. 섬유방향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응력집중에 적합한 강도를 맞도록 설계할 수 있는 재료이지만 접합과 가공기술이 매우 복잡하므로 최근까지 몇몇 선진국에 의해서만 제작되고 있으며 많은 관심 속에 개발되고 있는 재료이다. 이상에서의 항공기 재료에 관한 사항들은 표에서 열거하고 있다.

<표 1>

Aileron 구조품의 合金

부 품	소 재
1. Rib Outboard	Al 2024-T42 Sheet Alclad
2. Rib, Wg Sta 116.5	Al 7075-T651 Sheet Alclad
3. Former, Wg Sta 116.5	Al 2024-T4 Sheet Alclad
4. Rid, Wg Sta 110.8	Al 7075-T651 Sheet Alclad
5. Former, Wg Sta 110.8	Al 2024-T4 Sheet Alclad
6. Hinge, Outboard	Al 2014-T6511 Extrusion
7. Rib, Wg Sta 106.9 Intermediate	Al 7075-T651 Sheet Alclad
8. Former, Wg Sta 106.9	Al 2024-T4 Sheet Alclad
9. Rib, Wg Sta 106.9 Intermediate	Al 7075-T651 Sheet Alclad
10. Former, Wg Sta 96.86	Al 2024-T4 Sheet Alclad

부 품	소 재
11. Rib Wg Sta 96.86⊙ Intermediate	Al 7075-T651 Sheet Alclad
12. Spar, Front	Al 7075-T73 Forging (Die)
13. Former, Wg Sta 91.62	Al 2024-T4 Sheet Alclad
14. Rib, Wg Sta 91.62	Al 7075-T6 Forging (Die)
15. Hinge, Inboard	17-4H(HP) Cres Steel Casting
16. Rib, Wg Sta 84.77	Al 7075-T6 Die Forging
17. Spar	Al 7075-T6511 Extrusion
18. Doubler	Al 2024-T351 Sheet Alclad
19. Honeycomb Core	0.0007p Foll. 0.125 Cell
20. Rib	Al 2024-T42 Sheet Alclad
21. Skin, Upper	Al 7075-T651 Sheet Alclad
22. Skin Upper	Al 2024-T351 Sheet Alclad
23. Panel, Aileron Trailing Section	Honeycomb Assy
24. Skin, Lower	Al 2024-T351 Sheet Alclad
25. Skin, Lower	Al 7075-T651 Sheet Alclad

< 표 2 >

Flap 구조품의 합금

부 품	소 재
1. Rib, Wg Sta 84.5	Al 7075-T651 Sheet Alclad
2. Rib, Wg Sta 79.71	Al 7075-T651 Sheet Alclad
3. Outboard Hinge	—
4. Rib, Wg Sta 74.75	Al 7075-T73 Precision No Draft forging
5. Hinge Fitting	Al 7075-T73 Hand Forging
6. Rib, Wg Sta 68.85	Al 7075-T651 Sheet Alclad
7. Rib, Wg Sta 63.05	Al 7075-T651 Sheet Alclad
8. Rib, Wg Sta 57.62	Al 7075-T651 Sheet Alclad
9. Spar	Al 7075-T6 Sheet Alclad
10. Rib, Wg Sta 52.08	Al 7075-T651 Sheet Alclad
11. Rib, Wg Sta 45.78	Al 7075-T651 Sheet Alclad
12. Rib, Wg Sta 41.17	Al 7075-T651 Sheet Alclad
13. Rib, Wg Sta 36.57	Al 7075-T651 Sheet Alclad
14. spar, Front, Trailing Edge	—
15. Flap, Inboard Hinge	Al 7075-T73 Hand Forging
16. Rod, Actuator	PH 13-8 Mo CRES Steel Bar
17. Rib, Wg Sta 36.57	Al 7075-T651 Sheet Alclad
18. Rib, Wg Sta 36.57	Al 7075-T651 Sheet Alclad
19. Spar	Al 7075-T6511 Extrusion

부 품	소 재
20. Rib, Trailing Edge	Al 2024-T4 Sheet Alclad
21. Doubler	Al 7075-T651 Sheet
22. Filler	Al 2024-T3511 Extrusion
23. Honeycomb Core	0.0007 N Foil, 0.125 Cell
24. Rib, Wg sta 41.17	Al 7075-T651 Sheet Alclad
25. Rib, Wg Sta 41.17	Al 7075-T651 Sheet Alclad
26. Rib, Wg Sta 45.78	Al 7075-T651 Sheet Alclad
27. Rib, Wg Sta 52.08	Al 7075-T651 Sheet Alclad
28. Rib, Wg Sta 57.62	Al 7075-T651 Sheet Alclad
29. Rib, Wg sta 63.05	Al 7075-T651 Sheet Alclad
30. Rib, Wg Sta 68.85	Al 7075-T651 Sheet Alclad
31. Rib, Wg Sta 74.75	Al 7075-T651 Sheet Alclad
32. Rib, Wg Sta 79.71	Al 7075-T651 Sheet Alclad
33. Rib, Wg Sta 84.5	Al 7075-T651 Sheet Alclad

< 표 3 >

Rudder 구조품의 합금

부 품	소 재
1. Leading Edge Skin	Al 7075-T651 Sheet Alclad
2. Tip Rib	Al 7075-T651 Sheet Alclad
3. Panel	Al 7075-T6 Sheet Alclad
4. Door	Al 7075-T6 Sheet Alclad
5. Bearing	—
6. Honeycomb Core	0.001N Foil, 0.250 Cell
7. Skin	Al 7075-T651 Sheet Alclad
8. Lower Closing Rib	Al 2024-T73 Forging
9. Crank, Rudder Actuating	Al 7075-T73 Forging
10. Spar	—
11. Leading Edge Skin	Al 7075-T651 Sheet Alclad

< 표 4 >

Landing Gear Door 구조품의 합금

부 품	소 재
1. Main Landing Gear Door Frame	Al 7075-T7351 Plate
2. Support, Sequence Switch Link	Al 7075-T7351 Bar
3. Skin Inner	Al 7075-T6 Sheet
4. Honeycomb Core Left Side, Right Side	6.1-1-15 N Cell

부 품	소 재
5. Skin, Outer	Al 7075-T6 Sheet
6. Bracket	Al 7075-T7351 Plate
7. Door, Articulated Main Landing Gear	—
8. Bracket	Al 7075 Bar
9. Support Spring Restraint pin	Al 7075-T351 Bar
10. Support Spring Restraint pin	Al 7075-T351 Bar
11. Bracket	—

<표 5>

Horizontal Stabilizer 구조품의 습금

부 품	소 재
1. Honeycomb Core	NAI-1171, Class I, Type 6.1
2. Rib	Al 7075-T6 Bar
3. Main Spar	Al 7075-T6 Rolled Bar
4. Fitting, Hinge	4330M Vacuum Melt Die Forging
5. Rib	Al 2024-T6 Sheet Alclad
6. Rib	Al 2014-T6 Die Forging
7. Leading Edge	Al 7075-T6 Plate
8. Upper Skin	Al 7075-T6 Sheet Alclad
9. Lower Skin	Al 7075-T6 Sheet Alclad

<표 6>

군용 항공기 엔진 재료

Component	Alloy	Raw Material form	Fabrication/Assembly
Low Compressor Case	Al110-Ti Alloy/AISI410	Forged/Bar/Sheet	Machined/Welded+ Machined
Disc	Ti-8Al-1Mo-1V/Ti-6Al-2Sn-4Zr-2Mo	Forged	Machined
Blades	Ti-8Al-1Mo-1V/Ti-6Al-4V	Forged	Machined
Vanes	Ti-6Al-4V/AISI410	Forged/Strip	Machined/Roll formed

Component	Alloy	Raw Material Form	Fabrication/Assembly
High Compressor Cases	Inconel X-750	Forged/Bar/Sheet	Machined/Welded+ Machined
Disc	Incoloy910/Waspaloy(R)/ IN100	Forged	Machined
Blades	Incoloy910/Ti-6Al-4V-2Mo Ti-8Al-1Mo-1V	Forged	Machined
Diffuser cases	Inconel 718	Forged/Cast	Machined/Welded+ Machined
Burner cases	Inconel 718	Sheet	Rolled/Welded
Liners	Hastelloy X/TD Nickel/ Haynes188	Sheet	Formed/Welded/ Diffusion Bonding
Dome	TD Nickel	Sheet	Formed/Welded
Nozzles	Hayes stellite 31	Cast	Machined
Turbine Cases	Waspaloy/Inconel 718	Forged	Machined
Disc	Waspaloy/Astroloy/In100	Forged	Machined
Blades	B-1900/MAR-M200+Hf/ Alloy 413/IN-100	Cast	Ground Fir Tree
Vanes	W152/MAR-M200+HF/ B-1900/IN-100		Machined
Turbine Exhaust Case	Inconel 718/Ti-6Al-4V	Sheet	Welded
Accessory shaft	AISI8740	Forged	Machined
Gear	AISI9310	Forged	Machined
Housing	Magnesium	Cast	Machined
Main Shaft Low	17-22A	Forged	Machined
High	Incoloy901	Forged	Machined

<표 7>

Jet Engine 부품의 주요 소재

구 분	합 금 명 칭	제 품	1 차 가 공
Mg-Alloy	AZ-92	Front Casing	주 물
	HZ-32	Compressor Casing	"
Al-Alloy	A 356	Housing	"
	C 355	Front Frame	"
	14S	Compressor Disc	단 조
	RR58	Compressor Blade	"
Ti-Alloy	KS-150B	Compressor Disc	"
	Ti-6Al-4V	Compressor Disc Blade	"
	Ti-8Al-1MO-IV	"	"
	Ti-IM 1679	"	"
	Ti-IM 1685	"	"
Low-Alloy Steel	AIS 19310	Gear	"
	H-22-A	Compressor Disc	"
	Chromology	Compressor Frame	판 금
	Fortiweld	"	"
	AIS 114140	Compressor Disc	"
Stainless-Steel	AIS 1403	Compressor Blade	단 조
	Greek Ascology	"	"
	H-46	Turbine Disc	"
	Lapellogy-c	"	"
	17-7PH	Inlet guid Vane	Sheet
	AN-355	Compressor Blade	단 조
Ni-Cr, Fe-Base 내열합금	A-286	Turbine Disc	단조, 주조, 판금
	V-57	"	단조
	Incoloy 7	Combustion Liner	판금
	Inco 901	Turbine Disc	단조
	N-155	Liner	판금
	Timken	Turbine Wheel	단조

구 분	합 금 명 칭	제 품	1 차 가 공
Ni, Cr Base 내열합금	Inconel X	연 소 실	판 금
	Inconel X	Exhaust Casing	"
	Inconel W	Turbine Casing	판금, 단조, 주조
	TAZ-8	Turbine Blade	주 조
	Inco 713	Turbine Nozzle	"
	Hastelloy X	연 소 실	판 금
	Inco 718	Compressor Blade Turbine Disc	"
Ni, Co, Cr Base 내열합금	M 252	Turbine Blade	단 조
	RENE 41	Turbine Nozzle Disc	판금, 단조
	V-500, V-700, SEL-1, SEL-15 SENE80, Waspalloy, In 100,	Turbine Blade	주조, 단조
Co, Base 내열합금	L-605, S-816, X-40, X-45 WI-52, War-M302, HS-188	Turbine Nozzle	주 조

< 표 8 >

Fan-Jet Engine의 Ti 합금 Parts

Part	Material	Alternate Ti Alloy	Alternate Materials -
Inlet Case	Ti-5Al-2.5Sn	Ti(a), Ti-8Al-IMO-IV	12 Cr Stainless Steel
Fan Blades	Ti-6Al-4V	Ti-8Al-IMO-IV Ti-6Al-6V-2Sn	Composite(b)
Fan Disc	Ti-6Al-4V	Ti-8Al-IMO-IV Ti-6Al-6V-2Sn, Ti679	Low-Alloy Steel, 12 Cr Steel
Fan Exit Struts	Ti-6Al-4V	Ti(b), Ti-5Al-2.5Sn	12 Cr Steel
Fan Duct	Ti-5Al-2.5Sn	Ti-8Al-IMO-IV	Al-Alloy
Low Compressor Blades	Ti-6Al-4V	Ti-8Al-IMO-IV Ti-6Al-6V-2Sn	12 Cr Steel Greek Ascology
Low Compressor Disc	Ti-6Al-4V	Ti-8Al-IMO-IV Ti-6Al-6V-2Sn Ti-6Al-2Sn-4Zr-6Mo	Low alloy Steel 12 Cr Steel
Low Compressor Case	12 Cr Steel	Ti-6Al-4V, Ti-4Al-2.5Sn Ti-6Al-IMO-IV	12 Cr Steel
Intermediate	Ti-5Al-2.5Sn	Ti-8Al-IMO-IV	12 Cr Steel
High Compressor	Ti-6Al-2Mo -4Zr-2Sn	Ti-8Al-IMO-IV Ti-6Al-4V, Ti 679	12 Cr Steel Incoloy 901,

(a) : 상업용 순수 Ti, A-55, A-70 Grade

(b) : Graphite fiber-Reinforced epoxy
Boron/Al fiber-Reinforced epoxy ect.

< 표 9 >

항공기 Engine 소재 GE Com,

Engine Component	Material	Form
Fan		
1/4 Stg. IGV	Ti-6Al-4V	F
1/4 Stg. OGV	Rene' 41	C
OGV	Al-7075-T73	F
Blade Stg. 1-2	Ti-6Al-4V	F
Disk Stg. 1	Ti-6Al-4V	F
1/4 Stg. Cone	Ti-6Al-4V	F
Casing	Al-6061-T6	F
Frame	17-4PH	F. S. C
Brg. Support, 1	Ti-5Al-2.5Sn, Al-7075-T6	F
Brg. Support 2.3	410	F
Spinner	Al-6061. T6	F
FWd, Shaft	Marage 200	F
Mid Ring	Ti-6Al-4V, Al-6061-T6	F
Compressor		
IGV	Ti-6Al-4V	F
Vane Stg. 1-2,	Ti-6Al-4V	F
Vane Stg. 3,7	A 286	F
Vane Stg. 8	A 286, 347	SC
Vane Stg. 9-15	A 286	F
OGV	A 286	F
Blade Stg. 1-12	Ti-6Al-4V	F
Blade Stg. 13-14	Ti-6Al-2Sn-4Zr-2Mo	F
Blade Stg. 15-16	A 286	F
Disk Stg. 1-2, 10	Ti-6Al-4V	F
Spool Stg. 3-9	Ti-6Al-4V	F
Spool Stg. 11-13-14-16	Inconel 718	F
Front Casting	Ti-6Al-4V	F
Aft Casing	Inconel 718	F
Rear Frame	Inconel 178	S. F. C
Rear Stub Shaft	Inconel 718	F
Oil Tube	A 286	F. S
SVA Levers IGV-Stg.3	A 286	S
SVA Levers Stg 4-6	A 286	S
SVA Rings	Al-6061	F
SVA Bushing IGV. Stg 1-2	Teflon	Glass Reinforced
SVA Bushing. Stg 3-6	Vespel	Molded
SVA Spacers IGV, Stg-12	Al-6061	B
SVA Spacers Stg. 3-6	Ti-6Al-4V	B

Engine Component	Material	Form
Combustor		
Liner	Hastelloy X	X
Fuel Nozzle	347, Hastelloy X, 440C, L605	F. B
Fuel Manifold	Inconel 625, 321	
Turbine(HP)		
Vane Stg. 1	X-40	C
Vane Stg. 2	Rene' 80	C
Blade Stg. 1-2	Rene' 80	C
Disc Stg. 1-2	Inconel 718	F
Mid Frame	Inconel 718	S. F. C
Struts	Rene' 41	C
Liner	Hastelloy X	X
FWD, Shaft	Inconel 718	F
Turbine(HP)		
Rear Shaft	Inconel 178	F
Spacer	Inconel 718	F
Thermal Shield	Rene' 41	F
Turbine(LP)		
Vane Stg. 1-5	Rene' 77	C
Blade Stg. 1-5	Rene' 77	C
Disc Stg. 1-5	Inconel 718	F
Casing	Inconel 718	B. S
Rear Frame	Inconel 718	S. F. C
Liner	321	S
Fwd. Shaft	Inconel 718	F
Rear Shaft	A 286	F
Bearings, Seals & Drives		
Rollers, Balls, Races Brg, 1B, 4R, 4B, 6	M50	B
Rollers, Balls, Races, 2R, 5, 7	M50	B
Rollers, Balls, Races, Brg 3	52100	F
Cage Brg 1	4340	F
Cage Brg 2, 7	Si. Fe-Bronze	F
Rotating Seals 1 (Air-Oil)	Ti-6Al-4V	F
Rotating Seals 4R, 4B, 5, 6, 7 (Air foil)	17-4PH	F
Rotating Seals 4R, 4B (Vent)	Inconel 718	F
Rotating Seals 7 (Aft air foil)	347	C
Stationary Seals 1 (Air-Oil) 3	Glass Reinforced Epoxy	M
Stationary Seals 5, 6&7 (Air foil)	17-4Ph	C
Stationary Seals Lpbps PHVS	Hastelloy x	C. F. S

Engine Component	Material	Form
Stationary Seals 4R, 4B(Vent&Air foil)	Inconel 718	S. C. F
Stationary Seals 4R, 4B(Vent)LPBP	Hastelloy B	S. C. I
C Sump Seal		
Sump Housing A. C. D	17-4PH	C. S
Sump Housing B	Inconel 718	C
Gear Box Casing	Al, A357, A356	C
Gears. Bevel, Spur	9310	F
Accessory Drive Shaft	4350	B
IGB Horiz, Drive Shaft	4140	T.

IGV : Inlet Guide Vane

LPBPS : Low Pressure Balance Piston Seal

OGV : Outlet Guide Vane

HPVS : High Pressure(turbine)Vane Seal

SVA : Stator Vane Assembly

IGB : Inlet Gear Box

GRP : Glass Reinforced Plastic

B-Bar, C-Casting, F-Forging, S-Sheet

T-Turbine, M-Molded

<표 10>

Landing Gear의 특수강 재료

Alloy	Application
300M	Main \$ Nose Landing Gear Major Structures Misc, Back up structure \$ High strength Pins Cargo Tie down Rings
4340	Main Landing Gear Drag Strut Spring-back Main Landing Gear Back up structure pylon Attach FTGS \$ Damage Tolerance Straps Flap & Flap actuator tracks Flap Carriage Flap Lugs Empennage Pins & Damage Tolerance Straps Engine mounts Fastener & High Temperature Applications
H-11	Engine Mounts Hinge pins & Fitting Visor & Door Hinges & Latching Mechanism Back up structure
4330 Mod	Landing gear pins Engine mount Hinge pins & Fittings

Alloy	Application
Ph-13-8Mo	Visor Latching & Locking Mechanisms Visor Latching Mechanisms Cargo Rails
Ph 17-4PH	Back up structure in Corrosive areas Empennage pivot Fittings
Inconel 718 Ph 15-7Mo	Engine mount Fittings in High temperature areas Visor Latching Mechanisms

<표 11>

항공기에 사용되는 복합재료

구 분	종 류				
불연속섬유	세 라 믹	알 베 탄 탄 질 후	루 릴 화 화 화	미 리 봉 규 규	나 아 소 소 소 연
	금 속	철 니			켈
연 속 섬 유	GLASS	E-glass S-glass			
	다 겹 정	알 지 질 카	루 르 화	미 봉	나 콘 소 본
	다 상	봉 탄 탄	화 화	봉 규	소 소 소
	금 속	텅 물 동 베	스 리	브 릴	텐 텐 롬

<표 12> Boron 섬유계 복합재료가 사용되는 각종 항공기

회 사 명	응 용 부 품	응 용 기 종
G. D 사	Landing Gear Door Horizontal stabilizer	F-111 "
Grumman 사	Horizontal stabilizer wing tip	F-14
Boeing 사	Helicopter Blade	CH-47A, B747
McDonnell Douglas 사	Horizontal stabilizer Landing Flap Flap Flap	F-15 A-4E F-4 A-4
Northrop 사	Landing Gear Door	F-5 F-100

<표 13> 실용화된 CFRP에 의한 항공기 부품

회 사 명	응 용 부 품	응 용 기 종
McDonnell Douglas 사	미익 Rudder Flap	F-15 A-4
Northrop 사	수평, 수직미익 Flap Speed brake Main Landing Gear Strut	F-5
Rotor Weigh Component 사(영)	Main blade	Helicopter
G. D, Gruman 사	동체 Frame	F-111
Mitsubishi 사 G. D. Convair 사 Bell 사 AVCO 사 Sikorsky 사		연구개발중

3. 맺 음 말

이상에서 航空機 素材와 응용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 보았다. 항공기의 높은 안정성과 성능을 고려할 때 高精밀설계에 의존해야만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소재의 제작이 대단히 복잡함을 실감하였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가. 항공기의 소재의 발달이 구조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AI합금으로 제한되던 것이 Ti 합금과 복합재료로 확대되었으며, 점차적으로 구조물의 중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比強性이 큰 재료를 사용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나. 엔진재료의 경우 왕복엔진에서 고성능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高熱에 견딜 수 있는 Ni 합금계열인 초합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트엔진의 熱을 적게 받는 압축기의 Fan 부분에는 경량화와 高強度를 목적으로 복합재료의 일부가 사용되고 있고, Turbine의 온도의 상승이 이룩될수록 항공기의 성능이 증가되므로 Turbine blade의 재료로는 耐熱性, 耐蝕性 등이 우수한 재료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다. 항공기의 素材는 경량이어야하며 따라서 比強性이 높은 재료이어야 한다. 또한 加工性이 높고 제작이 용이해야 한다. 加工性에는 열처리, 용접성, 주조성, 기계가공성, 냉간 및 열간가공성, 단조성 등을 들어 볼 수 있다. AI합금계열은 열처리 및 용접이 대단히 까다로우며 대기 중의 분위기에 접하면 용접과정 중에 용착부의 氣空(Porosity)이 발생되어 強度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므로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高耐熱性 재료인 Turbine blade의 제작은 VIM(Vacuum Induction Melting), VAR(Vacuum Arc Remelting) 등과 같은 진공용해에 의한 진공주조방법이 채택되고 있으므로 설비와 정밀제조기술의 바탕으로만 이룩될 수 있다.

라. Landing Gear와 같이 착륙시에 충격을 받는 부분품으로는 耐충격성과 인성이 우수한 석출형 불수강을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항공기의 부품생산이 증가됨에 따라 재료의 개발은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기계적 가공에만 의존하지 않고 원자재로부터 소재 개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힘으로 이룩될 머지않은 앞날을 기대해 본다.



水素航空機의 開發 展望

尹 龍 鉉 譯

I. 石油의 展望과 代替燃料의 候補

石油은 1925년경부터 本格的으로 채굴되기 시작하여 해마다 그 產出量은 증가해 왔지만 1990년부터 2000년경에 世界의 年間產出量이 頂點에 이른 후 점차 쇠퇴하게 될 것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1960년경에서 2030년인 약 70년 동안에 걸쳐 전 석유매장량의 약 80% 정도가 채굴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항공연료는 石油의 全產出量에 대해서 어느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장차 어떻게 變化하여 가게 될 것인가?

거시적으로 보면, 航空燃料의 需要量은 장차 飛行機臺數의 증가와 航空機의 燃料效率에 의해서 左右된다. 民間輸送機로서 처음으로 취항했던 제트여객기가 나왔을 때는 연료 1gal의 소비로 提供할 수 있는 座席數는 왕복동엔진의 航空機 보다 떨어졌지만, 第1世代의 Bypass Engine이 出現하면서 이 關係는 逆轉하였고 다음엔 높은 Bypass rate를 갖는 第2世代의 Fan engine이 보급됨에 따라 이 燃料效率은 점점 向上되게 되었다. 재래식이나 新型航空機나 모두 매년 연료효율이 점차 改善되어 가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의 燃料效率

의 向上은 어려울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연료효율수준을 전제로 全世界의 年間平均旅客機數의 신장률을 4.5%로 가정하여, 1980년에 航空用石油需要는 年間 約 300億 galon, 1995년에는 約 450億galon으로 推算되어, 自由진영 여러나라의 石油 總產出高에 대한 비율은 3.5%에서 3.9% 정도로 증가한다. 그렇다면 今世紀의 남은 20年과 21世紀의 초에 걸쳐서 석유의 전반적인 需給關係는 어떻게 될 것인가? 石油產出量의 한계점이라는 것에서 오는 에너지 需給의 냉엄함은 IEA 즉, 國際에너지機關의 豫測에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自由諸國에 있어서는 1985년에 석유를 換算한 총 에너지 需要가 1日當 1억2천만배럴인데 비해 석유는 1日當 6,000만배럴 밖에 供給 할 수 없고 나머지는 不足하기 시작한다. 또한 1990년경부터는 석유공급량은 1日 6,500만배럴로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대체에너지의 공급이 서서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석유공급 부족량은 1日 950만 배럴로 되고 2,000년에는 더욱 심각해져가 이 不足量은 2,800만배럴에 이르리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러한 需給의 不均衡狀態가 점점 나타남에 따라 石油의 價格이 급템포로 상승하여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동안에 技術의 發達로 石油의 價格競爭力의 逆轉에 의해 各種 代替에너지의 開發이 進行되고 이것들을 利用한 代替燃料가 實用化되어 天然石油의 王座는 흔들리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日常生活用, 産業用의 代替에너지가 적시에 出現하여 實用化되어 갈 경우, 21世紀 초에는 石油 枯渴에 의한 석유가격 등의 양등으로 인한 혼란은 억제될 수 있으며 人類의 石油에 對한 依存度는 減少하고 石油價格은 요즘 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以上과 같은 에너지 需給의 巨視的인 展望에 있어서 航空業界는 지금부터 航空燃料를 具體的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커다란 課題를 내걸고 있다. 즉 점차 供給이 줄어들어 價格이 上昇하는 石油에의 依存度를 脫피하지 못하고 競爭力이 강한 石油化學産業을 相對로 石油 확보에 광분하여 Cost를 運賃에 轉嫁할 경우 航空輸送이라는 事業의 運命은 不安定한 석유에 맡겨버리느냐 아니면 代替에너지를 開發하여 미래에 限없는 發展의 可能性을 確保하느냐의 큰 선택을 強要당하고 있다.

世界人口의 增加, 南北對立의 改善, 그것들을 지탱하는데 必要한 活潑한 經濟活動이라는 必然性을 認識하면 이 經濟活動을 可能하게 하는 航空輸送의 維持, 成長, 發展이 不可缺하다는 것은 말할 必要도 없는 것이므로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航空業界는 早晚間, 代替燃料의 開發 및 實用化로 向하지 않을 수 없는 宿命을 지니고 있다.

一般的인 用途의 代替에너지로서는 이미 石炭, 原子力, 天然가스, 水力 등이 使用되고 있고 그 供給量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편 石炭의 가스化, 液化도 1980年代 後半에는 工業化되어, 90年代에는 地熱發電, 太陽發電,

風力發電, 海洋溫度差發電도 實用化 될 것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石炭外에도 Oil이나 타르 등도 液化되어 人工石油가 合成되게 될 것이다.

代替에너지의 開發은 그 具體化까지의 時間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技術的 容易함과 開發費用의 많고 적음을 尺度로써 方法이 일축될 우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資源의 有限성과 편재성의 問題가 今後 점점 重要視됨에 따라 石炭이나 오일과 같은 化石資源依存의 에너지部分은 그 밖의 보다 환경오염이 없고 恒久的인 에너지에 의해서 침식되어가게 될 것이다.

한편, 무엇에서 에너지가 얻어지든 간에 이것을 어떠한 형태로 工場이나 家庭이나 交通機關 등에 利用되는가라는 것이 問題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使用目的에 얼마나 적합해야 하는가이다. 이 適合性評價의 判斷基準이 될 주된 要素는 에너지가 使用되는 器機, 裝置의 性能, 총비용, 入手難易性, 對環境性, 安全性 등이다.

交通機關 중에서 鐵道 등 一部機關은 電力形 에너지가 使用될 수 있고 또한 이것이 最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배나 自動車, 航空機와 같이 二次元 以上の 空間을 運動하는 것에 있어서는 미래에도 輸送性이 좋은 形의 에너지 媒體를 必要로 한다.

以上과 같은 制約에서 航空機用 代替燃料候補를 物색해가면, 원자력 엔진이나 電池 등은 安全性, 重量效果 등의 理由에서 脫落하고 現在,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서는 메칠알콜, 合成石油, 液體메탄, 液體水素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메칠알콜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고 제조방법도 확립되어 있지만 단위중량당의 발열량이 낮고 航空機用으로는 부적당하

다. 다음으로 비교적 現實性이 높은 것은 合成石油이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合成제트燃料로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제트A燃料에 相當하는 것이다.

이 燃料은 原材料를 採掘 후 加工時에 環境 오염을 초래하고 地球上의 탄산가스 농도를 길게 한다는 結論과 原材料가 매장되어 있는 地域이 限定되어 있고 長期的으로 보면 天然石油와 같이 入手難과 價格의 昂貴현상이 나타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다음에 有望한 것으로 液體메탄이 있는데 메탄은 石炭을 部分的으로 산화하는 것에 의해서 製造되는데 이것 또한 연소시에 탄산가스를 發生시키기 때문에 環境오염에 問題가 있다. 그리고 메탄도 수소와 같이 常溫에서는 氣體이고 큰 容積을 점유하기 때문에 航空機에는 液化로 취급하기 위해 相當한 設備費用이 든다. 그러면 최후의 후보로 가장 革新的인 特色을 지닌다는 液體水素라는 物質은 平소 風船에 부력을 주는 것으로서 알려져 있음에 불과하지만 宇宙開發計劃의 展開와 함께 宇宙船로켓 엔진의 主要한 燃料中的의 하나로 實用化 되어 이것을 위한 技術開發이 進行되고 있다.

이 燃料의 製造方法中 航空機用으로서 생각되고 있는 代表的인 方式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즉 石炭을 部分的으로 酸化하여 水素가스를 抽出하고, 空港까지 보내 液化한다. 이것의 液化에는 보내져 온 水素의 一部를 액화장치의 燃料로서 使用하는 方法과 原子力發展所 등에서 供給되는 電力에 의해 水素를 액화하는 方式으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세번째 方法은 물을 電力에 의해 直接分解하여 抽出된 水素가스를 液化하는 方式이다. 現在の 技術水準으로 이 세 가지 方式을

利用, 製造되는 液體水素의 價格을 10^6 BTU 당으로 나타내면 石炭을 部分산화하여 액체수소를 얻는 方法일 경우 약 15달러이고 물을 電氣分解하여 液體水素를 얻는 경우 약 21달러의 費用이 든다고 한다. 이 價格을 살펴보면 同一發熱量에 대해서 液體水素는 아직 高價이다. 이러한 가장 큰 理由中的의 하나가 液體水素의 製造에는 막대한 設備投資가 必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價格은 原材料의 價格變動이나 技術發展 등에 의해 差가 축소될 수도 있고 오히려 逆轉될 可能性이 높다.

또한 航空機에 있어서 특히 重要한 것은 正해진 任務를 達成하기 위하여 어떤 燃料가 얼마만큼 必要하며 얼마의 費用이 드는가. 즉 提供座席 km당 必要한 燃料은 얼마만큼인가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單位重量當 發熱量이 높은 液體水素는 다른 대체 에너지인 合成石油나 液體메탄 보다 費用이 적게 든다.

그러므로 水素는 經濟性을 고려할 때 그 長點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炭水化合物을 原料로 하지 않더라도 製造할 수 있는 唯一한 現實的인 代替燃料이고 原材料의 地域的 편재라든가 供給이 고갈할 염려가 없는 궁극적인 代替燃料의 充分한 資格을 지니고 있다. 또한 環境問題에서도 水素는 가장 깨끗한 燃料라고 말할 수 있다.

水素의 原材料에 化石燃料를 사용할 경우 原材料의 채굴에서 제조과정까지 環境오염은 다른 대체연료와 큰 차이는 없지만 航空機에 다 사용되었을 때에 나오는 배기가스는 거의 수증기이고 질소산화물도 적을 뿐 아니라 탄산가스는 전혀 發生하지 않는다.

地球上의 탄산가스 농도는 産業革命 以後 계속 증가하여 無지않은 將來에 世界的 氣象 패턴을 극도로 惡化시킬 것으로 豫想되고 有

기 때문에 미래의 代替燃料로서 이러한 特性은 크게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水素를 燃料로서 사용하는 航空機는 다른 燃料를 쓸 경우 보다 同一任務에 대해서 總重量이 더 가벼울 뿐 아니라 엔진도 소형이고 간결하기 때문에 초음속항공기일 경우 Sonic boom도 적어 비행소음을 줄일 수 있는 長點도 있다.

II. 水素航空機의 特性

航空機製作會社 중에서 水素航空機를 포함한 代替燃料使用 航空機의 開發에 가장 熱心인 會社는 美國의 록히드航空社로 지금까지

各種 代替燃料를 使用한 航空機의 概念設計를 實施했었고 이들의 特性을 比較檢討하여 왔다. 이 結果를 亞音速 航空機와 超音速 航空機에 대하여 各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亞音速機로서는 400人的 승객(유상하중 40톤)을 태우고 마하 0.85의 巡航速度로 10,190 km(5,500海里)까지 날으는 四發航空機를 概念設計하여 1990년대에는 實用化가 可能하다고 생각되는 新技術, 즉 새로운 翼型, Variable camber airfoil, 複合材料나 새로운 엔진技術을 적용한 航空機를 구상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리고 이 結果를 圖表 1에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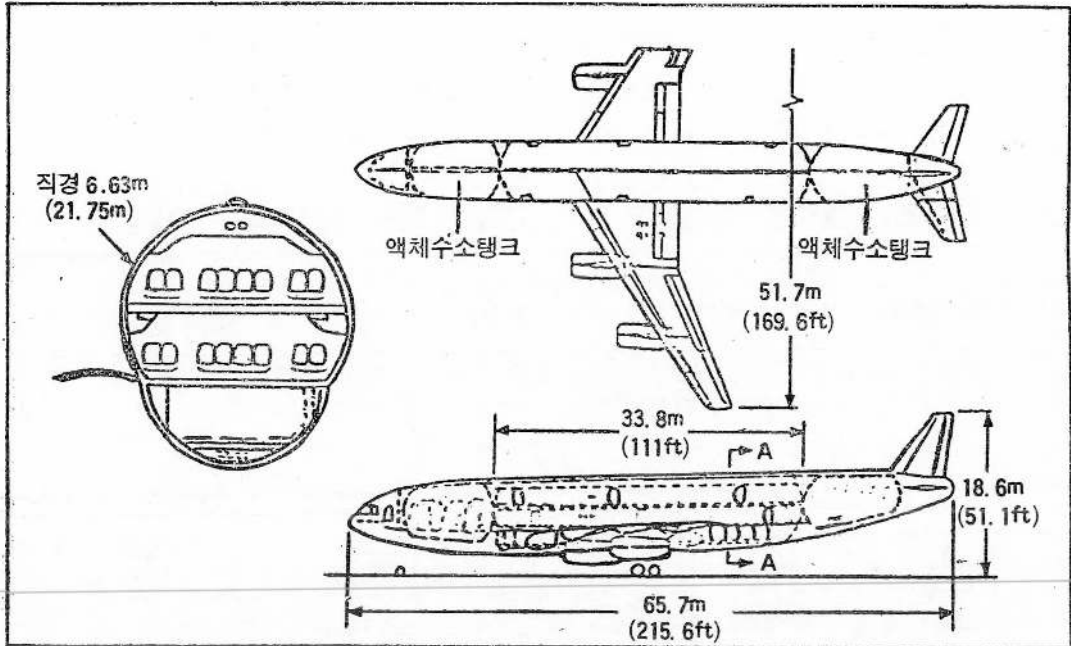


그림 1. 아음속水素航空機(승객 : 400인, 항속거리 : 10,190km, 속도 : 마하 0.85)

<도표 1>

代替燃料航空機の性能比較(亞音速機)

(Comparison of Liquid-Hydrogen, Liquid-Methane, and Synjet Fueled Aircraft-Based on 400-Passenger, Mach 0.85, 5,500-nm-Range Transport)

		LH ₂	LCH ₄	Synjet
Gross WT	lb	372,200	501,000	511,600
Block fuel	lb	47,670	131,520	159,900
Oew	lb	227,750	258,400	236,700
Wing area	ft ²	3,195	4,175	4,093
Span	ft	170	194	192
Fuselage length	ft	215.6	201.3	197
SFC(cruise)	$\frac{\text{lb}}{\text{hr}}/\text{lb}$	0.202	0.493	0.603
$\frac{L}{D}$ (cruise)		17.4	19.09	19.13
Thrust per engine	lb	30,350	39,800	41,600
Price	Smillion	43.39	48.44	44.53
Noise, sideline flyover	EPN dB	87.2	N. A.	87.8
	EPN dB	89.2	N. A.	94.2
Emissions		H ₂ O, NO _x	CO _x , SO _x , NO _x , HC smoke, H ₂ O	CO _x , SO _x , NO _x , HC, smoke, H ₂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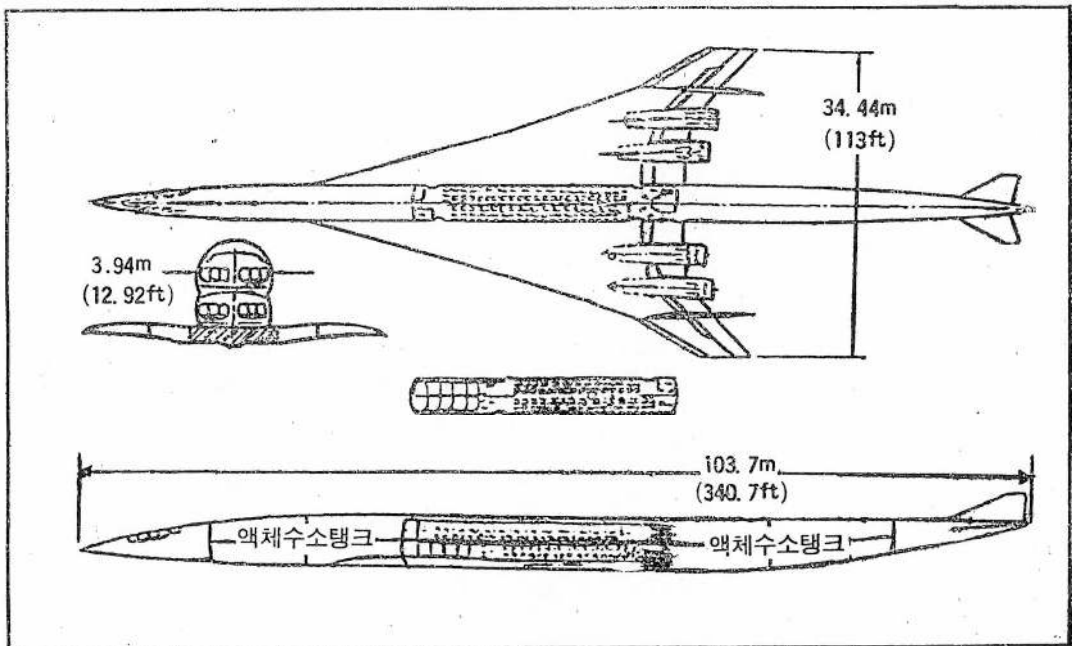


그림 2. 초음속수소항공기

乗客數：234人, 航積距離：7,780km (4,200海里), 速度：마하 2.7

더우기 液體水素의 경우 탱크內에 저장되어 있는 燃料가 극저온이라는 것을 利用하여 날개表面이라든가 胴體外皮를 冷却하는 것에 의해 공기흐름의 境界層制御가 實現될 수 있다.

이 革新的인 技術이 具體化되면 水素航空機의 特性은 더욱 매력적이 된다. 例를 들면 液體水素의 극저온성을 利用하여 境界層制御가 實現되면 圖表 1의 數值中에서 總重量(Gross Weight)은 7.5%, 所要區間의 燃料은 29%,

直接運航費는 21%가 各各 減少될 것이라고 한다.

超音速 航空機에서의 檢討結果도 水素航空機의 性能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比較에 쓰여진 概念設計(그림 2)의 超音速機는 四發엔진에 234名の 승객을 싣고 7,780km (4,200海里)를 마하 2.7程度의 巡航速度로 날으는 것으로 하여 그 代表的인 特性은 圖表 2에 나타내었다.

<도표 2> 超音速機의 性能比較(Comparison of Liquid-Hydrogen and Jet a Fueled Supersonic Aircraft-Based on 234-Passenger, Mach 2.7, 4,200-nm-Range Transport)

		LH ₂	JET A	Ratio JET A LH ₂
Gross weight	lb	394,900	762,200	1.93
Operating empty weight	lb	245,200	317,400	1.29
Block fuel weight	lb	85,390	330,590	3.88
Thrust per engine	lb	52,820	86,890	1.64
Wing area	ft ²	7,952	11,094	1.39
Span	ft	113	133.5	1.18
Fuselage length	ft	340.2	297	0.87
Field length required	ft	7,800	9,490	1.22
Lift/drage (cruise)	—	7.42	8.65	1.17
Specific fuel consumption (cruise)	$\frac{\text{lb}}{\text{hr}}/\text{lb}$	0.575	1.501	2.61
Aircraft price	\$10 ⁶	45.5	61.5	1.35
Energy utilization	$\frac{\text{BTU}}{\text{seat nm}}$	4,483	6,189	1.38
Noise : sideline	EPN dB	104.0	108.0	—
flyover	EPN dB	102.2	108.0	—
Sonic boom overpressure	lb/ft ²	1.32	1.87	1.41

이 圖表를 볼 때 우선 생각되는 것은 同一 任務를 達成하기 위하여 水素航空機의 總重量은 合成제트A 燃料를 사용하는 경우의 약 절반 정도로 足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燃料消費率이나 所要區間燃料도 매우 적은 것으로 보

아 直接運航費面에서도 水素航空機가 有利할 뿐 아니라 소리를 낼만한 Sonic boom을 포함하는 飛行騷音은 大幅의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特性은 소위 超超音速機에도 적용되며 超音速機나 超超音速機에 있어서는 高速飛

行때에 空氣와의 마찰에 의해서 높은 마찰열이 發生하여 機體構造의 強度, 機能이나 승객 및 승무원에 대한 영향이 큰 問題로 되고 있지만 液體水素의 極低溫性을 利用하면 機體表面을 効率的으로 冷却할 수 있다는 것도 커다란 장점을 갖고 있다. 以上과 같은 特性을 評價하면 액체수소가 航空機用 代替燃料로서 가장 有望한 候補라고 말할 수 있다.

Ⅲ. 水素航空機의 實現과 그 展望

航空機用 燃料가 代替되어야 한다는 必要性이 認識되어 各種 代替燃料의 候補가 各양각색이고 그 特性도 다양하지만 이것은 과감하게 實現할 수 있을까하는 것이 最大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것은 天然石油를 포함하는 化石燃料資源의 價格 및 供給展望 등이 불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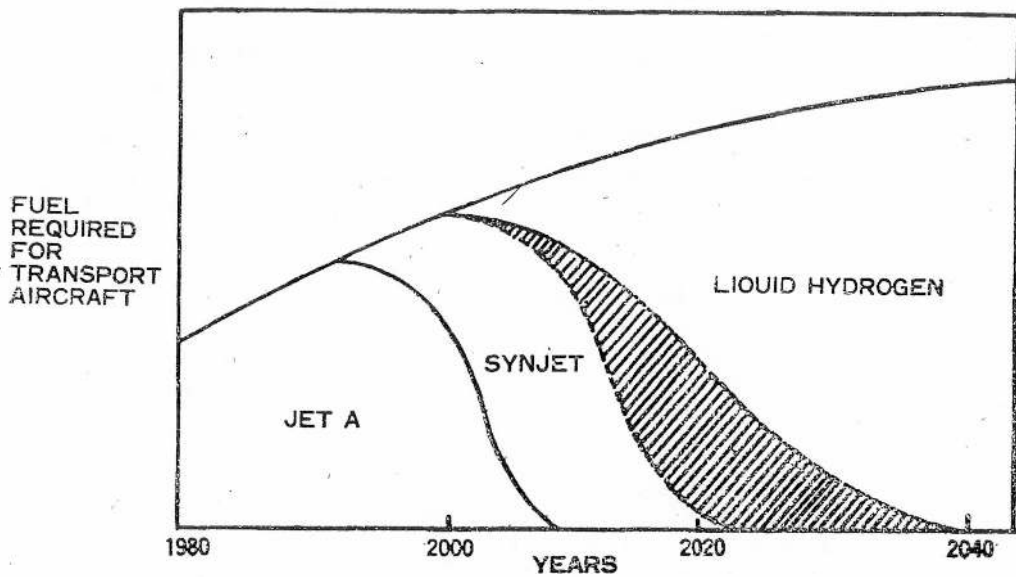


그림 3 항공용연료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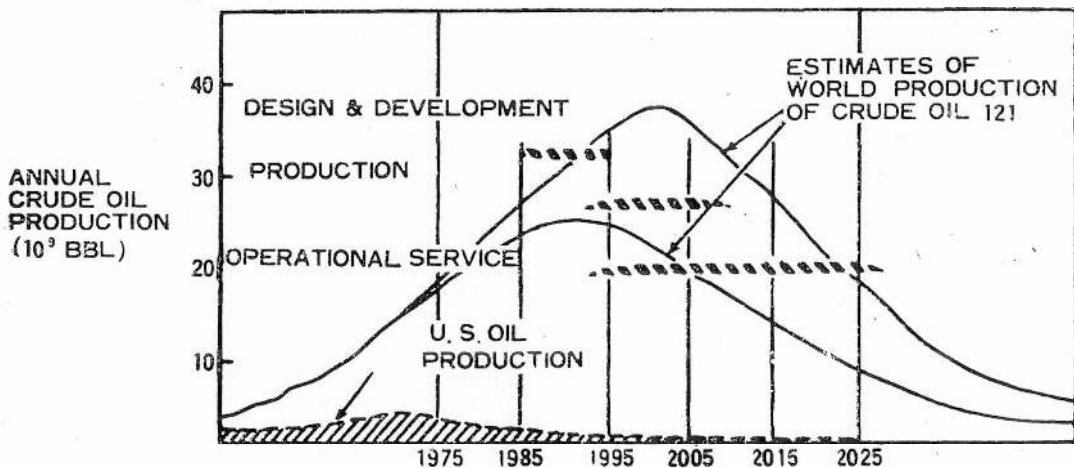


그림 4. 새로운 수송기의 연료와 석유공급량과의 관계

명할 뿐 아니라 使用者인 航空會社와 航空機 製作會社 사이의 合意가 없는 것이 큰 原因이고 또한 각 나라마다 事情도 다르고 切迫感이나 背景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狀況이지만 과감하게 提示되고 있는 展望과 Guide line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 점차 占有率이 증대하는 大型航空機 특히 장거리용 航空機에 적용되어 1995~2000년경부터 취항개시, 20~30년간을 걸쳐서 全體의 交替를 目標로하여 1985년경부터 試驗飛行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된다(그림 3과 그림 4 참조).

이 새로운 水素航空機를 운용할 때까지 기존의 공항시설과 航空機를 最大限으로 利用하기 위하여 合成제트A燃料가 과도적인 代替燃料로서 30~40년간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다가 가장 理想的인 液體水素라는 代替燃料를 타이밍 좋게 導入하기 위해서는 航空業界 이 외의 關係者들의 合意를 폭넓게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關係者에게 水素航空機가 공항시설의 安全性, 신뢰성, 내구성, 정비성 및 經濟性이 期待대로라는 것을 알기 쉽게 實證하여 볼 必要가 있다.

人 生 觀

人生에는 독특한 리듬이 있다. 우리는 이 리듬의 아름다움을 깨달아야 한다. 大交響樂을 들을 때와 같이 그 樂想, 그 亂波調, 그 마지막 大協和音을 음미할 줄 알아야 한다. 人生의 음악은 각자가 作曲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不協和音이 점점 퍼져서 나중에는 멜로디의 主調를 압도하거나 말살해버리는 수가 있다. 또 때로는 불협화음이 너무 強해서 멜로디가 중단되어 권총자살도 하고 강물로 뛰어들기도 한다. 이러한 人生은 별도로 치고 正常的인 人生은 엄숙한 行進이나 行列처럼 끝까지 지속되는 법이다. 그러나 雜音이나 短音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있다. 그럴 때에는 템포가 잘못된 것이므로 不快하게 들린다. 저 晝夜를 가리지 않고 유유히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큰 강물의 웅장한 템포야말로 우리가 동경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林語堂<生活의 發見>

美空軍의 最新武器 (上)

崔 浪 洙 譯

새로운 세대의 무기는 적의 목표물에 피해 효과를 더욱 크게 하고, 반면에 우군에게는 위협을 적게주면서 투하할 수 있다.

미 공군체제사령부(Air Force Systems Command)의 무기개발부(Armament Division)에서는 미 공군의 재래식전투능력의 "주요한 부분(Business end)"이 될 수 있는 각종 무기와 소형무기를 설계 및 제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 의회 및 미 국방성의 주요관심 속에서 그의 임무를 유지하고 기금을 확보하며, 각종 항공기와 위성 및 미사일 등을 제작하는 고차원적인 제작자들의 영향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풍부한 기술을 토대로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무기개발부의 각종 주요계획은 미 공군무기개발부의 위치를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밝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월남전 당시 맨처음 "Smart bomb"에서부터 시작한 무기의 혁신은 2가지의 주요한 요인, 즉, 비유도무기에서 유도무기로 전환하고, 항공기가 목표물지역으로 침투하지 않고, 목표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Stand-off) 항공기에서 무기를 유도할 수 있는 보충적인 능력을 가지면서 비롯되었다.

앞으로 전술공중전을 점차 변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은, 즉석에서

각종 첩보를 여과, 처리 및 계산할 수 있고, 그 크기와 중량이 감소되고, 가격이 절감되고 있는 각종 탐지장치(Electronic Sensor)와 Miniprocessor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최신 전자부품들은 수용능력(Capacity)과 능력(Capability)면에서 점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술이 정교하고 다양하게 발전됨으로써, 일격(Pass당)에 다량으로 목표물을 명중(kill)시킬 수 있는 작전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한 항공기가 동시에 많은 적과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으며, 야간 및 악천후 기상조건에서도, "Smart"무기가 자동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교한 최신기술의 발달로 최신무기는 IR이나 밀리미터파(millimeter Wave) 또는 각종 신호포착방법을 사용,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무기조작사가 어떤 특수해당목표물을 선택하기 전에 투하 및 발사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각종 유인 및 무인기의 소모율을 감소시키면서, 전술무기의 치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중간유도(Mid-course guidance)에서의 큰 발전이며, ECM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이점들은 새로이 개발된 무기들이 독자적인 능력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었으며, 따라서 각종 새로운 무기들이, 목표물과 교전시 교신할 필요성이 감소되거나 또는 교신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다.

AMRAAM

미 공군은 약 20년간의 공백이 있던 후에, 다시 최신 공대공미사일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최신 중거리용 공대공미사일(AMRAAM: Advanced Medium Range Air-to Air Missile, 일명 AIM-120)은 어떠한 환경(All-environment)에서도 사용가능한 최신 미사일로서 그 자체에 Active radar seeker가 장치되어 있어서 미사일 자체가 "Launch-and-leave" 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AIM-120A 최신공대공미사일은 미 공군의 전투효과를 향상시키면서 항공승무원들의 취약성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이점들은 배치된 AIM-7에 비하여 AMRAAM이 성능유효범위(performance envelope)가 크게 향상되었고, 평균속도가 증가되었으며, 근접전(Close-in dogfight)에서 승무원들이 회피기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발사 및 기동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AMRAAM은, all-weather, All-aspect missile로서, AIM-7미사일 보다 소형, 경량, 신속한 미사일이다.

미사일자체에 장치된 Active radar의 유도 방식에 따라, 조종사는 단독요격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이 가능하다고 한다.

AMRAAM은, F-14, F-15, F-16, F/A18 및 NATO군의 방공 및 공중우세 전투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AMRAAM을 최초 개발시험

평가를 하고, 최초 작전평가시험용으로 F-16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며, FY 85년에 생산개시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한다.

미 공군과 해군은 1990년대 중엽에 약 20,000발의 AIM-120 미사일을 획득할 것이며, 그 비용은 약 600억불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이 구입발수 중 해군용은 약 7,000발이 될 것이라고 한다.

AIM-120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아직 비밀로 되어 있어 알 수는 없으나, F-14에 장착한 미 해군의 Phoenix미사일의 사정거리 보다는 짧다. AMRAAM은 "Track-while-scan"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시(Real time)에 8개까지의 목표물과 교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AMRAAM은 Stand-off거리에서 적기에 발사할 수 있으며, 초기에는 관성참조장치와 Microcomputer에 의하여 유도된다. 이때 Microcomputer는 모기(母機)의 전자장비체계에서 제공한 목표물의 좌표를 사용한다.

비행 중 최종유도단계에서는 목표물에 장치된 Active radar seeker가 유도를 인계받아 목표물로 미사일을 유도한다.

미사일의 Radar range 이내에서 발사될 때에는, AIM-120은 "Launch-and-leave" 능력을 발휘하며, 따라서 조종사는 발사직후에 이탈(Break away), 다른 7개의 목표물과 우선순위로 교전할 수 있다.

해군의 요구에 따라, AMRAAM은 순항미사일과 같은 Radar-cross section이 작은 목표물과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되었다고 한다. 소련의 순항미사일은 소련의 전대(Battle group) 및 기타 해상함정에 사용하게 되리라는 위협에 대하여, 미 해군은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Radar-cross section이 작은 목표물

을 추적할 수 있는 AMRAAM의 능력은 밀리미터파 최종유도기술(Millimeter wave terminal guidance technique)의 사용을 필요로 한 Stealth기술을 최대로 이용한 설계방식과는 대치할 수 있는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할 것이다.

AMRAAM은 동체(Airframe)에 매우 우수한 성능의 장비가 장치되어 있으며 미사일의 중량은 AIM-7 Sparrow 미사일에 비하여 불과 3/5정도 밖에 안 된다. 또한 신뢰성과 정비성을 보다 높여 사용주기수명비(Life cycle cost)를 최소한으로 감소시켰다.

동 미사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G" 능력은 어떤 가장 민첩한 목표물의 "G"능력보다도 우수하다. 또한 Low-smoke, high-impulse Rocket motor를 사용함으로써 목표기가 AMRAAM이 발사되었는지 또는 접근해오는지를 거의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실제로 회피기동을 방해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AMRAAM의 사정거리는 현재수준보다도 크게 증가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미 공군은 그렇게 하여야 할 절박한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 해군에서는 AIM-120보다 사정거리가 더 긴 미사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AMRAAM 이외에도 Phoenix미사일보다도 사정거리가 더 긴 새로운 공대공미사일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1960년대 후반에 개발한 AIM-54C Phoenix미사일을 대치하기 위하여 언젠가는 필요하게 될 것이다.

AMRAAM계획은 현재 전면개발단계에 있으며, 이는 Hughes 항공사의 Missile System Group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Hughes사에서는 94발의 시험용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은 FLA의 Eglin 미 공군기지와 Helloman 미 공군기지 및 태평양에 있는 미사일시험 센터에서 각각 시험발사될 것이다.

AMRAAM을 다발사격하기 위해서는 발사항공기를 개조하여야 하나, 전면개조는 하지 않고 Phoenix미사일에 사용한 AWG-9 Fire control system을 모방할 것이다.

AMRAAM계획을 착수할 때부터, 미사일체제는 다른 NATO국가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고, 상호 보상의 원칙에 따라 구라파인들도 독일의 Bodenseewerk Geraetechnik GmbH사에서 주로 개발하고 있는 최신단거리용 공대공미사일(ASRAAM; Advanced Short Range Air-to-Air Missile)계획에 미국이 참여하도록 상호 이해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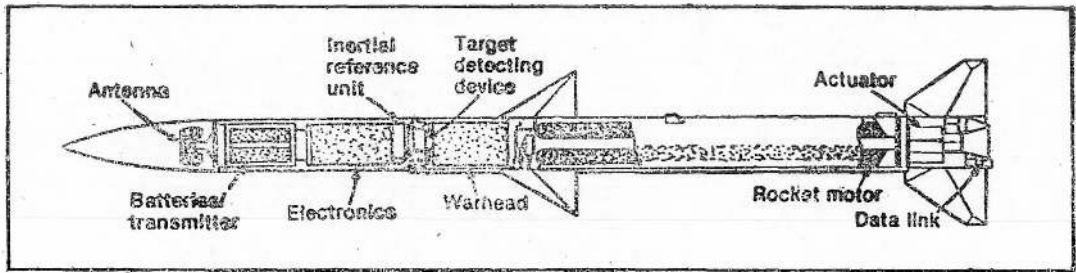
1980년 8월에 서독, 영국 및 미국방성은 NATO의 무기제일의 정책에 따라 새로운 공대공미사일을 개발 및 생산하기 위하여 합의각서에 서명하였다.

AMRAAM은 공대공미사일분야에서 NATO의 광범위한 요구에 대하여, 미국이 공헌한 무기로서, ASRAAM은 구라파에서 공헌한 무기로서 각각 부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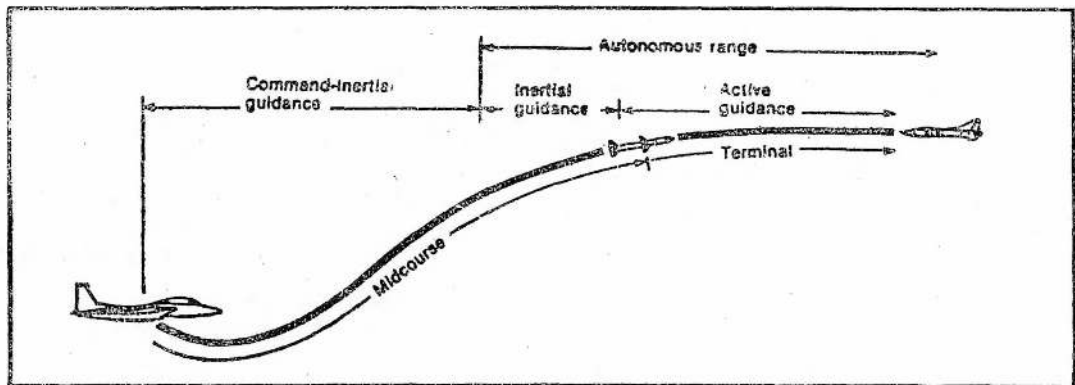
이와 같이 합동으로 접근하도록 개발한 것은 구라파의 전장(戰場) 내에서 향상된 공대공미사일을 제공하고, 각종 무기의 상호지원을 위한 것이며, 여러국가들의 항공기간의 상호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조달비를 실제로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대전차무기(Antiarmor weapon)

NATO와 바르샤바조약군의 전쟁의 양상은 미 전술공군력을 최대로 필요로하는 도전이



Amraam is 3.65m(141in) long, 17.8cm (7in) in diameter with a 63.5cm(25in) control-fin span, and weighs 147.9kg(327lb)



Amraam relies on active-radar terminal guidance for beyond-visual-range fire-and-forget capability

될 것이다. 주로 기갑부대로 구성된 목표물이 많은 환경과 NATO군의 공군력을 방해하는 전에는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밀집방공망과 같은 2가지의 주요한 요인들이 그와 같은 잠정적인 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목표물이 밀집된 환경(Target-rich environment)에는 수많은 APC와 기동성이 있는 포 및 트럭 외에도 30,000대의 소련전차가 동원될 것이다. 바르샤바조약군의 제2세대는 주로 이와 같은 부대로 구성될 것이다.

따라서, 방어는 적시의 공중후방차단 및 일격(소티당)에 다수의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지연 및 파괴작전"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전제하에 여러 가지의 특

수요구가 발생된다. 맨먼저 Stand off 거리에서나 또는 저고도에서 투하할 수 있는 각종 무기를 사용하여 미군항공기의 손실을 최대한 감소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악천후 및 주·야간에도 작전할 수 있는 능력과 발사 후 목표물을 Lock-on할 수 있는 방법 및 조종사가 육안으로 접촉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각종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smart" Stand-off 무기의 능력이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도전에 대한 무기개발부의 해결방안은 WAAM(Wide Area Antiarmor Munitions)이라고 알려진 Umbrella Program으로, 이 계획의 효과 및 치명성으로 미군은 바르샤바조약군의 제2세대가 제1세대를

보강할 수 있기 전에 제2제대에 대해서 사전에 후방차단하여 봉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특성으로 바르샤바조약군의 제2제대를 공격하기 위한 출격 및 Pass의 회수가 크게 감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구라파의 밀집된 방어환경에서 전술공군의 생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부수적인 각종 이득은 비행부대당 보다 많은 파괴 및 명중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다 경제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고, 보다 유연성 있는 공격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WAAM은 특히 이동 및 위치가 일정치 않은 각종 목표물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Stand-off무기의 효과와 범위를 증가시켜 대서양의 양측면에 대하여, 핵전 돌발을 높일 수 있는 야망적인 제반 노력 중에 중추적인 요소이다.

과거에 지원이 빈약하였고, 7가지의 원계획 중에서 2가지의 계획이 취소된바 있으나, 대기감무기의 개발계획만은 분명히 진지하게 연

구 중에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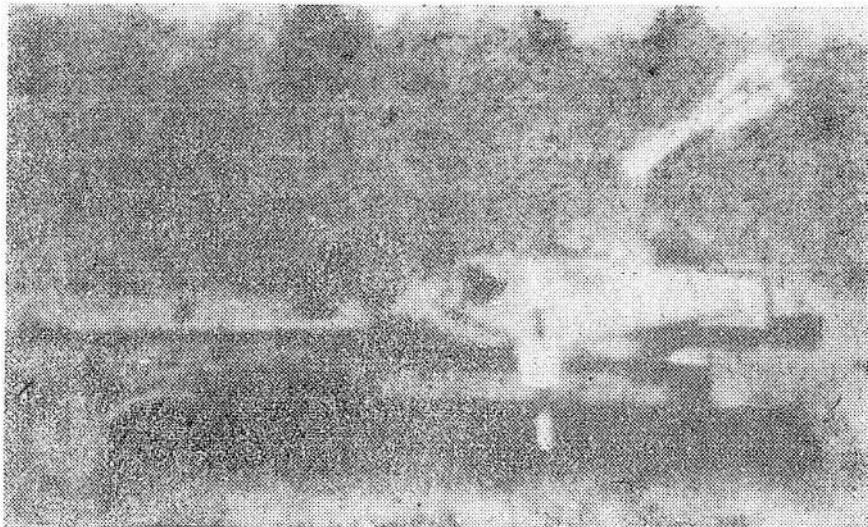
Wasp Minimissile

135파운드의 Wasp Minimissile은 아음속무기로서 자동으로 목표물을 식별할 수 있고 Lock-on-after-launch/hit-to-kill 능력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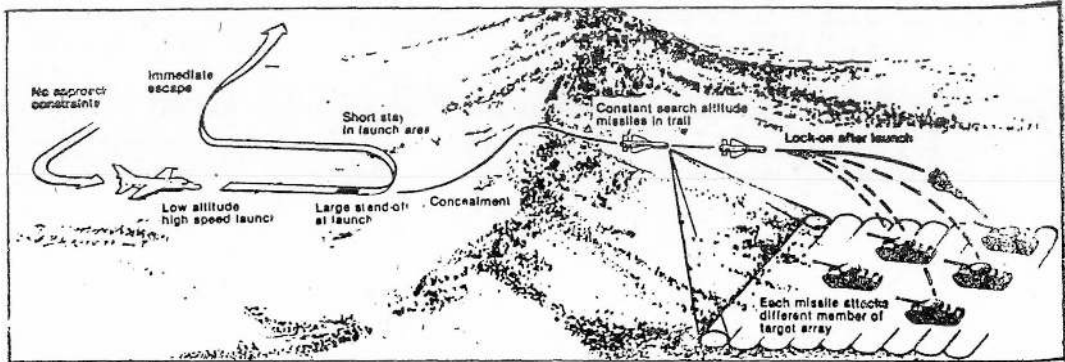
Wasp 미사일은 Millimeter Wave(MMW) 유도방식을 사용하며, 악천후 및 야간에서 뿐만 아니라 안개 낀 기상상태에서도 그 기능이 감소되지 않는다.

MMW유도방식은 IR기술보다도 더 발전된 기술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 있으며, 이는 보다 더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뢰성 있게 작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IR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능 외에도 더 많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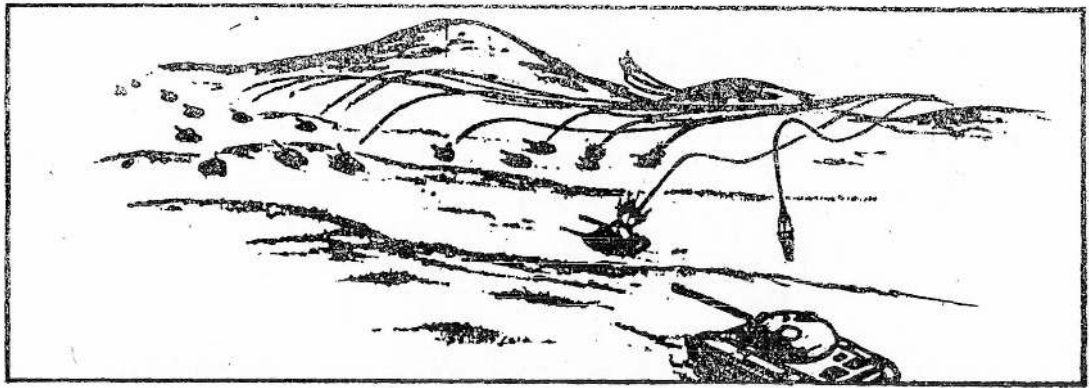
Wasp 체제는 한발 한발씩 8발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거나, 또는 선택적 사격방법으로



The Wasp minimissile uses millimeter wave guidance that enables the weapon to operate in adverse weather and fog. this "smart" missile has a reliable standoff capability.



Artist's impression of a Wasp "swarm" attack, with each missile acquiring a different armoured target



는 2~16발의 미사일을 1개의 Pod launcher에서 동시에 발사할 수 있고, 고고도 및 저고도 투하용으로 설계되었다.

저고도(200ft)에서 사용시에는, Wasp미니미사일은 목표물지역을 향하여 발사되며, 미사일자체에 장치된 소형 MMW레이다를 이용 기결정된 탐색고도를 찾아낸다.

이동목표물이든, 고정목표물이든간에 일단 포착, 확인한 후에는 목표물을 추적하도록 지령을 받고, 한 목표물을 선택한 후 Homing하여 추형장약탄두를 사용 목표물을 파괴한다.

모기(Launching aircraft)의 조종사는 철저

하게 방어된 작전지역에서 수마일 떨어져 작전할 수 있으며, 육안으로 목표물을 획득할 필요가 없고 목표물지역상공을 비행할 필요가 없다.

Minimissile은 Boresight 밖의 90°까지 투하할 수 있으며, 저고도에서 발사할 때에는 조종사가 "Pop-up"기동을 할 필요가 없다. Wasp무기는 비용대효과적인 무기로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무기보다 10배정도 pass당 명중(kill)률이 증가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Wasp미사일은 FY84년에 전면 개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발예산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Gator 및 ERAM

공중에서 투하, 지상에 설치하는 이 소형 대전차 / 인마살상용 무기는 전투시 지상군에 대한 공중지원용으로 적합할 뿐 아니라, 적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작전하는 전술공군이 전개하기에 적합한 최신무기이다.

미 공군의 표준 1,000파운드 TMD (Tactical Munition Dispenser)로 운반할 때에는 72발의 대기감용 지뢰와 22발의 인마살상용 Gator (CBU-89/B) 지뢰를 혼합, 그 지역을 통과하는 적군을 방해, 혼란 및 파괴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적시에 지뢰밭을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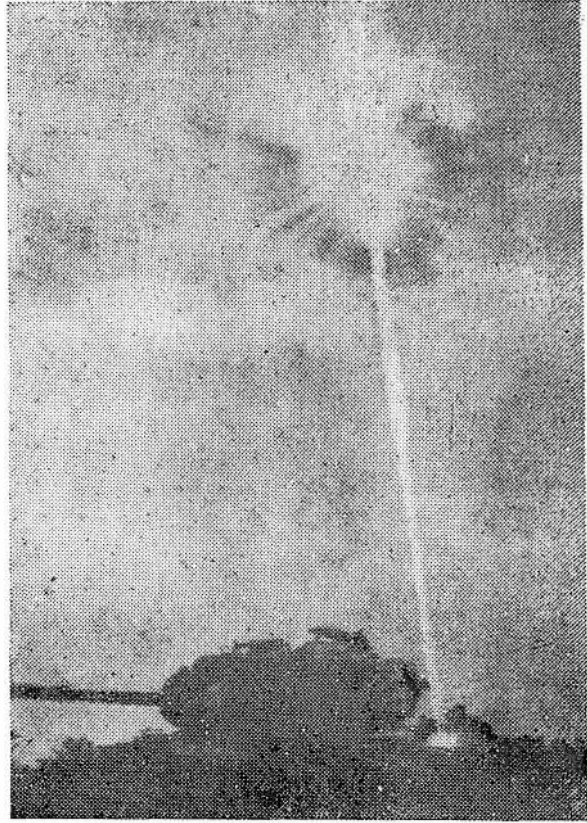
Gator무기의 대기감 및 인마살상용 개량형무기는 적병력이 그곳을 통과하거나, 또는 기갑차량 및 기타 차량이 그 지역을 통과할 때 폭발한다.

Gator무기는 미 육군 및 해군은 물론 공군용으로 미 공군에서 개발하고 있다.

매설하고자 하는 지역에 지뢰를 개별적으로 분산 투하시킬 수 있는 특수 항공역학적 Case를 사용하는 Gator무기는 저고도에서나 고고도에서 투하할 수 있다.

Gator무기는 우수한 "Smart" 무기로서 진폭표물과 가목표물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고, 목표물이 치명적인 유효사거리 내에 왔을 때, 탄두를 폭발시키는 우수한 최신 무기이다. Gator지뢰는 일단 투하되고나면, 사전에 선택한 시간에 맞추어 자체의 폭발능력이 작용할 때까지, 기상이나 빛의 조건에 관계 없이 매우 효과적으로 남아 있다.

이외에도 바르샤바조약군의 수적으로 우세한 기갑부대와 대치하기 위하여 가장 정교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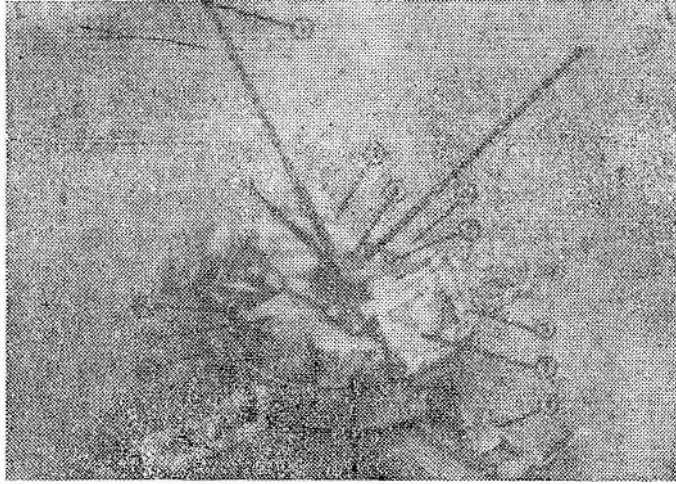


고 유연성 있는 기술을 사용한 무기개념은 ERAM (Extended Range Antiarmor Munition) 이다.

ERAM은 정교하게 계산하는 탐지장치 (Sensor)를 사용하므로, 우수한 "Smart"무기의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일종의 집속무기 (Cluster Weapon)로서, 목표물촉발소형무기 (Target-Activated Submunition)가 9개 들어 있으며, 미 공군용 TMD를 사용, 공중에서 투하할 수 있다.

ERAM은 Taxiing aircraft는 물론, 기갑 및 4륜차량을 공격하도록 설계하였으며, 사실상 정교한 지뢰인 이 소형 최신무기는 목표물 상공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

ERAM은 각종 진동 및 음향수단을 사용하



The Extended Range Antiarmor Munition is a "smart" cluster weapon designed for attack against armored and wheeled vehicles as well as against taxiing aircraft. ERAM integrates nine air-delivered target-activated submunitions with the standard Tactical Munitions Dispenser. Once dropped, the weapon waits in ambush until a suitable target approaches, then launches a sophisticated warhead over it that then fires a self-forging fragment into the target.

는 Sensor와 분류기(Classifier)가 장치되어 있으며, 공격하기 위한 목표물이 공격하기에 알맞는 거리까지 접근하여 올 때까지 매복하여 기다리고 있다. 접근해오는 목표물을 선택 확인한 후, 목표물방향으로 그 지신을 자동으로 조종하며, 방위각과 거리를 산정한다.

ERAM은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하여, 특유하게 설계한 탄두를 발사하여 특유의 치명적인 방법으로 공격한다. 탄두에 장치된 Airborne sensor는 목표물상공의 통과를 포착하여, 파괴장치를 격발, 파편을 분산 전차의 윗부분을 침투 파괴한다.

자동적으로 유도되는 파편은 지향성 고에너지 산탄으로 폭발하기 위하여, 목표물과 물리적 접촉이 필요치 않으며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거리)에 대하여 효과적이다.

그 공격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스스로

유도되어가는 탄두는 정밀하고 기계산된 방법으로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방출한다. 산탄들은 고속 소총탄보다 빠른 속도를 가지며, 기갑을 관통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파편들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전차를 파괴할 수 있다.

ERAM은 지상에서 매복된 상태로 있으면서 지뢰제거차량 및 요원들에게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로의 양측에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대응수단에도 고도의 저항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더러, 폭발하기 위하여 목표물과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무기가 개발 대량생산되어 실전에 전개 사용될 경우에는 수적으로 우세한 바르샤바조약군의 전차는 물론 각종 목표물이 단시간에 파괴 일시에 전력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STEALTH 기술의 실현

윤 형 기 譯

Stealth기술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 시작되어 왔으며, 미 공군에서는 바르샤바조약군의 레이더 및 탐지장치(Sensor)에 포착될 수 있는 폭격기, 전투기 및 순항미사일의 민감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각종 Stealth기술을 신속히 개발하고 있다.

플라스틱 엔진부품을 사용한 순항미사일에 서부터 전투기 및 폭격기용의 섬유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Plastic Wing에 이르기까지 Stealth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항공기와 미사일은 적의 레이더에 포착이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레이더 흡수 및 편향물질의 사용과 최신 ECM제제, 혁신적인 항공역학적 설계 그리고 IR신호를 적게 발생시키는 엔진 등의 사용은 look-down/Shoot-down 능력을 가진 소련의 최신 방공체제에 대해서 항공기의 생존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Stealth기술은 B-1 B폭격기와 차기 순항미사일에 최초로 사용될 것이며, 그후 1990년대 초에 작전화될 차기 전략폭격기 및 전투기에 사용될 것이라고 미 국방성관리들은 말하고 있다.

미 공군의 한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 Stealth 기술, 또는 적의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기술적 특성은 3가지가 있으며, 이들은 육안

및 레이더로부터 기체의 Cross-Section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들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다.

- 각종 레이더신호를 편향시키는 기체 모양.
- 각종 레이더신호를 흡수하는 구성물질 사용.
- 적의 각종 레이더 및 무기를 제밍 및 기만하는 ECM방법.

이외에도 적을 부정, 무력 및 혼돈시키는 새로운 방법이 고려 중에 있다고 하며, 이와 같은 각종 기술에는 소련의 요격기를 파괴할 수 있는 고에너지 레이저(High-energy laser) 및 입자빔무기와 적의 Radar 및 유도무기의 위치를 확인 제밍할 수 있는 최신 고출력 ECM체제의 사용이 포함될 것이다.

Stealth기술은 약 200억불의 예산으로 1986년에 작전화될 B-1B 장거리폭격기(LRCA) 100대와, 300억불 이상의 예산으로 Stealth 또는 최신기술을 이용한 폭격기(ATB) 110대를 생산하도록 된 2가지의 폭격기 생산계획에도 소개될 것이다. ATB 폭격기는 1991년 초에 작전화될 수 있을 것이다.

Radar Cross-section의 감소

B-1의 최신형에는 각종 Stealth기술의 특징

을 사용하였다. 가변익 항공기는 Head-on 방향에서는 1m^2 보다 작은 Radar cross-section을 나타낸다. 이는 10m^2 의 Radar cross-section을 나타내는 B-1A와 100m^2 이상의 신호를 발생시키는 B-52기 보다 크게 향상된 것이다.

설계자들은 레이더 신호를 반사하였던 폭격기의 후면에 있는 EW Antenna Spine을 제거하고, Flight Control leading edge를 유선형으로 만들고, Engine intake duct를 개조 및 적의 레이더와 미사일을 자동적으로 포착 제밍할 수 있는 최신방어용 전자장비를 통합하여, Radar cross section의 크기를 1m^2 정도로 작게 하였다.

폭격에서 Antenna spine을 제거하였으며, 종전의 Tail Warning system의 많은 Cable선과 연결부분은 폭격기의 Dorsal spine에 장치하였다.

B-1B에 개조한 또다른 부분은 Phased-array antenna를 사용한 것으로서 이 안테나는 각종 Stealth기술을 이용하였고, B-1A의 접시형 레이더를 대체한 것이다.

안테나는 F-16에 사용한 APG-66 레이더의 개량형으로서 저고도지형 및 항법용으로 사용된다.

Northrop사와 Rockwell사 및 Lockheed사로 구성된 개발팀은 최신기술을 이용한 폭격기의 기생산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어느회사에서도 항공기를 비행하지는 않았지만, Wind tunnel test와 목표물 침투모의 시험 등은 1980년 이후부터 실시하여 왔다.

현재 1m^2 의 100만분의 1보다 더 작은 Radar cross section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며, 이는 거대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매우 작은 것이라고 한 기술자는 말하였다.

혼합물질(Composite material)사용

ATB의 개념설계는 재래식 항공기 및 엔진 설계방식에서 눈부시게 발전한 것이라고 공군 관리들은 말하고 있다.

기술자들은 티타늄이나 또는 강철 보다도 보다 가벼우면서도 강한 혼합물질로 만들고, 또한 레이더파를 반사하지 않는 Delta wing항공기의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탄소, 섬유유리 섬유보강복합물질 및 레이더신호를 흡수 및 편향시키는 특수 페인트등을 포함하여, 여러가지의 혼합물질의 사용이 고려 중에 있다.

Boeing회사에서는 미 공군과의 2,300만불의 계약하에 F-111용의 흑연/액폭시 혼합물질로 된 한 Set의 Wing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쉽게 망가지지 않고 피로(Fatigue)에 훨씬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상 금속 보다도 우세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합물질들은 매우 높은 온도에서나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금속보다도 더 민감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흑연/액폭시로 만든 Wing은 화씨 -65° 와 같은 낮은 온도에서는 구부러지기 쉬울 수도 있다고 하나, Boeing사에서 만든 흑연/액폭시 혼합물질로 만든 Wing설계에 대한 각종 비행시험은 금년 9월에 Edwards 공군기지의 CA에서 착수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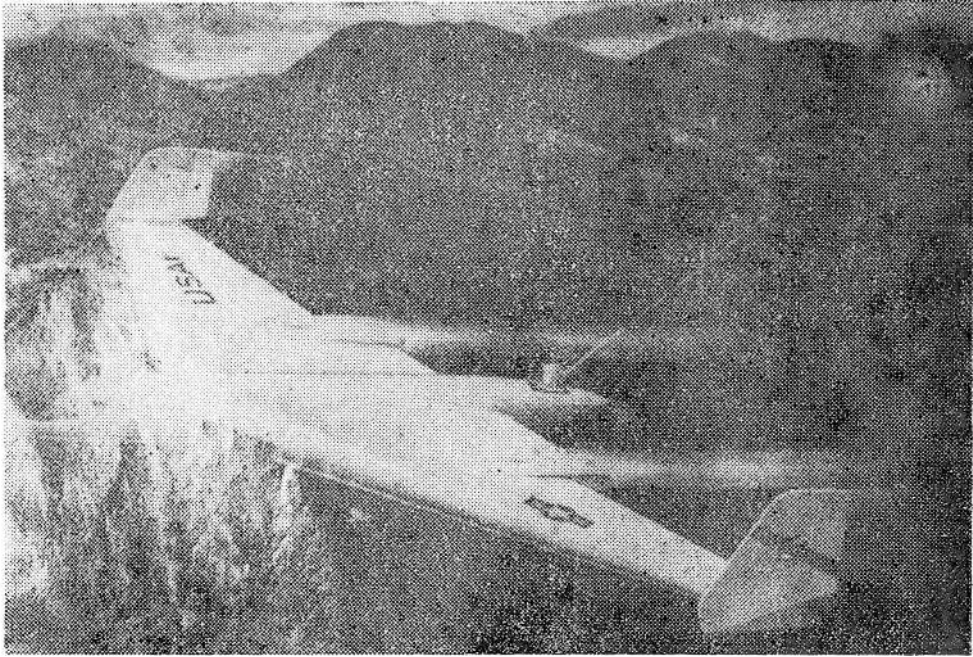
ATB의 설계자들은 B-1B의 개발에서 배운 각종 교훈의 이점을 감안하여 레이더파를 반사하는 항공기의 가장자리부분(Edge)과 Wing 아래에 있는 echo를 발생시키는 Engine nacelle부분을 개조하도록 시도할 것이다.

기존 설계개념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연이 대형으로 등글게 되어 있으며, V형의 Delta wing으로 되어 있고, 엔진은 날개와 동체부분에 장착되어 있다.

또한 설계자들은 Radar cross-section을 감소시키면서도 충분히 안전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Wing-let나 또는 V형 tail section을 설계하여 Telltale Vertical stabilizer를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차기세대 항공기는 보다 매끈하게 유선 형으

로 제작될 것이며 항공역학적으로 보다 완전하게 제작할 것이라고 한다. ATB는 조종이 용이하여야 하고, Mach속도에 가까운 저고도에서 항공기의 진동을 최대한으로 감소시켜야만 한다고 한다.



“사진설명”

미 공군의 최신기술 또는 Stealth기술을 이용한 설계방식의 폭격기는 항공기의 Leading edge가 무디게 되어 있고, 엔진이 Wing이나 동체에 장치되어 있으며, Wing tip stabilizer가 있고 Vertical stabilizer를 제거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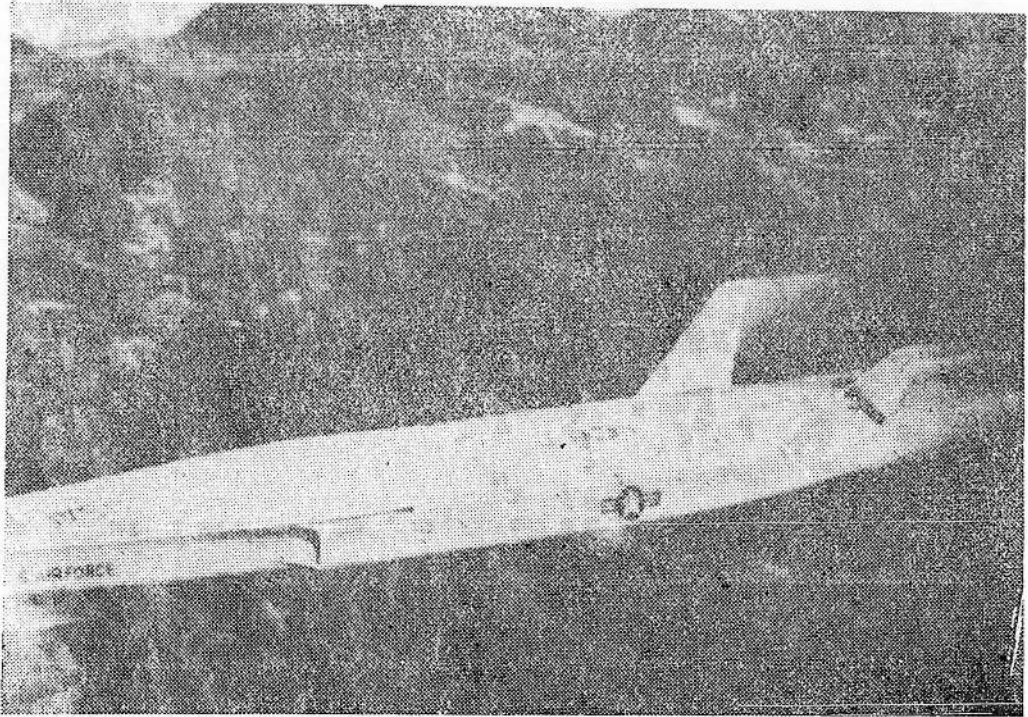
기체는 레이더 흡수 및 편향혼합물질을 사용하였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화시킴으로써 Radar-cross section이 크게 감소 될 것이다($\frac{1}{100}$ 평방미터정도). 이와 같은 형의 ATB(최신기술을 이용한 폭격기)는 후미에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파괴시킬 수 있는 laser무기가 장치되어 있다.

Stealth기술을 이용한 폭격기는 언덕이나 기타 자연적인 각종 장애물로 소련의 레이더가 방해를 받는 200ft 이하의 저고도에서도 우수한 Stealth의 질을 발휘한다고 한다.

미 공군의 한 설계자가 설계한 차기 폭격기

개념은 도미노형 항공기로서, 이는 오직 2개의 소형 Vertical Stabilizer와 기수부분에 장치된 2개의 안전용 fin을 사용하여 초음속으로 비행한다.

대형 Wing은 이 착륙시와 저고도 비행시에



“사진설명”

이와 같은 유선형의 Stealth 폭격기는 Wing을 90°회전, 동체의 상단에 접어 레이더파 반사문제를 감소시킨다. Wing은 이·착륙 및 저고도 비행시 양력을 얻기 위하여 동체에 직각으로 위치할 것이다.

B-1B와 같은 미래의 전략폭격기는 적의 레이더 및 미사일의 위치를 확인 및 재밍할 수 있는 능력의 발전된 고출력 ECM 체제를 사용할 것이다.

만 사용할 것이며, 그 후에는 90°로 회전 항공기 동체상단의 등각의 위치에 각각 밀착되어 접혀지게 될 것이다.

엔진개조

Engine intake inlet에 대한 개조 및 농도가 보다 길은 고급연료를 사용하면서 항공기의 항속거리를 증가시키는(그러나 보다 깨끗한 배기가스를 발생시키는) 엔진개발이 현재 연구 중에 있다.

새로이 설계되는 Intake duct에는 기술상의 매우 비약적인 발전(Zigzag식 Tunnel 사용)이

통합될 것이다.

이 Intake duct는 적의 레이더에 각종 레이더 신호를 반사하는 대신에 Inlet내부 전·후로 각종 레이더신호를 반사하도록 설계를 한다.

ATB는 각종 지상기지 및 공중위협을 패배시키도록 설계될 것이지만, 기타 무기체제들도 상대국의 항공기를 포착할 수 있는 소련의 우주기지용 적외선감시체제를 무력하게 할 필요가 있게 될 것이다.

소련의 대부분의 레이더와 감시위성들은 미국의 공중발사 ASAT요격기의 항속거리 이내의 저고도에서 작전을 한다.

Stealth Fighter

미 공군은 Stealth폭격기의 개발 이외에도, Lockheed사에서 개발 중인 극도로 비밀로 된 Stealth전투기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U-2 및 SR-71정찰기의 성공적인 개발로, 고고도의 포착이 곤란한 항공기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체험한 Lockheed사는 3대의 Stealth 시제기를 시험비행하였다고 하며, 2만파운드급 전투기가 Nevada 사막과 Eielson 공군기지에 있는 비행장에서 비행을 하였다고 한다.

Lockheed사의 관리들은 이 문제에 대한 토의를 거절하였지만, 1979년에 각종 시험비행이 시작된 후 2대의 시험용 전투기가 파괴되었다고 하나, 이 파손된 항공기가 Stealth기술에 관계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한다.

한 국방성관리의 말에 의하면, 전투기 크기의 Stealth항공기는 기생산된 항공기보다도 장래의 ATB설계용으로 더욱 알맞은 Test-bed기라고 한다.

이 전투기는 각종 혼합물질의 사용으로 성취한 레이더파 흡수 및 편향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항공기는 Fibaloy(플라스틱판에 유리섬유물질을 혼합해서 짠 혼합물질)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물질을 사용하면 기체가 튼튼하고 가벼우며, 수송기에 적재하기에 아주 알맞게 소형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최신 순항미사일계획

미 공군은 지난 2월에 새로운 Stealth 및 최신 순항미사일을 생산하기 위하여, Boeing사와의 AGM-86B ALCM, 1,499발을 생산하기

위한 추가기금요구를 갑자기 취소하였다.

소련의 Look-down레이다가 발전되고, 새로운 ALCM Stealth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계획된 3,418발의 ALCM의 구입이 감소되게 되었다.

ACM(Advanced Cruise Missile)은 Tcal Dawn이라 부르는 DARPA계획에 따라 1980년에 시작한 기술을 사용할 것이다.

미 공군은 금년 봄에 1개 이상의 ACM개발 경쟁회사에 개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을 기대하였다. 경쟁회사들은 Boeing사와 Lockheed사 및 General Dynamics사로서, 이 회사들은 지상 및 해상발사 순항미사일의 주계약 회사들이다.

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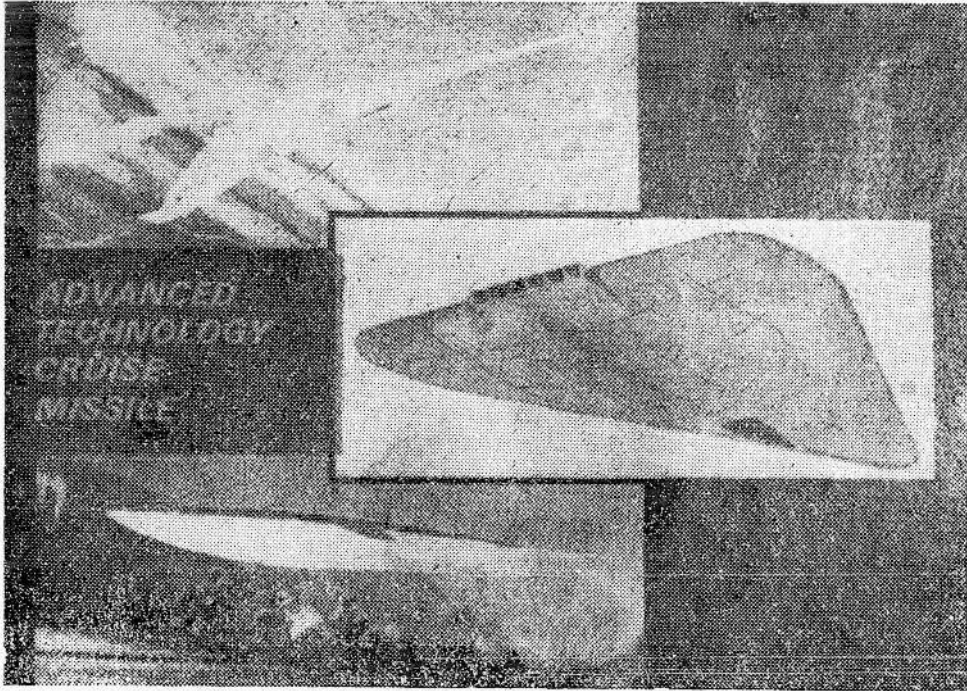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미 국방성은 "Black Curtain Program"의 일환으로 Stealth 순항미사일의 개발을 고려 중에 있다고 하며, 이 순항미사일은 William Internation사에서 제작한 플라스틱부품을 사용한 엔진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수년동안 DARPA에서는 현재의 최신 F-107 순항미사일엔진 보다 연료소모량이 적고, 항속거리가 더 길며, 추력이 보다 우수한 최신순항미사일엔진 제작을 평가하여 왔다.

고온 소부품조립을 위하여 도금된 탄소물질을 사용한 복원력엔진이 DARPA에서 또한 연구 중에 있다고 한다.

이 두 엔진은 ACM의 항속거리를 지금의 AGM-86B의 1,500마일에 비하여 6,000마일까지 증가시킬 것이 확실하다.

이와 같은 장거리가 성취되면 미국은 미국 내에서 소련 내의 각종 목표물에 미사일을 발



“사진설명”

순항거리가 6,000마일인 최신 순항미사일이 미 공군의 AGM-86B와 대치하기 위하여 Lockheed사와 Boeing사 및 General Dynamics사에서 연구 중에 있다.

최신 순항미사일은 개량된 엔진과 혼합물질로 된 기체 및 새로운 유도체제를 사용할 것이며, 이는 순항미사일이 소련 방공구역으로 기동하기 위한 것이다.

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은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구라파에서 전방기지 지상발사순항미사일의 필요성이 없게 될 것이다.

ACM에 Stealth기술을 이용하기 위하여, 계약회사들은 여러 가지의 대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계약회사들은 레이더신호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미사일 내부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최신유도체제를 개발하거나, 미사일이 저고도로 소련영공을 침투할 수 있게 하거나, 미사일이 적의 레이더와 미사일을 포착·회피할 수 있게하는 자체 ECM의 사용 등을 평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수년동안에 소련의 방공레이더체제는 향상되어 왔지만, 저속비행 ACM은 소련의 방공레이더망을 피하여 목표물에 도달할 것이라고 국방성관리들은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DARPA에서는 목표물지역에 대한 Radar masking, clutter, 전파 data, 및 IR Background data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련의 순항미사일의 침투평가시험을 실시하여 왔다.

이와 같이 장거리에 있는 목표물로 ACM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 공군은 소형의 NAVSTAR GPS위성수신기를 ACM에 장치할 수 있다. GPS신호는 임무 중 계속 수신할 수 있으

며, 미사일의 정확도(16m)를 기할 수 있다.

미사일을 소련방공지역으로 유도하게 할 수 있는 통합 Terminal/homing/inertial navigation System이 ACM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재 연구 중에 있다.

미 공군은 어느정도의 ACM을 구입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1980년대 중엽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수년동안에 1,500~3,000발의 미사일을 구입하려 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사실상 1978년 초부터 “보이지않는 항공기(Stealth항공기)”의 시제기를 시험비행 중에 있었다. 이 항공기는 여러 가지 형이 있으며, 유인형과 무인형 등이 있다.

이 계획은 최고의 극비구분으로 분류된 “Stealth계획”으로서 정부요원 중에서도 그 세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고작 20~30인 정도이고, 또 이것을 조종하는 조종사 수도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평가자료는 축적되어가고 있으며 10년 이내로 미 군용기에 거의 10%는 “Stealth” 시스템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항공기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성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현재의 전 방공시스템을 거의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론치 및 실험한 데이터로 미루어보아 Stealth항공기는 최근에 기술적 진보를 한 것 중 상위의 3위 내에 있으며, 아마 잠재적 군사력으로는 제1위가 될 것 같다.

미 국방성 고위관리들은 이것을 순항미사일과 작전용 고에너지·레이저병기보다 중요한

기술혁신이라고 보고 있다.

시험 중의 시제기는 유인형이고 아직 작전가능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종래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7~10년이 소요되는 것을 볼 때 보다 조기에 초기작전능력을 구비하게 될 것 같다.

Stealth항공기가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적의 방공시스템을 제압한다면, 최근에 취역한 F-15 및 F-16전투기의 유효성은 현저하게 증대된다.

“Stealth”의 성공은 현재의 방공시스템을 거의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소련은 방공의 기능을 포기하든지, 또는 현 시스템을 개량하는데 수백억불의 막대한 투자를 하든지 하는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라고 한다.

미 국방성은 신항공기의 은밀침투성능에 자신을 갖고 있으며, 현재의 개발노력은 오히려 경비와 항속거리의 증가에 더욱 쏠리고 있다.

그리고 어떤 형의 Stealth항공기의 생산이 인가될지 알 수 없으나, 제공 후는 요격기와 대지공격기 및 정찰기 등은 구조상 중대한 차이가 있다.

Stealth기술에 대해서는 비동맹국에도 아직 아무 것도 알린 바가 없으며, 또한 신기술의 공여에 대해서도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아직은 개발 시험단계에 있기는 하나 Stealth기술이 전면 개발되어 전략폭격기, 전투기 및 순항미사일 등에 크게 사용될 경우, 적의 방공능력은 무력하게 될 뿐 아니라, 항공작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재만화>

보라매日記

<정 윤섭>



精神戰力 強化로

最精銳部隊 이룩

中 領 정 학 수

<제 3659 부대>

1. 서 론

본인은 '79년 1월, 초대 제17무장탄약정비 대대장에 보임되었다.

당시 비행단은 활주로 및 주기장만 완공되었을 뿐 기타 숙영 및 정비시설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도로포장도 되어 있지 않아 밤에는 땅이 얼고 낮에는 녹아 장화 없이는 다닐 수 없는 실정 속에서 단 몇 명의 인원만으로 임시 가건물에서 업무를 시작해야만 했다. 대대창설을 위한 인원, 장비, 탄약 수송계획 수립과 대대건물 신축공사 감독까지 수행해야 하는 분주한 상황하에서도 본인은 어떻게 하면 최정에 무장탄약 정비대대를 이룩할 것인가에 대해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 정신전력 강화

둘째 : 완전무결

셋째 : 교육훈련의 강화

네째 : 인화단결

이런 대대통솔방침을 내걸고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출신수범의 복무자세로 말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일면 작전지원과 일

면 건설이라는 명제아래 안전, 정확, 신속이란 대대구호를 제정하여 전장병에게 제창하게 하였으며, 대대간부 요원들을 몇 개 분야로 나누어 일부는 비행훈련에 따른 무장탄약지원에 총력을 경주케하고 다른 일부요원은 대대건설에 참여하게 하여 만 2년동안 전장병들이 휴일도 없이 불철주야 땀흘린 결과로 '80년도 대통령각하를 모신 화력시범대회에 공군을 대표하여 공대지 유도탄의 신뢰도를 온 국민에게 과시한 바 있었으며, 작전사령부 주최 승공작전에서 최우수부대로 선정되기도 했다.

'81년도에는 비행단 주최 대대별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였고 정병지도 평가, 내무검사, 부대훈련 경연대회, 지상사격대회 등에서도 최우수부대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작전사령부 주최 각 비행단대항 무장장착 경연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획득하는 등 각종 대회를 석권할 수 있었음은 본인을 중심으로 대대 전장병 및 군무원이 일치단결하여 노력해온 결과라 생각하며, 평소 본인의 의지로 최정에부대를 이룩하기까지 노력해온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본 론

가. 정신전력강화

(1) 자대 정신교육과정 운영

여러 창설부대와 마찬가지로 대대 구성원은 각 부대에서 차출되어온 요원으로 전입 회당요원과 타의에 의한 전출요원 및 신병으로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개인의 성격이 다르고 군기강 및 직무지식의 수준이 낮아 대대를 지휘하기에 무척 어려움이 많았으며, 사기도 침체된 상태였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정신전력강화를 위한 자대 정신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였다. 이 정신교육과정의 입과 대상은 국군정신전력학교, 공군정신교육원 및 비행단 정신교육과정 미수료자로서 사고잠재요인이 있는 사병을 선발했으며, 교관요원은 단지휘관 참모의 협조와 대대장교중 정신교육과정을 이수한 중대장요원과 근무경력이 풍부한 준사관으로 선정하여 실시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확고한 국가관, 투철한 반공사상 및 필승의 군인정신을 생활화하여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질을 향상시키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사기를 진작시켜 왔다. 따라서 교육 이수자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주의적 생활에서 탈피하여 대대주인의식과 창설 요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일면 작전, 일면 건설이란 대명제를 무난히 성취할 수 있었다.

(2) 명상의 시간 활용

고대 중국의 손자는 『정신전력이란 장병이 지휘관과 더불어 뜻을 같이하는 상태이다』라고 지적하였듯이 지휘관의 역할이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미치는 영향은 전쟁의 승패에 직결된다고 판단하여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연

구 노력한 결과 명상의 시간을 착상하여 명상의 녹음 테이프와 자성회를 갖게 되었다. 명상의 시간은 취침나팔이 울리면 전 영내사병들은 침구 속에 들어가게 되며 이때 사전에 선정된 인원이 전일 생활반성 내용을 낭독하도록 했다.

온종일 바쁜 일과 중 기상하면서부터 내무반에서 있었던 일을 비롯하여 직장에서 상부 지시사항을 비롯한 비행안전 지상안전을 고려한 무장전자분야의 업무 수행은 고도의 안전성과 정밀하고도 정확한 업무수행이 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비행업무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공군의 특성인 신속성이 요구되므로 정말 실새없이 분주한 일과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야간비행 지원까지 하느라 피곤이 겹치게 되며 각종 교육훈련과 작업, 그리고 내무생활까지 곁들이면 일과가 지루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하루의 생활 속에 회로고락의 이야기와 착한 일과 잘못되었던 일들, 좋은 일과 슬픈소식 등을 일일 자성회를 통하여 구김새 없이 솔직하게 대대전우들에게 들려 줌으로써 본인은 물론 전 영내 사병들이 자신에 비추어 일일 생활반성의 기회를 갖게 된다. 이때 은은히 들려오는 명상의 녹음 테이프 소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막론하고 허영과 갈등, 믿음과 사랑, 자신의 삶에 대하여 오늘의 잘 잘못과 명일의 생활자세를 각자가 설계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군의 사명과 군인정신을 함양하게 되는 것이다.

(3) 주제발표 경연대회를 통한 정신교육의 생활화

미국의 실존주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행동에 따라 습관이 이룩되며 습관이 오래 계속되면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하고 그사람의 성품은 곧 자기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이론을 지휘관리에 적용하여 지휘관이 대대 장병 각자에게 일정한 주기로 기본정훈 및 안보 홍보 활동의 일부 중에서 대대업무 및 병영생활에 유익한 주제를 부여하여 개인의 사고력으로 기지도서관 또는 대대 독서실에서 여러 가지 참고도서를 인용하여 사전 원고를 준비한 다음, 토요일 정신교육의 날에 국방부 지도 지침서에 따라 주제발표회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발표회를 통하여 발표 내용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며 우수발표자에게는 포상과 특별휴가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경쟁심을 길러 다른 전우에게 지지않고, 포상의 기회를 서로 갖고자 하는 의지를 바탕으로 필승의 신념을 대대원 전원이 갖도록 하며 이러한 주제 발표회를 통하여 정신교육을 생활화 할 수 있었으며 비행단 주제발표 경연대회에서도 우승의 영광을 갖게 되었다.

나. 안전무결 운동 전개

(1) 안전무결 기수 및 우수중대 선발제도 운영

병영생활에서 각종 사고요인을 발본색원하여 안전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년 365일을 비행사고, 폭발물사고, 지상사고(화재, 총기, 교통), 군기유해 등 인적과실로 초래되는 결과를 사전 예방하고 항공기 정비결함을 최소화하여 대대 임무지원의 내실화와 무사고 365일을 수립하기 위하여 안전무결 포상제도를 운영하였다.

무사고 365일 운영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JULIAN DATE로 날짜가 표시된 계

시판을 중대별로 게시하고 매일아침 조회를 통하여 그날의 일자에 맞는 무사고 ○○○일을 제창하게 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당일 JULIAN DATE를 정지하게 하며 다음날 무사고일에 날짜를 넘길 수 있도록 하면 연말에 365일을 도달하지 못하는 중대는 완전무결 우수중대가 되지 못한다.

매일 계속되는 병영생활에서 대대 전장병이 스스로 준법정신을 가지려고 하며 많은 직무에도 책임을 다하겠다는 사고방식으로 나 한 사람이 잘되면 중대가 잘되고 더 나아가 대대 무사고 365일을 수립할 수 있다는 책임의식을 갖게하므로 각종 사고방지는 물론 우리의 주업무까지 결함을 감소하여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대대창설 초기에 만5천여톤의 탄약을 한건의 사소한 결함없이 안전하게 수령 저장하였으며 대대장직을 후임자에게 물려줄 때까지 사고없는 대대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2) 100 Sorty 무사고제도 운영

현대전에 있어서 전술기의 용도는 무기운반의 수단이라 하겠으며 공중전의 승패는 고도의 정밀도와 정확성을 갖춘 유도 전자무기의 신뢰도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투기에 무장되는 각종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유도전자무기의 발사시험은 항공기가 결함이 없어야 비행할 수 있으며, 조종사는 정확한 지점에 명중시켜야 하며 이때 무기의 성능이 발휘되도록 잘 정비되어야만 비로소 무기의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편성팀의 경쟁심과 무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격지원 100 Sorty 무결함 중대 및 분대를 선발하게 되었으며, 평가 기준은 장착된 무기는 성공적으로 투하

및 발사되어야 하며 지상 및 공중결함은 물론 비행사고 폭발물 사고가 없이 무장지원한 실적 100 Sorty를 나타내야 하며 품질검사관의 평가에 미흡사항이 발생하면 중도에 탈락하게 되며 그때부터 다시 업적을 수립해야 한다.

일차 수립된 분대는 대대표창하고 계속해서 200 Sorty 이상 지원부서는 표창상신하는 제도를 적용한 결과 '80년도 화력시범대회에서 온 국민에게 공대지 유도탄 AGM-65의 명중도를 과시한 바 있으며 작전사령부 주최 승공작전에서 최우수부대로 선정될 수 있었다.

(3) 신상파악을 통한 인적사고 예방

인간의 공동심리 중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자기도 관심을 갖기 마련이며 때로는 그를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휘관과 부하장병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하에 대한 지휘관의 관심도라 하겠다.

상하 상호간의 좋은 인간관계가 맺어진다면 부하의 신상파악은 물론 개인의 고민 사항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진정한 일체감도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본인도 상담기법을 활용하기로 해, 이곳에 배속되어 1개월 정도 병영생활을 한 장병과 개별상담 시간을 가져보면 개인신상은 물론 부대 병영생활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며 또한 다른 방법으로 소속중대를 고려하여 동 계급, 동 기수, 또는 직책별로 필요요원을 선별하여 수요간담회를 마련하여 매주 수요일 집단 면담을 해보면 상하, 소속별 및 특기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게 된다.

직접적인 면담방법으로 신상파악 카드를 작성 비치해 두고 수발되는 서신 일체를 통제하

여 주소, 성명 등을 기록해보면 자주 왕래하는 서신이 동일인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그 서신 내용을 검열해보면 그 사람의 가정환경, 이성관계 및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반면 건전한 생활과 생각을 하고 있는 점도 알 수 있다.

면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통제 분석해보면 동일인이 자주 면회 오는 것을 보면 그 당사자는 올바른 병영생활자세를 가지지 못하고 낭비와 복잡한 사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담한 결과로 인적사고 요소를 사전 발견하여 대화로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선도교육을 통하여 사고 예방을 기할 수 있었다.

다. 교육훈련의 강화

(1) 반복적인 관속 훈련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장은 50여가지의 탄종을 장착할 수 있으며, 탄종에 따라 수십발씩이나 탑재할 수 있는데 장착위치마다 탄종이 달라 대량의 무장과 복잡한 작업절차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반복교육과 훈련이 요구되며, 특히 공군의 무장은 고도의 안전성과 투하의 정확성 및 공군의 특성인 신속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무장사는 일정한 주기로 충원과 유출이 되므로 교육훈련도 이와 병행해야 한다. 초도 배속된 무장사는 1개월동안 전 탄약의 장착교육을 이수한 후 실무에 종사하게 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반복교육과정에 재입과하여 일주일 동안 무장장착 관속훈련에 돌입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평소 비행훈련시 실무장 투하훈련이 계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전에 대

비하기 위하여 모의탄약으로 실습하게 되므로 곧 전시의 안전, 정확, 신속한 무장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한 결과 '81년도 작전사령부 주최 무장장착 경연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여받게 되었으며 무장사의 정예화는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2) 창안제도의 적극 활용

공군은 고가의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품구매 및 수리업무는 대미 의존도가 높아 장비유지비가 소요예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장병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절차 개선 정비기술 향상에 노력하고 창안제도를 적극적으로 장려 활용함으로써 대미 수리의존 부품을 기지수리화하여 신장비 도입 역제는 물론 손실항공기의 잔여 자재를 활용하여 최소경비로 모형 항공기를 제작 활용함으로써 평소 비행 훈련관계로 무장장착 훈련을 위한 교육용 항공기 배정이 어려웠으나 창안으로 제작한 모형항공기는 실제 항공기와 같이 전 무장장착이 가능하며 전기회로마저 실제와 같이 구성하여 무기 투하 및 발사시험까지 할 수 있어 무장사의 교육장비로 활용함으로써 기술향상 및 무장장착 훈련의 정예화를 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창안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외화를 절약함은 물론 기술축적을 도모하게 되어 경제적인 부대운영을 기할 수가 있었다.

라. 인화단결

(1) 부대환경개선

창설부대로서 기존건물 이외 주변 정리작업을 비롯한 부수시설은 예산부족으로 기본 설계에 포함되지 않고 대대 자체사업으로 해결해야만 했다. 또한 새로 신축되는 생활관이나

정비시설은 향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할 건물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내부반 및 직장환경을 잘 정리해 보려고 계획하여 건물 주변에는 정지작업, 잔디조성, 화단조성 및 운동장 설비를 비롯하여 내부반에는 독서실과 휴식실 및 당직실 설비를 갖추어 일과 후 영내사병의 안식처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일과 중에는 영의 장병들을 위한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는 탈의장 및 오락시설을 갖추어 비상대기 및 작업대기를 기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갖추어서 장병들의 사기를 드높일 수 있었으며 상경하에의 정신으로 지휘관과 대대원간의 대화로서 이루어진 분위기 조성은 곧 대대원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었다.

(2) 여가선용 및 취미활동 전개

이와 같이 부대 환경개선으로 인하여 대대장병 각자가 여가를 선용할 수 있었으며 개인의 취미생활을 보장해 줌으로써 사기가 증진했다.

향후 진학 및 복학자에게 열심히 공부할 분위기를 마련해 주고 해외교육 희망자에게는 영어회화공부를, 기타 국가고시 자격취득 및 제대 후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도 공부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며 일과 후 또는 휴무시에는 개인의 소질을 참작하여 군가반, 태권도반, 웅변반, 자격반 등 전장병이 각기 다른 과외활동반을 편성하여 취미활동을 전개한 결과 대대 대항 각종 경연대회에서 무적의 팀으로 부각되면서 우승을 독차지 할 수 있었고 일인일자격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대대원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대대 전장병의 사기진작은 물론 대대원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3) 체육활동의 전개

전투비행단 장병들은 휴무일이라도 완전 휴

무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휴무 일에는 반드시 사전 편성된 일부 인원은 비상 대기로 출동하게 되어 있으며 출근한 인원은 정비를 비롯한 상부지시 비행임무 지원을 일부 수행하면서 하루종일 대기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기 마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대대원에게 각종 취미체육종목을 선정하게 하며 비상대기조 편성시에도 이를 고려하여 운영하면서 체육활동을 평소 꾸준히 전개시켜 보았다. 야구, 축구, 배구, 탁구, 정구 및 기타 육상부의 활동성과는 처음 시작시에는 보잘 것 없는 것이었지만 차츰차츰 향상되어 얼마 후에는 체력연마를 통한 Team-Work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려는 전우애가 돈독하게 되었으며 투지는 사나운 맹수 이상으로 운동장을 누빌 수 있는 팀으로 성장되어 비행단 내 각 대대 대항 체육대회에서 연우승을 기할 수 있었으며 우승을 통한 사기진작 및 대대원 단결력은 무엇에도 비할바가 없었다.

3. 결 론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제도 및 절차를 보완하고 새로운 지휘관리 기법을 적용한 결과 황무지의 땅을 개간하여 제17부장탄약정비대대를 창설했으며 더 나아가 창설 비행단의 초석이 되는 최정예 부대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솔선수범하는 자세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결과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기로 한다.

가. 정신전력의 강화

자대 정신교육을 통하여 대대원의 주인의식과 창설요원으로서의 사명감을 인식시켰으며 명상의 시간 활용으로 군인정신을 함양시켰고

주제발표 경연대회를 통하여 정신교육을 생활화함으로써 대대원 전원이 필승의 신념을 갖게 되었다.

나. 완전무결

완전무결 기수 및 우수중대 선발제도 운영으로 폭발물 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예방을 기할 수 있었으며 100 Sorty 무결함 제도를 적용하여 무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반면 개인 신상파악을 통하여 인적사고 예방을 기함으로써 무위의 전력손실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다. 교육훈련의 강화

반복적인 관속훈련과 창안제도를 적극 장려하여 무장사의 기술향상 및 무장장착의 정예화를 기했으며 병력의 유출과 충원으로 야기되는 기술공백을 메울 수 있었다.

라. 인화단결

사명감으로 창설부대의 환경을 조성하고 이상적인 복지시설로 장병들의 사기를 드높일 수 있었으며 여가선용으로 취미활동을 전개한 결과 각종 대회 우승과 모범부대를 이룩할 수 있었으며 체육대회를 통한 전우애 발휘는 물론 대대단결을 도모할 수 있었으며 전 대대원이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휘관이 갖게 되었고 윌리엄 제임스가 제창한 바와 같이 『인간은 생각에 따라 행동하고 행동에 따라 습관이 되며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그사람의 성격형성과 운명을 결정한다』는 이론과 같이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기필코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下士와 兵의 關係定立

— 意識構造 改善을 中心으로 —

中 領 金 厚 植

<空軍本部>

제 1 장 軍에 있어서 하사관과 병의 역할의 重要性

제 1 절 下士官의 역할

하사관의 역할은 軍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군인복무규율 시행세칙에서 보면,

“하사관은 軍의 초급간부로서 兵과 生活를 같이 함으로써 그의 모든 言行은 兵士에게 직접 영향을 주게됨을 自覺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下士官은 임무수행에 있어서 자신이 항상 명령과 法規를 忠實준수하여 兵에게 모범을 보이고, 또 그들의 心상을 파악하여 선도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將校와 兵間의 교량적 역할을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실무수행하는데 있어서 하사관의 역할을 國防 임무수행에 달리는 열차에 비유한다면, 將校는

기관사의 역할을 兵은 짐을 실은 화차에 해당되며 하사관은 기관과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사관의 역할을 잘 활용한 군대로서는 2차대전 초기의 日本軍隊를 들 수 있고, 당시 전쟁수행의 주된 역할을 하사관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이다.

제 2 절 兵의 역할

“兵은 國民의 한사람으로서 신성한 國防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당과 보람을 가지고 항상 軍人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명령에 복종하고 法規를 준수하며 心신을 단련하여 조국과 民族을 위하여 즐거이 몸과 마음을 바침을 지상의 명예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下士官과 兵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스스로 실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建軍초기를 제외한 많은 기간동안 하사관과 兵 간에는 갖가지 형태의 잡음을 안고 있었다.

제 2 장 하사관 모집제도 및 하사와 병 關 係의 변천과정

제 1 절 하사관 모집제도

건군초기, 공군에서는 하사관 모집제도가 별도로 있지 않고 병 중에서 기술하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선발되어 하사는 군대생활의 경력이나 나이, 모든 면에서 병을 거느리고 일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1958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하사관 선발제도는 2년간 병생활을 마친 후 하사로 임관하는 제도였으며, 하사관 13기(63. 1. 1.)부터는 하사관후보생 제도를 택하여 하사관후보생이 병장계급과 대우로서 교육기간 포함하여 1년 6개월 예하부대 생활을 거친 후 하사로 임용되었다.

그후 하사관 79기(75. 10. 1)부터는 다시 제도가 개선되어 단기 기술 하사관제도라하여 6개월간의 교육을 받은 후 바로 하사로 임관하는 제도가 채택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또한 72년부터는 기술고등학교, 76년도부터는 금호공고 졸업생 임용 등 선발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제 2 절 하사와 병 관계의 변화

50년대 후반의 하사와 병의 관계를 살펴보면, 하사는 하사로서 대우보다는 병에게 상당히 위축된 가운데 생활하였으며 심한 경우는 사생활까지도 간섭받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되다가 70년대 후반부터는 장교나 영외하사관의 눈에는 띄지 않는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근래에 와서 많이 개선된 것 같이 보이나 은폐된 가운데서 아직도 하사와 병 간에는 계속적으로 갈등으로 인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최근의 군내 강력법 발생추세의 분석결과를 보면 하급자인 병장이 상급자인 하사를 폭행한 사실이 78년도 0건에서, 79년도 6건, 80년 11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작금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많은 사고가 은폐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제 3 장 현재의 실태

제 1 절 병의 하사관 무시풍조

일반적으로 사회인들은 군에서 하사관으로 장기복무하는 것에 대해 좋지 못한 인식이 지금도 잔존하고 있다.

구한말 및 일본 식민통치하에서 일본군에 대한 악감정이 현재 현역병사들의 부모정도의 세대 이상의 노년층에게 아직도 기억에 살아 있고 6.25사변을 통하여 고생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당시의 현역으로 또는 부역에 동원됐거나 목격한 주민들은 모두 기억에 생생하여 국가방위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군대의 중요성이나 군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지금도 일부 국민을 제외하고는 정확히 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6.25가 종전되고 국가의 살림살이가 빈곤하여 생활여건이 좋지 않을 당시 사회진출의 길이 넓지않아 군에 하사관으로 장기복무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정적 여건이 좋아서 사회진출을 하는 사람들은 당시 장기복무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을 저자는 어릴 적에 들은 적이 있다.

이러한 연고로 병의 세계에서는 아직도 경

제적, 가정적, 학력적 여건으로 하사관을 무시하는 풍조가 여실히 잠재하고 있다.

제 2 절 연령, 학력면에서 병의 우위

병역의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군에서 선발한 병은 전문대졸 23%, 대졸 18%로서, 고졸이 47% 밖에 되지 않아 학력수준이 높은 반면 하사의 학력수준은 77%가 고졸로서 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실태이며, 그 수준의 학력을 위한 교육기간으로 미루어 볼 때 병에 비해 연령적으로 낮은 분포를 하고 있다.

더구나 단기 기술하사관 제도에 지원한 자원은 대개 고교졸업 후 입대하여 6개월간 교육 후 임관하였고 기술고등학교 금호공고를 졸업 후 임관한 하사는 연령 분포가 더욱 더 낮다.

더구나 중사진급 대상자 선발기준이 2년(24개월)이므로 병이 35개월만에 제대하기전에 중사로 진급하여 영외생활을 하게 된다.

제 3 절 하사의 자질

하사는 연령적으로 어리고, 학력적으로 병에 비해 부족하며 더구나 병 선발기준 중 자격

증 소지자 우선선발 및 동일 조건일 때 고득점자(대체로 고학력자와 일치) 우선 선발하고 있어 자질을 학력과 기능 수행 능력면에서 볼 때, 병에 비해 열세에 있으며 실무경험이 있는 고참병과 실무경험이 없는 선임하사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같은 과정을 거쳐 성장한 준사관 및 영외하사관의 눈에 비친 하사의 모습과 병의 눈에 비친 하사의 임무수행 능력 및 직무지식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또한 이렇게 부족한 자질로써 맡겨진 임무수행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노력하는 경향이 장교가 볼 때 27%, 준사관 및 영외하사관이 볼 때 43%를 제외한 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력을 하는 경향이 일부 있으나, 대개가 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거나 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유시간을 활용하는 하사의 태도로 보아 직무수행을 위한 자기능력개발이 우선순위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설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맥그리거"의 x.y이론 중 x이론이 우리 주변에서 실증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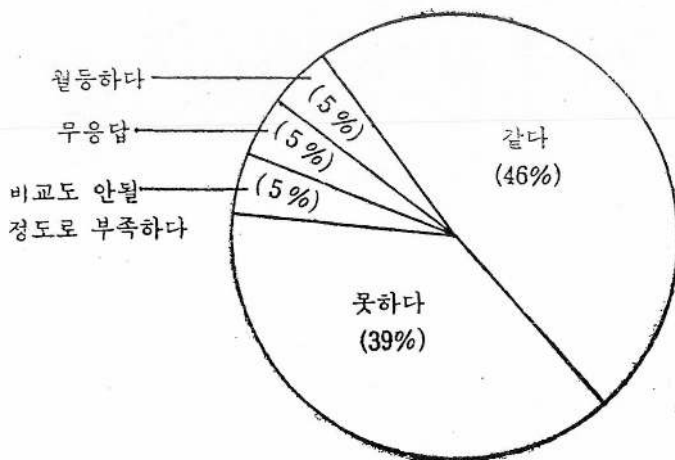
준사관 및 영외하사관이 본 하사

질문 : 내가 하사 때보다

모든 것에 대하여 모른다	13%
임무의식이 없다	60%
임무의식이 투철하다	19%
마찬가지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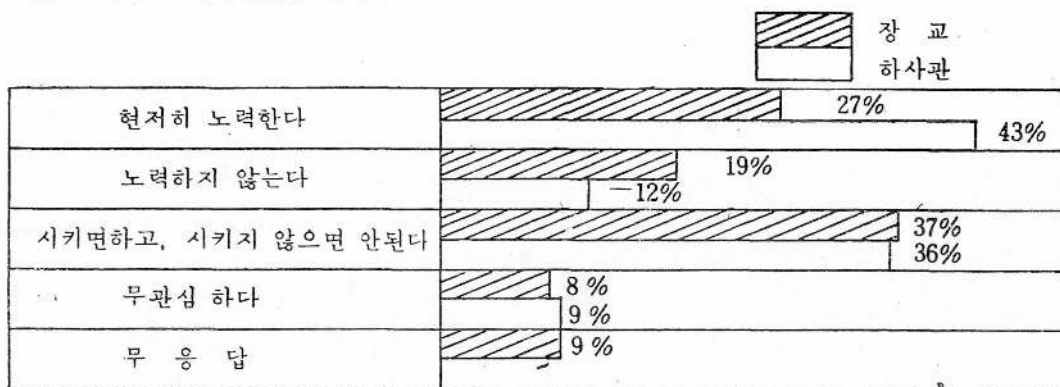
병이 본 하사

질문 : 하사의 입무수행능력 및 직무의식이 병보다



하사의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

질문 : 하사는 자기발전을 위하여



제 4 절 하사의 하사관 지원동기

일반적으로 하사관은 직업군인으로서 국가관과 민족관이 투철하고 장기간 국가방위에 헌신할 각오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하사의 하사관 지원동기는 너무나 이점과 동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동기를 살펴보면 절대다수가 병역의 의무를 필하기 위한 수단으로 택하였고 진정 필요한 국가방위를 해야

할 사명감으로 택한 사람은 고작 34%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군에서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28%가 하사관생활을 하고 있으며 서약기간이 끝나면 제대할 사람이 48%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어 하사관 자원관리 및 획득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

제 5 절 하사와 병의 관계

하사는 계급위주로 병은 경력위주로 상호간을 평가 및 대우하고 있으며 상호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가로막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양측층이 비공식 집단화되어 상대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주는 압력 단체의 역할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병이 하사를 보는 관점에 대한 설문에서 하사는 무조건 싫다로 4%가 응답하였다.

이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일부 병들이 맹목적인 적대감으로 상대를 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병은 후배인 신병이 예하부대 배속 후 병의 집단에서 계승되어오는 하사 무시풍조를 전통화하기 위하여 신송하는 것이 마치 입무인양 오인하고 있다. 하사를 보는 관점에 대한 설문에서 계급에 따라 대우한다는 응답이 신병은 32%에서 신병을 제외한 병은 17% 감소되어 나타나 고찰이 되면 될수록 심화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사의 눈을 통해 본 병의 경계태도, 언어는 정상적이라 볼 수 없고 특히, 하사에 대한 대우를 잘한다가 1%에도 못미치는 한사람 밖에 응답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하사가 병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이 계급의식에 따른 대우라 하겠다.

제 6 절 하사의 병에 대한 불만

군에서 모든 대우의 기준이 계급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하사를 대할 때 적당히 대우한다.

대우하기 싫다 또는 무시한다에 응답한 병

이 8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하사는 계급적으로 상급자임에도 병에게 양보하는 경우도 병이 하사에게 양보하는 것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관계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7 절 병의 하사에 대한 불편한 감정

1. 훈련병 시절

피 교육자 시절에 조교 또는 교육사의 기간사병들로부터 교육 중 또는 A, B지구를 왕래하면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물리적인 제재를 받은 경험으로 인해 하사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훈련병 시절에 많이 당했다는 문항을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한 것이 15%를 차지하였다. 또는 훈련병 시절부터 하사를 싫어하고 있는 것이 27%, 많이 당했다가 43%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하사의 신병을 대하는 태도 및 하급자의 피해의식

하사의 후배인 신임하사를 대하는 하사의 태도가 신병을 대하는 방법과는 다른데서 격리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대화하는 방법을 보면 하사에게 당한 결과를 병끼리 전파하고 하사는 병에게 당한 적이 있다면 하사끼리 전파하는 성향으로 나타났듯이 이러한 면에서는 계층간에 동질성을 찾을 수가 없다. 더구나 하급자인 병으로서는 신병에 대한 대화를 비롯한 각종 대우가 좋지않다는 피해의식 속에서 자기 방어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3. 무시당하는 기본권(인권)

제도적으로 상급자 우선인 군조직의 특성상

으로 볼 때 상급자는 월권하기가 쉽고, 하급자는 책임과 의무만 맡은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하사가 사용하는 말과 지적 또는 지시에 태도가 거칠고 심지어 사적 지시를 행하지 않는다고 병이 당하는 경우가 3명 중 1명꼴로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장된 각자의 인권을 무시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4. 영외하사관의 편견

업무처리 지시 또는 하사와 병간의 시비사항에 대하여 상급자 중심과 하사중심으로 해석하고 해결 또는 지시하는 공정성을 잃은 처사가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병에게 질문한 설문에서 74%가 병에게 불리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이 하사관과 병이라는 양 계층간에 상호 불신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5. 하사의 직책수행 능력

병이 볼 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 또는 같은 하사에게 군 당국의 대우 중 하나인 월급을 근무 성과에 비해 많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내무생활을 하면서 그 사생활면에서 볼 때 직무에 대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하사의 모습을 볼 수 없고, 당국에서 대우 받는만큼 일할 능력이 있는 하사가 되기 위해 자기 발전에 관한 노력보다는 무관심한 것으로 보아 병과 하사는 대우상으로 동일시하고 있다.

제 8 절 육·해군과 비교

1. 각 군별 특수성에 따른 하사관이 역할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사와 병의 관계 정립을 위하여 장교에게 질의한 설문

응답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해군(80%)과 공군(40%)은 등급이 높은 인력자원에 관심이 가장 많고 육군은 20%에 지나지 않으며, 육군장교의 80%가 하사가 병을 통제할 수 있는 실권 부여를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군, 해군은 하사관이 기능 수행을 위한 실무자로서의 비중이 크고, 육군은 소단위일지라도 집단을 리드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2. 그리고 지금의 준사관 및 영외하사관이 하사시절에 나타난 병과 하사의 갈등은 타군에 비하여 공군이 심하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사의 입대동기에 나타난 국방에 대한 사명감은 타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그러나 병들의 하사에 대한 대우는 공군과 타군이 유사한 점도 많이 있으나 하사가 응답한 “병의 하사에 대한 대우”에 관한 설문에서 좋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제 4 장 문제점 도출

이상에서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에 수반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계급의식이 결여

2. 지휘통솔상의 무질서

내무반장, 기지방어, 각종 작업 등 하사에게 주어진 직책을 수행할 때 병의 선임자가 Hidden Leader로 영향력을 발휘할 때에는 지휘통솔의 무질서를 초래한다.

3. 인화단결의 저해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단결된 것 같으나 실질적이고 내면적인 면에서보면 계층간에 이질

적인 요소로 인하여 단결될 수가 없다.

더구나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던 분화된 형태일지라도 어려운 경우나 궁지에 처하면 심화된 상태로 나타나 기능적인 집단인 공군조직의 특성으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인화단결에 저해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4. 사기에 악영향

각 계층 상호간 내재된 불만 불신으로 인하여 진정한 단결을 통한 사기양양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승의 절대적 요소인 사기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인한 전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5. 감정적 업무처리

의형적이고 공개적인 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하여 서로가 상대 계층에 속하는 대상에게 불리하게 또는 나쁘게 처리할 수 있다. 대개는 정당한 처리를 하나, 하사 20%, 병 34%가 상대계층의 대상자에게 나쁜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는 별로 높은 율이 되지 않으나 문제가 발생될 요인으로 도사리고 있는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6. 대형사고의 잠재적 요소

상호간의 불만과 불신이 잠재하고 있다가 음주, 우발적인 분위기, 공식적으로 곤란한 입장, 개인적인 사정, 가정환경상의 궁지 등의 원인으로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보복, 또는 총기난동사건, 살인, 강도 등의 형태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보복하고 싶다가 병 32%, 하사 15%로 나타나 있고, 상관에게 보고하여 정상적인 처리를

하고자하는 것은 병 8%, 하사 15%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상관에 대한 불신적 요소도 내재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계층끼리 전파하여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것이 병 39%, 하사 33%가 나온 것은 큰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제 5 장 대책 및 해결방안

제 1 절 부대훈련 및 교육강화

병보나 우수자원을 획득하여 양질의 하사관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현재의 여건으로 병의 학력 수준으로 볼 때 어려운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확보된 하사관 자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통하여 질적인 향상을 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부대 기본 훈련을 숙달시켜 하사와 병의 관계 정립은 물론 필승공군의 기초를 확립하고 제 공통일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대훈련 실시 결과를 각종 검열시 확인하고 우수부대 선발기준(일반 군사 훈련)에 적극 포함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부대훈련 및 교육시간 준수

기능적인 조직으로 구성된 각급부대가 기본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일반 군사훈련, 각종 부대훈련 및 교육, 직무교육, 정신교육 등이 각급부대의 고유기능 수행에 밀려 등한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언급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간에 꼭 주어진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고 특히 영내사병인 하사와 병은 일과표에 의해 17:00 이후 일지라도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 하리라 믿는다.

기본적인 교육훈련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고유 기능 수행에만 시간을 집중한다면 일시적인 성과는 달성할 수 있을지언정 인력자원의 고급화라는 긴 안목에서 볼 때는 사상누각과 같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런 시간을 통해 다음절부터 기술된 사항이 교육 또는 각자에 의하여 실천된다면은 문제점은 저절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정신교육강화

1. 국가관, 민족관 교육

실문에서 본 바와 같이 하사들의 의식구조 중에는 국가관, 민족관은 물론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기관 중 중·고등학교에서는 철학을 가르키고 있지 않다. 철학과 연결된 국가관, 민족관 군인으로서 민족수호의 투철한 사명감을 불어 넣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부대 정신교육원 교과과정 중에 이와 관련된 과목에 내용보강과 보다 많은 시간 배정이 요망된다.

2. 군인의 사명 및 군의 역할

군인복무규율 시행세칙에 의하면 국군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군인이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므로 정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3. 준법정신 및 군대예절

교육부대에서 기본군사훈련 교육과정에서

군법, 군대예절, 군인복무규율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준법정신과 양 계층간의 신분적 차이를 충분히 인식시켜 군생활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구조의 기초가 정확히 형성되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4 절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

1. 하사의 직무능력 향상

병에 비하여 각종업무수행 능력이 열세에 있는 하사로서는 상급자로서의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짧은 시간 내에 자질향상을 위하여 부대교육은 물론 자신의 발전을 위한 자기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경험위주, 실무위주의 능력 향상은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각 직장단위로 임명된 직무교육 교관의 철저한 교육과 교범(규정, 절차, TO) 윤독, 연구발표, 세미나 등 자발적인 참여 여건조성을 통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병보다 우수자원으로 양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합리적인 사고력 배양

동양적인 사고와 유교적인 사고에서는 합리성을 그리 많이 찾을 수 없다. 오늘날 서구의 부와 문화수준이 합리주의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성장되어 왔다. 우리 국민들의 사고는 나이 많은 세대의 가부장적인 사고에서부터 시작하여 젊은 층의 합리적인 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토착화되지 못해 정확한 이해와 실현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공중도덕부재상태이며 공사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고 상급자는 권한 행

사가 심하여 월권하는 일이 정당한 것인양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아랫사람을 오직 의무와 책임이 중과되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토인비」는 현대화의 과정에서 서구화의 모방이 아닌 반드시 토착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도 합리주의 사고 방식을 반드시 토착화 시켜야 한다.

교육해야 할 주요 요지는 공중도덕심 양양, 공사 구분의식, 권한, 책임, 의무의 균형. Hidden Leader의 활용 등을 주지시킴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기초를 다져야 한다.

3. 인간관계 교육

인간은 누구나 인생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원래 인간은 백인 백색이요, 천연 천색이기 때문에 각자의 성공관은 모두 다르다.

그러나 성공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던간에 누구와 같이 일하던지를 분분하고 똑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는 기법을 습득해야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있다. 이 성공과 행복의 공통분모는 바로 대인관계인 것이다. 오늘날 많은 연구 결과 대인 관계의 방법을 습득하기만 하면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그 성공률은 85%, 개인의 행복률은 99% 약속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학력과 출신성분 등이 어느 집단보다 광범위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할 뿐 아니라 특히 하사와 병간의 갈등 등을 감안해볼 때 군에 있어서 대인 관계를 통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사와 병과의 관계를 대인관계를 통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원숙한 대인관계를 통하여 인간관계 형성을 위하여 그 구체

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인간적인 대우를 한다.

○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 상대방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준다.

○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준다.

○ 상대방을 위해 내가 먼저 봉사한다.

○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한다.

○ 상대방의 말에 관심있게 귀를 기울인다.

제 6 장 결 론

우리나라는 지금 현대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고 이것을 토착화하기 위하여 국민의식 개혁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잘못된 의식구조는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언제부터 전래되어 왔던지는 불문하고 지금에도 하사와 병의 관계가 군대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계급별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불행스러운 일이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하사는 국가관, 민족관,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경력이 많은 병에 비해 연령적, 학력적, 직무지식, 경력이 짧은 하사 또한 열세에 있으나 상급자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

병은 마치 병의 세계에서 지켜져야 되는 전통인양 하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일시적인 해결책인 군기 문제로 국한하여 처방하여 왔으나 본고에서는 마음 속에 쌓여 있는 잘못된 의식구조를 제거 시킴으로써 완전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부대단위 교육사항으로 하사에 대한 민족관, 국가관, 사명감 고취, 합리적인 사고력배양을 대대단위로 실시해야 할 교육사항 및 실시사항으로 하사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각 신분별로 실시할 사항으로 장교, 영의하사관은 하사와 병의 관계정립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및 하사와 병은 잘못된 의식

구조를 고쳐야 될 내용을 제안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나누어 제도개선, 시설개선, 의식구조개신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의식구조개선을 중심으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제도개선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은 차기 과제 연구과제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努 力

뜻을 세워 공부하는 것은 마치 나무를 심는 일과 같다. 뿌리와 싹이 날 때엔 아직 줄기가 없고, 줄기가 생길 때엔 아직 가지가 없다. 가지가 자란 다음에야 잎이 달리고 잎이 달린 다음에야 꽃과 열매가 달린다. 오직 복돌아 기르는 노력만을 잊지 않는다면 어찌 가지와 잎이나 꽃과 열매가 자라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나?

王陽明<傳習錄 卷上>



隨筆



장수 와 女 難

李 銓 文

<조선일보·편집부次長>

흔히 장수들이 큰 싸움에 이기고 질 때에는 그 뒤에 그럴싸한 숨은 사연이 뒤따르기 마련이었다.

대개 무장(武將)들은 웅장한 장부가 많기 때문에 아리따운 미인으로 말미암은 얘기가 많았다.

일찌기(15세기) 홍 재상(洪宰相)이 아직 현달하지 못할 때 길을 가다가 비를 만난 적이 있었다.

산 속 자그마한 굴 속으로 달려 들어갔더니, 그 굴 속 집에 17~18세의 어여쁜 여자 중이 앞전하게 홀로 앉아 있었다.

『어찌서 혼자 있느냐.』

『세 여승과 같이 살고 있어운데, 두 여승은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 갔읍니다.』

마침내 그는 여승과 정을 통하고 약속했다.

『아무달 아무날 그대를 맞아 집으로 데려가겠다.』

여승은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마냥 약속한 날만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이 지나고 달이 바뀌고 해가 달라져도 그가 나타나지 않자 여승은 마음에 병이 되어 죽고 말았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가 나중에 절도사(節度使)가 되어 진영(鎭營)에 나가 있을 때였다.

어느날 밤 도마뱀처럼 생긴 자그마한 것이 그의 이불 위를 지나갔다. 아전을 시켜서 내던지게 했더니, 아전이 뱀을 잡아 죽여버렸다.

다음 날에 또 조그마한 뱀 한마리가 방안에 들어오기에, 다시 아전을 시켜서 죽이게 했다.

그 다음 날에도 계속 뱀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비로소 그가 전에 여승과 약속을 어긴 「빌미」가 아닐까 여기게 되었다.

연인을 그리워 하다가 상사병(相思病)에 걸려 죽으면 뱀이 되어 그 사람 곁을 따라 다닌

다는 진실은 옛부터 있는 얘기였다.

그래도 그는 자기의 위엄과 무용만을 믿고 뱀이 나타나는 족족 아주 없애버리려고 잇달아 죽이게 했다.

그런 뒤로는 매일 뱀이 나오지 않는 날이 없을 뿐더러 없애버리면 그 다음 날에 나올 때마다 몸둥이가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큰 구렁이가 되었다.

그는 영 내의 모든 군졸을 모아 모두 칼을 들고 사방을 에워싸게 했으나, 여전히 뱀은 포위를 뚫고 들어왔다.

군졸들도 들어오는 대로 다투어 찍어 버리거나 사면에 장작불을 지펴 놓고 뱀이 보이기만 하면 다투어 불 속에 집어 던졌으나, 구렁이는 없어지지 않았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밤이 되자 구렁이를 함 속에 넣고 방안에다 두고, 낮에도 함 속에 가두어 두었다가 순행을 나갈 때에는 사령에게 함을 짊어지워 앞세우고 다녔다.

그러자 그는 점점 정신이 쇠약해지고 얼굴 빛이 파리해 지더니 마침내 병들어 죽었다.

임진왜란 때 적군이 무인지경인양 물밀듯이 쳐들어오자 온 조정이 갈팡질팡하다가 판윤 신 입(申 菴)을 순변사로 삼아 왜적을 맞아 싸우게 했다.

그가 빈청(賓廳)에 나가 대신들에게 하직하고 섬들을 내려 오는데, 머리위의 사모가 홀연히 떨어져 보는 사람이 실색했다.

또 용인에 이르러 장계(狀啓)를 올렸는데, 『적군의 형세가 심히 성해서 실로 막아낼 일이 어려우니, 오늘의 일은 민망하고 딱하기 그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명할 것을 빠뜨려 사람들이 그

少女에게

李 容 相

어여쁜 少女 날 찾아와 물거둔
戰線으로 떠났다고 傳해 주시오.

어여쁜 그 少女 남긴 말을 물거둔
조용히 고개를 흔들어 주시오.

어여쁜 그 少女 두 볼에 눈물 어리면
그도 울며 떠났다고 傳해 주시오.

사랑보다 더한 것 어데 있기에
사랑보다 더한 것 잊이기에…….

마음이 착란되지 않았는가 의심했다.

신 입이 충주에 이르렀을 적에, 어떤 군관이 적이 이미 새재를 넘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자 그는 노하여,

『군관이 망녕된 말을 해서 군중을 놀라게 했다.』

고, 군관의 목을 베어 군중에 조리 돌렸다. 이렇듯 신 입은 큰 적을 막아야 할 중대한 임무를 띤 장수로서 허둥대고 있었다. 속설에는 그가 젊었을 적에 산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 어느 고가에 들렀는데 부모를 다 여의고 만 처녀가 한사코 신 입을 따라 나섰다고 한다.

그의 장인은 저 유명한 권 울 장군이었고 장가들어 얼마 되지 않은 때여서 시앗을 보아가지고 돌아오기가 못내 민망했었다. 그래서 거절했더니,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돌아가는 그를 부르더니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그 얘기를 들은 권 울은 사위를 나무랐다. 『사람이 그토록 융통성이 없고 매정하여 적악(積惡)을 했구먼…』

공교롭게도 신 입이 어명을 받고 출전하려 할 때 그녀의 모습이 장대끝에 아른거렸기에 신 입은 사모를 떨어뜨렸고, 장계에 서명할 것 마저도 빠뜨렸던 것이라고 한다.

그가 새제에서 왜군을 막으려 나가다가 장수 깃발 위에 그녀의 얼굴이 올라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꾸었다.

『새제는 길이 험해서 말달리고 활쏘기가 불편하니 물러나. 충주에 진을 쳐라.』

막하의 장수 이 일 등이 반대했다.

『이미 험한 곳을 지키지 못하고 넓은 들판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 당해낼 도리가 만무하니, 차라리 물러가 서울이나 지키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들에게 군령을 어진다고 호통을 치고 적과 싸워 공을 세운다면 용서해주겠다면서 탄금대에서 강물을 뒤에 두고 배수진을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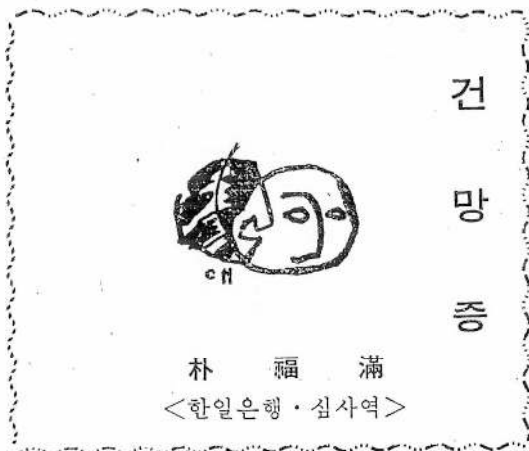
서울서 간신이 급조로 모병하여 편성한 오합지졸 8천명은 잘 훈련되고 조종을 쓰는 왜군의 다수에 물려 패하고 말았다.

신 입은 최후까지 적군을 쏘아 죽이다 장렬한 전사로 그 생애를 끝마쳤다.

그의 패전 소식이 들리자 조정은 어쩔줄 몰라 서도로 피난을 서둘러 말았다. 병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도 험로 요새에 매복해 있다가 피곤한 적을 덮쳐 무찌를 줄 알만할터인데, 만약 신 입이 새제에서 적군의 예기를 꺾고 그들의 침공을 며칠만 막았다면 임진왜란의 싸움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후세 사람들은 아쉬워 해왔다.

정의의 군사가 진군하는데 요망하고 사특한 것이 감히 범접할 수도 없겠고, 여난(女難)의 전설도 꼭 믿을 것은 못되겠지만, 모름지기

젊은 날의 혈기에 경계를 삼을 만한 한 것이겠다.



언젠가 기억력이 우수한 어떤 사람을 TV에서 소개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기억력이야말로 과히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물건을 하나씩 가지고 서있는 것을 한 번 쪽 둘러보고 나서는 누가, 어떤 물건을 들고 어느 줄, 어디에서 있었던가를 하나도 틀림없이 알아 맞추는데 정말 기억술의 대단함을 알게 됐다.

그정도의 기억력은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대단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개구장이 시절, 국민학교 급우들의 이름을 출출 외우고, 즐거웠던 일, 혼술이 나던 일들을 죄다 기억해내는 머리좋은 친구들이 있다.

어쩌다 거리에서 모처럼 동창을 만나 반갑게 근처 다방에 들어가 차를 나누면서도 끝내 상대방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그냥 “너”로만 부르다 집에 돌아와 졸업앨범을 들여다보며 한사람 한사람 얼굴을 찾아나가다 무릎을

치는 내 경우를 보더라도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부럽지 않을 수 없다. 안식구의 말대로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건망증이 있어서 그러나보다.

그래서 그런지 보다 신경을 써야하는 문건을 정서하다보면 항상 써대던 한문의 획이 아리송하여 전혀 다른 글자갈게만 여겨져서 사전을 찾아 확인해보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말이다.

엿그제 저녁상을 물리는데 안식구가 다가와서 하는 말이 "내일모레가 작은 아이 생일인데 잊지말고 조그만한 생일선물 하나를 퇴근길에 준비해달라"는 것이었다. "응! 그래? 알았어"하고 대답은 잘했었으나 어제 저녁에 깜박 잊고서 빈손으로 귀가했던 것이었다. 문을 열어주던 그가 빈손으로 들어오는 나를 보더니 "내 생일 같으면 당신한테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을테지만 어린애 생일이라서 그렇게 당부했는데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며 면박을 주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다시 나가 사들고 오자니 귀찮고 어차피 무심한 사람이 되버린 마당에 고맙게 생각해 줄리도 없겠고 해서, "애 생일이 마침 토요일이라 내일 아이들과 같이 나가서 모처럼 외식도 하고 좋은 선물도 사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체신없이 왜 그리 말이 많아"하고 오히려 큰소리 쳤으나 사실은 임기응변이요, 체면손상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순간적인 답변이었지 사실 계획된 생각은 아니었다. 아뭏든 이쪽 진심을 알 수 없는 그는 속없이 떠든 것이 미안한듯 부지런히 저녁상을 봐오는 것이었다. 아뭏든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간 이상 내일은 가족과 함께 외식이라도 해서 아빠 체면 좀 세워야겠다

兵 營 日 記

田 在 洙

모두들 곤히 자고 있구나
 남하 끝에서 와서
 잠자리를 찾아 오는 나는
 너의 손목과 얼굴을 더듬으면서
 이 진한 어둠 속의
 戰友를 생각했었지

잠이 오지 않는 祖國이여,
 그 속에서 너는 訓練服 兵士처럼
 야간행군이라도 하고 있을까.

아직 이 내무반의 불은 켜지 말아다오.
 밤은 衛兵所의 燈으로 오지만
 아직 時間이 머물러 있다는 것
 잠시의 平穩이 나의 깊숙이 와서
 불을 켜는 긴 時間이라도 되든가
 날이 밝기 前의 두어 時間
 나를 여유있게 잠재우게 하라.

고 마음 먹었다.

이튿날 아침, 별로 아침식사 생각은 없었으나 상머리에 앉아 있자니 오늘 생일을 맞은 작은 녀석이 일어나서 얼굴에 물만 살짝 바르고 쫓아와서 내앞에 마주앉아 막 수저를 드는데 애엄마가 "형호야 오늘이 네 생일이다. 이제 나이도 한살 더 먹고 했으니 누나처럼 엄마랑 교회에 나가자.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선생님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도 듣고 공부해야 내년엔 학교에 들어가자"하면서 교회에 가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도 한 마디 거들었다. "그래 엄마 따라 교회에 가서 친구도 사귀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듣고 공부도 하

면 좋지” 했더니 이녀석 “그럼 아빠도 갈거야” “아니, 아빠는 바빠서 안될 것 같은데” 하였더니 이놈도 “나도 안돼”하며 한 마디로 거절해 버리는 것이었다. 이 정도면 애가 교회에 가고 안 가고는 결정이 났는데 애엄마는 “애가 꼭 지애비 닮아서 고집이 엄소같다”느니 어찌나 하면서 어린애 머리를 한대 쥐어박는 것이었다.

“이사람아 애가 가기 싫다면 그만이지 그일에 왜 나를 넣어서 옥까지 할게 무인가, 애도 그렇지 애가 지애비 닮지 누굴 닮나?” 하면서 수저를 놓고 물을 마시자 꼬마도 수저를 놓고 물을 찾으니, “물까지 지애비 닮아서” 한 마디 하면서 물을 넘치게 따라준다. 출근길이 바빠지자 빅타이멜라 구두신을라 허둥대며 “오후에 사무실 근처에 와서 전화 해”라는 말을 남기고 뛰어나왔다.

한참 잠무처리에 바빠있는데 근처 사무실에 있는 후배가 찾아와서 “선배님 오늘 분식날인데 나가서 짜장면이나 같이 하시죠”하는 것이었다. 벌써 점심 때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하지”하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근처 중국집에 들어갔다. 중국음식의 기름냄새가 시장기를 느끼게 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짜장면을 시장하던터에 맛있게 절반이나 먹었을까! 아뵘사 오늘 점심은 가족들과 같이 하기로했던 생각이 그제야 떠오른 것이었다. 먹다말고 그릇을 밀어내자 후배는 이상한듯 “선배님 왜 식욕이 없습니까? 좋아하시는 짜장면을 들다 마시니” “응! 오늘 이집 짜장이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얼버무리고는 차 한잔 하자는 후배를 떨치고 돌아왔다. 사무실에 막 들어서자 전화가 왔다. 책상을 정리하고 내려갔더니 두

어린 것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우선 아이들이 배가 고플테니 식사부터 하지”

“뭐 먹을까?” 생일을 맞은 작은 녀석에게 물었더니 “짜장면”하는 것이었다. “애, 여기까지 어렵게 와서 더구나 생일날 짜장면 먹니, 보다 좋은 것이 많은데, 제는 꼭 짜장면 밖에 몰라”하며 애엄마는 은근히 나무란다. 그래도 막무가내다. 결국 아까 들렸던 중국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잡채밥과 짜장면을 시켰다. 난 먼저 먹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내 앞에도 짜장면이 한그릇 돌아왔다. 안 먹을 수도 없어 억지로 먹어야만 했던 그때의 짜장면은 정말이지 맛이 없었다. “이토록 전망증이 심하단 말인가”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곧 무관심 속에서 나오는 소치라 생각했다. 관심없이 대답하고 계획하고, 그때 그때 흘러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배사에 관심을 갖는 자세만이 전망증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민 재 훈
〈국방부·사무관〉

마음을 비워야...

얼마전 대전에 갔다오는길에 서울행 고속버스를 탄 일이 있었다.

고단하던 참이라 잠을 좀 잤으면 싶었는데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그놈의 운동경기 중계 때문에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80년대에 들어서 우리들의 귀는 쉴 여가도 없이 줄곧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보기싫은 것은 눈을 감아버리면 그만이지만 열려 있는 귀는 그럴 수 없으니 번번이 곤욕을 치르게 된다. 듣지 않을 수 없는 거부적 자유가 우리에게 없는 것 같다.

잠을 잘 수 없을 바에야 눈을 뜨고 평화로운 황혼의 빛깔에 마음을 내 맡기는 것이 차라리 편하다.

산그늘이 내릴 무렵 들녘은 한결 정답고 풍성하게 보인다.

창밖을 스치고 지나가는 들판의 향기가 매우 향기롭게 느껴진다.

벌판을 지날 때 벌겍게 물든 해가 지평선 위에 걸리니 오랫동안 지켜보는 일몰의 아름다움, 그 전날 비가 내린 뒤라 하늘에는 구름 한점 없이 청명하게 갠 날이었다.

들판 넘어로 누엣누엣 잠겨드는 해를 보면서 사람의 죽음도 것처럼 고요하고 맑은 빛깔이라면 두려울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생에 집착하고 삶을 소유물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생에 대한 집착과 소유의 관념에서 놓여날 수 있다면 엄연한 우주질서 앞에 조금도 조금도 두려워 할게 없을 것이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묵은 허물을 벗어 버리는 것이니까.

해가 넘어간 뒤 땅거미가 질 때까지 그 저녁 놀의 잔향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

여리고 순하디 순한 빛깔을!

사람의 마음을 빛깔로 표현할 수 있다면 착하고 어진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빛깔을 띠고 있지 않을까 싶었다. 그날의 일몰은 내 존재의 정결한 기쁨이었다.

결자리에 앉은 대학생같은 친구한테 해가 기울 때부터 저절로 보라고 일러 주었지만 그는 스포츠 중계에 귀를 파느라고 다른데서는 보기드문 그토록 아름다운 저녁 놀을 본체만체 했다. 그 어떤 세월 속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은 한결같지만 우리는 이제 그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려면 고요한 침묵이 따라야 하는데 시끄러움에 중독된 이 시대의 우리들은 그 침묵을 감내할 만한 인내력이 없는 것이다. 침묵을 익히려면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홀로 있을만하면 초라한 자기 모습이 드러날까봐서인지 바깥 소리를 찾아 이내 뛰쳐 나가 버린다.

침묵을 익히려면 밖으로 쳐다보는 일보다도 안으로 들여다 보는 일을 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질보다는 양을 내세우는 오늘 이땅의 우리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를 채우려고만 하지 비우려고는 하지 않는다.

텅빈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일이다. 텅비고 메아리가 울리고 새 것이 들어찰 수 있다. 온갖 집착과 굳어진 관념에서 벗어난 텅빈마음이 우리들을 가장 투명하고 단순하고 평온하게 만든다.

禪家에 이런 말이 있다.

「진리를 배우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배우는 일이다. 자기를 배우다는 것은 자기를 잊

어버림이다. 자기를 잊어버림은 자기를 텅 비우는 일, 자기를 텅 비울 때 체험의 세계가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은 비로소 자기가 된다」

즉, 자기 마음을 텅 비울 때 본래적인 自我, 전체인 자기를 통째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또한 자기 존재를 마음껏 전개하는 일이 된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기 어려운 오늘날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사람의 자리를 지켜나가려면 하루한때라도 순수한 자기 자신을 존재케하는 새로운 길들임이 있어야 한다.

얽히고 설켜 복잡하고 지저분한 생각이 죄다 사라져버린 순수 의식의 상태, 맑게 갠 날 해가 진 뒤의 그 순하디순한 늘 빛같은 無心이 日常에 찌든 우리들의 혼을 맑게 씻어 줄 것이다.

가득가득 채우려고만 하던 생각을 일단 놓아 버리고 텅비울 때, 새로운 눈이 뜨이고 밝은 귀가 열릴 수가 있다. 사실 우리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영역은 전체에서 볼 때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존재의 실상을 인식하려면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두루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육지를 바로 보려면 바다도 함께 보아야 하고 밝은 것을 보려면 어두운 것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한다. 친구를 바로 이해하려면 그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까지도 알고 있어야 한다.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거죽과 속을, 혹은 현상과 본질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무엇이 거짓이고 참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뜻,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 이룰 수 있는

큰 힘이 있다.

그러니 자기에게 주어진 그 힘을 제대로 쓸 줄을 알아야 한다.

그 힘을 바람직한 쪽으로 잘 쓰면 얼마든지 창조하고 형성하고 향상하면서 삶의 質을 거듭거듭 높여갈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힘을 가지고도 한 생각 빼돌어져 잘못 써버렸다면 그것이 業力이 되어 마침내는 자기 자신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끝없는 구렁으로 떨어져 버린다. 똑같은 힘이라도 서로 다른 지배를 받아 한 장미나무에서 한 갈래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다른 갈래는 독이 뱀 가시로 돌아난다.

도덕성이 결여되었거나 삶의 목적에 합당치 못한 일은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늘어놓는다면지라도 올바른 결과는 가져올 수 없다.

사람은 하나하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가 의식을 하건 안 하건 둘레의 大氣에 파장을 일으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착한 생각과 말과 행동은 착한 파장으로 밝은 영향을 끼치고 착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은 또한 착하지 못한 파장으로 어두운 영향을 끼친다.

사람은 겉으로는 강한체 하지만 속으로는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존재다.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려 고통을 주는 일이 적지 않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그 힘을 값있게 쓰고 있는지, 되돌아 볼 줄 알아야 한다.

삶의 양을 따지려면 밤낮없이 채우려는 일에만 급급해야 겠지만 삶의 質을 생각한다면 비우는 일에 보다 마음을 써야 할 것이다.

國家豫算凍結의 政策背景

1. 우리 經濟의 當面課題와 國家豫算凍結의 背景

우리經濟의 當面課題

오늘날 우리 經濟는 '80年代에 繁榮을 누릴 수 있는 先進化의 기틀을 成功的으로 마련할 수 있으나 없느냐의 매우 중요한 轉換期에 놓여 있습니다.

즉 成長을 持續하여 國力을 伸張시키며 國民生活의 質을 均衡있게 向上시키기 爲하여는 무엇보다도 物價安定基盤을 完全히 定着시키고 產業의 國際競爭力을 提高시키며, 貯蓄을 增大하여 對外債務을 抑制하여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主要한 轉換期의 課題라 하겠습니다.

物價安定基盤은 第5共和國 出帆以後의 政府의 꾸준한 安定化 施策과 근로자, 農民, 企業 및 公務員 등 各界各層의 協助를 土臺로 그 뿌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最近 數年間의 類例없는 物價安定趨勢를 一時的인 것이 아니고 恒久的인 것으로 定着시켜 나가기 위하여는 먼저 政府는 財政, 金融의 構造를 低物價體制에 맞게 刷新하고 企業은 값싸고 品質좋은 商品을 生産할 수 있도록 原價節減과 技術革新에 注力하며, 家計는 安定化施策에 대한 信賴를 토대로 節約과 貯蓄을 生活化하는 風土가 造成되어야 하겠습니다.

產業의 國際競爭力은 賦存資源이 貧弱한 우리 나라가 오늘날과 같이 熾烈한 國際經濟戰爭에서 승리할 수 있는 唯一한 열쇠입니다. 종래와 같이 값싼 勞賃을 利點으로한 輕工業 製品이나 組立品으로 輸出競爭에서 이길 수 있는 時代는 지난지 이미 오래며 이제부터는 先進國의 두터운 技術障壁을 뚫고 나가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重化學工業은 技術蓄積의 歷史가 매우 짧은데다가 部品을 供給하는 中小企業과의 系列化가 不完全하고 企業의 財務構造마저 매우 취약한 實情입니다. 따라서 政府가 財政赤字를 改善하여 民間이 쓸 수 있는 財源을 잠식하지 않게되면 家計貯蓄의 增加分이 그대로 企業의 生産의 投資에 活用되어 종래와 같이 通貨量이 크게 늘어야만 企業投資가 可能하고 그 結果로 인플레이가 惡循環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끝으로 對外債務의 增加를 最大限 抑制하는 일입니다. 우리 나라의 對外債務는 '82年 末 現在 372億弗로서 中南美 諸國을 除外하고 빛이 많은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勿論 우리는 輸出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外貨收入으로 中長期 借款을 순조롭게 償還해나가기 때문에 支拂能力上 問題는 없지만 오늘날과 같은 國際高金利 추세나 國際金融市場의 不安定狀況 속에서 債務規模를 키워나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外債를 줄이는 것은 결국 政府, 企業, 家計 등 모든 經濟主體들이

빛을 줄이는 努力으로 解決되어야 하는 것인 바, 먼저 政府가 勸誘하여 빛을 줄이게 되고 企業들도 財務構造를 改善시키게 되면 우리 經濟의 全般的인 外資依存現狀은 改善될 것입니다.

以上과 같은 우리 經濟의 當面課題들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努力에 依하여 모두 解決이 可能한 것들로서 다만 問題는 政府施策을 勤勞者·農民·企業·家計 등 모든 國民階層이 信賴하고 呼應協力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政府가 國家豫算 凍結의 고통을 甘受하여 國民에게 먼저 垂範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國家 豫算凍結의 背景

從來 우리 나라의 財政은 高度成長을 政府가 앞장서서 이끌고 나갔기 때문에 급속한 規模膨脹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財政規模膨脹에 따라 一部事業에 試行錯誤가 따르기도 하였으며 浪費와 非能率이 發生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重要的 問題는 財政赤字가 늘어가는 狀況 속에서 豫算規模가 膨脹되어온 事實입니다.

政府는 財政赤字를 매꾸기 위하여 歲入이 不足하게 되면 政府의 權限을 利用하여 韓國銀行에서 돈을 찍어내거나 國債와 公債를 發行하여 金融機關 等に 引受시키는 등 손쉬운 方法을 活用하기도 하였습니다.

政府는 特히 各 所管部署의 事業費와 運營費 등을 計上하는 一般會計豫算에서는 財政赤字를 發生하지 않도록 하여 되도록 韓銀借入을 抑制하여 왔으나 特別會計와 基金 等の 運用은 소홀히 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例를 들면 糧穀基金이나 肥料計定の 경우에 있어서 農民과 都市勤勞者를 保護하기 위한 目的으로

二重價格制를 實施하여 왔는바 需給調節과 適正水準의 在庫維持를 爲하여 莫大한 資金이 所要되어 많은 赤字를 誘發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糧穀 및 肥料部門의 赤字는 財政에서 直接 解決해야 할 課題임에도 不拘하고 韓國銀行에서 손쉽게 돈을 찍어내서 運用함으로써 이 問題의 根本的 解決을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것이다. 이로 因하여 政府部門에서 많은 通貨가 增發되었고 이것은 痼疾의인 「인플레이」를 誘發함으로써 모든 國民에게 害를 끼친 結果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理由에서도 政府스스로 韓國銀行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은 政府의 安定化施策에 對한 意志를 國民들로 하여금 疑心케 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餘他的 各種基金과 特別會計의 運用에 따라 發生한 많은 赤字는 國民投資債券·住宅債券·鐵道債券·地下鐵公債 등 國公債發行으로 充當되어 왔으며, 財政融資財源의 相當部分을 公共債款導入으로 매꾸기도 하였습니다.

政府(中央政府는 물론 地方政府·政府投資機關)가 國公債를 大量으로 發行하게 되면 資本市場에서 民間企業의 投資財源調達이 그만큼 어렵게 되고, 金利를 올리게 하는 要因으로도 作用하게 되는 것이며, 企業이 投資財源을 內資로 매꿀 수 없게되면 결국은 外債增加를 招來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企業들이 國際競爭力을 갖추기 위하여는 銀行融資에만 지나치게 依存하지 말고 株式發行을 통하여 投資財源을 直接調達하는 것이 重要하기 때문에 資本市場에서 政府의 國公債發行을 可及的 抑制하여 民間資本動員을 원활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政府가 來年度 歲出豫算規模를 凍結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 해만 歲出을凍結하게 되면 歲入의自然增收分을活用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財政赤字要因을 根本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財政構造를 確立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家計살림과 마찬가지로 國家살림도 한해동안 쓰임새를凍結하는데는 많은 苦痛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선 좋은 事業을 새로 開發하고자 하는 公務員들의 意慾을 低下시킬 우려도 있고, 政府事業의 受惠對象이 되는 國民들에게는 人氣없는 政策選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經濟가 當面한 物價安定基盤의 確固한 定着과 產業의 國際競爭力向上 및 外債節減 등의 主要한 課題解決이 一時的인 苦痛이나 人氣低下를 두려워한 나머지 失機하게 된다면 '80年代 經濟的 번영을 위한 先進化의 기틀을 만드는 作業은 그만큼 遲延될 것입니다.

'80年代 先進國 經濟가 인플레이와 景氣沈滯의 늪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主要한 理由中의 하나가 先進國들의 財政赤字에 있다는 分析은 잘 알려진 事實입니다. 그동안 政治的 理由 때문에 歲出을 縮小하지 못하여 財政赤字의 擴大에 束手無策이던 先進國들도 最近에는 財政緊縮에 보다 積極的인 努力을 기울이고 있는 傾向입니다. 즉 美國은 '84년에 國防費 以外の 豫算을 '83年 水準에서 凍結한바 있고, 日本은 '83年 歲出豫算을 1.4% 增加로 抑制하였으며 臺灣은 '84年 豫算을 오히려 4.5%나 減縮하였습니다. 公務員 俸給은 모두 前年 水準에서 凍結하거나 거의 引上치 않는 등 非常한 財政緊縮努力이 우리의 競爭對象國들에 依하여 採擇되고 있는 實情입니다.

2. 歲出豫算規模凍結下의 豫算編成方向

豫算編成의 基本方向

政府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 經濟의 當面課題와 이에 對處하기 위한 財政의 役割을 土臺로 하여 '84 豫算을 다음과 같이 編成할 것입니다.

첫째로 歲出豫算을凍結하는 反面 經濟規模 擴大에 따라 自然히 增加되는 稅收 增加分을活用하여 財政內의 痼疾的인 財政赤字를 改善할 것입니다.

둘째로 歲出規模가 凍結된다고 하여 硬直性 經費 이외의 豫算을 一律적으로 削減하는 것이 아니고 增加되어야 할 經費, 節約하여야 할 經費, 또는 重點支援할 經費를 效率적으로 調和시켜 豫算構造改善의 契機로 삼을 것입니다.

세째로 防衛費나 地方交付金, 教育財政交付金 및 債務償還 등의 硬直性 經費는 불가피하게 增加要因을 反映하되 硬直性 經費의 內容을 充實化하여 낭비나 非效率要因을 除去함으로써 經濟的 效果가 提高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네째로 農·漁業 및 中小企業 등과 같이 生産性이 他產業에 比하여 相對적으로 낮은 分野에 대한 投融資事業과 國土의 均衡開發 및 國民生活便益增進과 關聯되는 社會間接資本投資은 오히려 重點支援하거나 擴大할 計劃입니다.

硬直性 經費의 增加要因

政府의 歲出豫算中 財源配分의 基準이 變更되기 어려운 硬直性 經費는 來年에도 增加가 不可避한 實情입니다.

첫째로 '83년에 3兆4,198億 원으로서 歲出豫算의 32.8%를 占하는 防衛費는 우리의 特殊한 安保與件上 國民總生産의 6% 配分基準을 繼續 維持하지 않을 수 없는 實情입니다. 다만 '84년에는 物價安定에 따라 名目上 國民總生産 規模의 增加가 鈍化될 展望이므로 防衛費 豫算의 規模增加도 例年에 比하여 크게 緩和될 것입니다. 또한 防衛費의 豫算內容에 있어서도 運營費 部分은 一般行政經費 以上の 節約努力을 傾注하여 戰力增強을 爲한 投資効率が 極大化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로 地方財政을 運用하는데 不足되는 財源을 交付金の 形態로 中央政府가 支援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地方財政交付金은 '83년에 8,579億 원으로 歲出豫算의 8.2%를 占하고 있는데 每年 內國稅의 13.27%를 交付토록 法定化가 되어 있어 經濟成長에 따라 內國稅가 增加되면 增額이 不可避합니다. 다만, 道路鋪裝事業을 위한 起債의 償還 등에 必要한 特別交付金 所要是 '84년에 限하여 地方財政에서 充當하지 않을 수 없는 實情이므로 中央財政과 같은 水準의 苦痛分擔이 不可避하다 하겠읍니다.

地方行政은 中央行政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一般國民들과의 接觸이 頻繁하기 때문에 豫算 節減에 보다 率先하여야만 豫算凍結의 意志를 國民들이 가까지서 피부로 實感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째로 教育財政交付金은 '83년에 1兆8,031億 원으로 歲出의 17.3%를 占하고 있는데 그 중 63%가 初·中等學校의 人件費로 支給되며 其他 學校運營費 및 施設投資가 37%를 占하는 構造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教育財政交付金은 法定化되어 있는 內國稅의 11.8%該當額과 教育稅 全額 및 俸

給交付金を 反映하여 今年보다 7.4%가 늘어난 1,300億 원이 增額될 展望입니다.

이와 같이 增額된 教育財政交付金으로 人件費 部門에서 過密學級 解消를 위한 敎員의 繼續的인 增加, 其他 敎職手當의 引上, 號俸隔差解消 등에 所要되는 莫大한 經費增加를 充當하고 教育環境改善을 위한 投資도 當初計劃대로 차질없이 推進토록 뒷받침함으로써 教育稅 新設의 意義를 最大限 살려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네째로 軍人·敎員을 除外하고 中央政府에 勤務하는 人件費는 俸給引上和 人員增加를 凍結한다 하더라도 號俸昇給이나 長期勤續手當 所要로 因하여 約 500億 원 程度가 增加될 展望입니다.

다섯째로 '84年中에 償還되어야 할 國家債務의 元利金은 4,297億 원으로 豫想되지만 '82년에 發生한 歲計剩餘金 1,423億 원을 活用하여 早期償還토록 한다면 '84年中 債務償還 所要是 今年 水準에서 維持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硬直性 經費는 總 歲出豫算의 約 70%를 占하여 財源配分の 彈力性을 制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硬直性을 緩和시키는 꾸준한 制度改善方案이 講究되어야 할 것입니다.

節減對象經費

이상과 같은 硬直性 經費의 增加要因에도 불구하고 總 歲出豫算을 凍結하기 위하여는 어느 部門에서 節減해야 하는가의 課題가 남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政府는 零點基準 豫算編成方式을 導入하여 豫算改革作業을 推進한 결과 이미 많은 分野의 浪費的인 要素가 除去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더 節約할 수 있는 部門을

찾아내야 하겠으며, 종래 零點基準方式 적용이 未洽했던 事業費의 優先順位調整이 과감히 推進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政府機關의 運營經費를 節減하여 名實共히 簡素한 政府를 指向토록 할 것입니다. '84年中 公務員의 增員은 敎員·法官 등을 除外하고는 일체 認定하지 않을 것이며 俸給은 1年間 凍結토록 할 方針입니다. 또한 機構의 新增設이나 職級의 上向調整과 같은 豫算의 根源의 增加要因은 止揚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政府機關自體의 經費節約에 못지 않게 各種 補助機關·出捐機關·投資機關 등 政府傘下機關들의 慢性的인 經費增加要因을 是正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들 傘下機關中 政府豫算에 依存하여 運營되는 機關에 대하여는 政府機關과 같이 人員의 增加나 機構의 新增設을 一切 認定하지 않고 俸給은 原則적으로 凍結할 方針이며 經常 運營費도 '83年以下로 節約토록 할 것입니다.

셋째로 政府事業의 優先順位를 調整하여 國民生活에 直結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意慾적으로 計劃된 事業은 延期시키도록 할 것이며 政府가 하고 있는 일 중 民間(金融機關 包含)에 맡기는 것이 더 効果的이라고 判斷되는 事業은 이를 移讓하여 財政의 過重한 負擔을 縮小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物價上昇이 當初 豫算編成時의 展望보다 安定된 것과 豫算事業의 單價가 引下(例 建築費)되는 部分의 經費를 節減토록 할 것입니다.

重點支援分野

豫算을 凍結하더라도 大多數國民의 基本生活便益을 增進시키기 위한 上下水道·地下鐵·教育環境改善과 같은 投資와 產業間 均衡發

展을 위한 農漁村開發·中小企業 및 地域間 均衡開發을 促進하기 위한 社會間接資本에 對한 投資는 重點支援될 것입니다.

'84年中에 重點支援될 對象事業의 몇가지 例를 들어보면 上水道 事業의 경우, 錦江系統 廣域上水道 事業을 '84年度에 完工하여 裡里·群山·全州地域住民의 물事情을 完全히 解決하고 淸州·鳥致院·天安 등 地域의 食水難 解消을 위한 大清潭 系統 廣域上水道 事業을 '84年中에 着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都市 大衆交通難 解消을 爲하여 서울 地下鐵 3·4號線을 '84년에 完工토록 하겠으며 釜山地下鐵 1號線도 '86年 完工을 目標로 繼續 支援될 것입니다.

水資源開發部門에서는 忠州댐의 完工을 '86年에서 '85年으로 1年 앞당기고 陝川, 住岩댐 및 釜山地域의 식수난 해결을 위한 洛東江 河口堰 工事を 本格推進할 計劃입니다. 구미·半月·울산·昌原의 工業地域 및 大邱·大田·全州 등 大都市의 下水道建設 事業이 아울러 推進될 것입니다.

農水產開發部門에서는 農業用水開發 및 耕地整理事業을 繼續 推進하고 榮山江 2段階事業 등 8個地區의 大單位 農業綜合開發事業은 完工 爲主로 內實있게 推進할 것이며 漁業發展을 위한 漁港建設도 繼續 支援하겠습니다.

中小企業育成을 위하여는 經營 및 技術指導 事業에 필요한 豫算을 重點支援할 것입니다.

低所得層과 零細民支援을 위하여는 醫療保護 및 就勞事業의 繼續推進과 零細民 技術訓練·勤勞者·賃貸아파트 및 勞動會館의 建立이 계속 推進될 것입니다.

黑字豫算編成

歲出을 凍結하더라도 歲入面에서는 現在의

稅率을 그대로 維持할 경우에도 經濟成長에 따라 自然的으로 稅收가 增加되기 때문에 그 結果 黑字豫算의 編成이 可能하게 될 것입니다.

景氣回復 및 經濟的 量的 擴大로 '84年中 約 8,000億원 內외의 稅收가 增加될 것으로 展望되지만 '83年 豫算에 計上된 3,467億원 規模의 國債가 正常歲入으로 代替될 것이므로 黑字規模는 4,000~5,000億원 水準이 될 것으로 展望됩니다.

이와 같은 黑字財源을 活用하여 그동안 痼疾의인 通貨增發 要因으로 作用하던 糧穀基金과 肥料計定의 韓銀借入方式을 改善하는 한편 財政融資財源의 借款依存을 改善하여 健全財政의 기틀을 確立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3. 國家豫算凍結의 經濟政策的 意味

統合財政收支의 改善

내년에 歲出豫算을 凍結하는 反面 歲入은 自然增收要因에 따라 約 8,000億원이 增加됨으로써 그만큼 統合財政收支의 改善效果가 發生됩니다.

一般會計에서는 최근 3年間 계속되던 國債發行의 中斷이 可能하게 되고 糧穀基金에서는 韓銀借入이 없어지게 될 것이며, 기타 特別會計와 基金 등의 赤字要因도 縮小될 것입니다. 그 결과 現在 1兆4千億원(GNP의 2.6%)에 達하던 統合財政收支赤字는 4,000~5,000億원 水準(GNP의 0.8%)으로 縮小될 것입니다. '85年 以後에는 正常的인 歲入增加範圍內에서 歲出을 增加시킬 것이므로 財政赤字는 다시 擴大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物價安定과 豫算凍結

統合財政收支赤字가 改善되고 특히 糧穀基

金 및 肥料計定에서 韓銀借入이 止揚되면 財政部門에서의 인플레이 要因은 거의 除去될 것입니다.

또한 豫算凍結과 관련한 公務員의 給與引上 凍結은 民間企業의 賃金安定을 先導하여 賃金上昇에 의한 物價上昇要因도 最小化 될 것입니다.

國家豫算凍結로 政府가 率先하여 節約을 強化함으로써 企業經營의 健全化·家計의 消費生活 健全化 風土가 造成되면 總需要가 安定되어 物價安定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經濟成長과 豫算凍結

景氣가 沈滯되어 있을 경우에는 財政投融資事業을 擴大하여 雇傭機會를 創出해야 하기 때문에 赤字財政運用이 必要하게 됩니다.

그러나 今年에 들어와 우리 經濟는 1/4分期에 9.3%의 經濟成長을 나타내고 景氣가 全般的으로 好況局面에 들어섰기 때문에 財政緊縮에 따른 景氣萎縮은 크게 憂慮할 問題가 아닙니다. 一般的으로 극심한 不況局面下에서 財政投融資事業을 하는 경우 投資의 效率性은 低下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來년에 政府가 歲出豫算을 凍結한다해도 모든 豫算事業을 一律적으로 減縮하는 것이 아니고 經濟成長을 뒷받침하는데 必要的인 社會間接資本은 可及的 計劃대로 推進할 方針입니다. 또한 豫算凍結에 따라 統合財政收支 赤字가 改善되면 그만큼 民間企業의 資金調達 餘裕가 擴大됨으로써 生産的 投資가 活性化되어 經濟成長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金融秩序改善과 豫算凍結

從來 우리 나라의 金融構造는 財政部門에서의 慢性的인 通貨增發要因으로 因하여 적지않

게 歪曲되어 왔습니다. 즉 物價安定을 爲하여 通貨供給量을 緊縮할 경우에 政府部門 通貨要因은 손을 대지 못하고 民間與信託 萎縮시키는 結果를 招來하여 特히 中小企業部門에 資金不足을 야기하였습니다.

특히 來年부터 外債節減을 爲하여 國際收支(經常收支)赤字를 改善시키게 되면 從來처럼 輸入增加에 따라 通貨가 還收되는 幅이 줄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政府部門의 通貨增發要因이 縮小되지 않은채 海外部門에서 通貨吸收機能이 줄게 되면 民間與信이 심각하게 萎縮되거나 아니면 全體 通貨量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矛盾에 直面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政府部門에서의 通貨增發要因 縮小는 金利安定에 重要な 要素가 될 것입니다.

外債節減과 豫算凍結

그동안 우리 나라는 高度成長에 必要한 投資財源의 相當部分을 外資로 메꾸어 왔으며 이와 같은 外資中 특히 公共借款은 道路·港灣·댐建設·農業開發과 같은 社會間接投資를 爲하여 政府가 直接 導入하였으며 電力·通信事業을 爲하여 政府投資機關에서 導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公共借款의 相當部門은 內資不足을 充當하는 役割을 하였기 때문에 政府가 財政赤字를 縮小하여 政府貯蓄을 늘려나가게 되면 尙차 外資依存을 줄일 수 있는 餘力을 갖게 될 것이며 아울러 政府投資機關도 外資依存을 改善할 必要가 있다 하겠습니까. 또한 政府의 財政赤字를 메꾸는데 動員되었던 民間貯蓄이 民間企業投資로 還流되면 民間企業의 外資依存도 줄어들게 되고 政府의 節約努力 率先이 家計의 消費健全化 風土造成에 연결되면 우리가 當面한 主要課題인 外債節約은 可能하게

될 것입니다.

國民福祉와 豫算凍結

國家財政의 重要な 役割의 하나는 高所得層으로부터 徵收한 稅金으로 低所得層을 위한 福祉事業을 遂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豫算規模가 凍結될 때 새로운 福祉事業을 擴大 推進하는데는 限界가 있는 것은 事實입니다. 이는 財政赤字要因을 放置한 채로 福祉豫算을 擴大하는 것은 結局 國民 모두에게 害毒이 된다는 事實을 先進國의 經驗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福祉豫算의 比重이 아직은 先進國에 比하여 매우 낮기 때문에 '84年에 財政健全化의 기틀이 마련되면 '85年 以後의 財政機能擴大는 주로 福祉豫算部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년 豫算을 凍結하더라도 國民生活의 基本需要가 되는 上下水道·大衆交通·醫療保健·住宅 및 教育部門 등은 可及的 豫算을 重點支援토록 하여 國民生活의 質的 向上이 뒷받침 되도록 最大限 努力할 方針입니다.

4. 豫算凍結과 公務員의 姿勢

우리 公務員은 國家豫算이란 결국 國民들이 피와 땀으로 벌어서 낸 稅金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을 생각하여 내집살림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姿勢로 나라살림을 꾸려나가야 하겠습니까. 政府는 財政規模를 계속 늘려가면서 國民들에게만 節約을 要求한다면 政策에 對한 說得力이 없어지고 政府에 對한 信賴基盤이 造成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過去와 같이 人氣에 迎合하기 爲하여 可視的이고 展示效果的인 事業을 벌이고자 하는 行政의 姿勢는 止揚되어야 하겠습니까.

또한 豫算의 制約을 理由로 國民生活과 直結되는 事業의 執行이 疏忽히 되고 政府가 國民에게 提供하는 各種 公共서비스 機能이 低下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業務執行에 있어서도 安易하고 消極的인 姿勢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業務量의 過多를 理由로 한 人員의 增員이라든가, 所管業務의 補強이나 擴大를 위한 機構의 新設 및 增設과 業務의 特殊性에 따른 手當引上의 要求 등은 個別的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一應必要性和 妥當성이 認定될 수도 있으나 全體的인 國家財政運用의 見地에서 볼 때는 調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部處와 身分의 特殊性을 主張하여 例外的인 待遇를 要求하기 以前에 國家財政의 어려움을 먼저 考慮하는 眼目이 必要한 時期입니다.

아직 自己나 自己部處만을 例外로 생각하려

는 傾向이 남아 있으나, 이와 같은 思考를 拂拭하지 않고는 豫算凍結과 같은 어려운 課題는 達成될 수 없을 것입니다.

公務員의 處遇가 民間의 給與水準과 比較하여 構造的인 隔差를 보이고 있는 狀況下에서 政府가 公務員 俸給을 凍結하는 不可避한 選擇을 하게 된 背景을 깊이 理解하고 使命感을 가지고 1年間 苦痛을 참아주는 協助姿勢가 必要합니다.

또한 家計·企業·勤勞者·農民 등 業務執行 過程에서 接觸하는 各界各層의 國民들에게도 經濟安定의 必要性和 이를 爲한 豫算凍結의 참뜻을 理解시켜 安定基盤定着이라는 政策目標가 所期の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公務員 모두가 積極的인 先導役割을 擔當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너와 나의 근검절약

가정행복 나라부강

家庭의 平和와 家庭教育

金 在 恩

<이화여대 교수·심리학>

1. 가정의 위기와 교육문제

오늘날 선진국은 가정이 무너져 가는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국 주간지 「타임」지에 미국 청소년의 가출에 관한 특집기사가 실린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몇년동안 불경기가 계속되고, 아버지들이 실직을 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 쫓는 집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아버지의 실업수당을 타먹고 살고 있으니, 다 큰 아이들이 빈둥빈둥 하면서 공짜로 먹고 있으니 배가 아팠던지 14세에서 18세까지 사이의 자녀를 백만명 이상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처지를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비록 부모가 굶을 망정 아이들을 내 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양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을 자기 몸처럼 생각치 않는 것입니다. 별로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독립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그들의 문화양식이니 그렇게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가정이 서서히 무너져 가는 증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어린나이에 내쫓아내는 서양의 양식을 우리는 결코 본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서양에서는 부부의 이혼율이 급격히 늘고 있어서 결혼한 경험을 가진 성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이혼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혼한 부부는 대개 결혼 후 3년에서 5년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대개는 아이가 하나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고아아닌 고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이혼 부부의 경우 아이는 아주 어린 어머니가 우선적으로 돌보고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철이 좀 들면 아이가 아버지에게로 갈 것인지 어머니에게로 갈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은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집은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가정의 붕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서양에서는 가정 내의 갈등이나 이혼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은 정신적인 기동을 잃고 아주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됩니다. 이런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해결이 안 되고 버려지게 되면 정신장애가 되어 버립니다.

오늘날 미국인 가운데는 어른 네명 중 한 사람이 정신병원의 신세를 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장애의 증가로 가정생활은 파괴되고 살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가정의 불안정상태와 가정교육의 부재상태를 절감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범죄, 비행, 가출, 정서장애나 행동장애는 80% 이상의 경우가 가정에 그 근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의 붕괴는 가정이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진 못하고 도리어 인간을 망그러뜨리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가정답지 못하면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서 건전한 인간이 길러진 예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선 건강상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정신적 발달에 있어서도 지체와 혼란을 주며, 인격적, 도덕적 혼란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위기는 여러 가지 교육상의 문제를 제기해주는 것입니다.

2. 가정교육은 왜 중요한가

가정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기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는 경우보다는 가정생활을 해가는 동안 자녀의 섭리, 생활 그 자체 속에서 이루어지며 또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교육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타이르기 전에 부모의 삶 그 자체가 바로 교육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가 벌써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인 「프랑스와 모리약」은 「우리들은 자녀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생활하면서 교육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점입니다. 그렇저렇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또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도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을 가정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가정교육은 학교교육과 달라서 살아 있는 생활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교육은 학교 교육처럼 일정한 조직 속에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부모들이 의식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해서 교육의 법칙이나 순서에 따라서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도방법도 학교교육처럼 체계가 잡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양친이나 조부모, 형제 자매와 같이 나이에 있어서나, 성별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사물을 보는 방식이 모두 다르며,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며, 사람을 다루는 태도가 모두 다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다른 가족원들과의 생활 속에서 더우기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교육이 바로 가정교육이란 것입니다.

또 학교교육은 장래의 사회생활에의 준비로서 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지도라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정으로 하는 지도인 것입니다. 더우기 모든 것을 현실의 필요에서 비롯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예습이나 복습과 같은 활동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생생한 살아 있는 현실감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교육 그 자체가 살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가정은 「가족감정」이라는 특별한 감정에 의해서 강력하게 튼튼하게 맺어져 있어서 가족원들 사이의 관계도 아주 친밀하고 또한 전면적이므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큰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교육은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중요시 했으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틴루터」는 가정교육을 인간생활의 기반으로 보았으며 「장자끄 루소」는 어머니의 교육적 의무를 통감했으며 「페스탈로치」는 또한 가정생활을 학교의 원형이라 했습니다.

3. 교육은 産聲과 함께

그러나 학교 교육이 보급되고 그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교육이란 뭔가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학교 교육만을 가르치게 되어 버려서 그 결과 가정은 단지 영양을 취한다거나 자고 깨고하는 장소가 가족원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는 장소로만 인식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그 임무를 떠맡은 학교만이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또한 이런 생각이 일반화되어 점점 가정의 교육적 기능은 상실되고 가정교육의 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부모님들은 얼마동안은 아이들의 건강의 문제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잠재우고 목욕시키고 예방주사 맞게 하면서 건강, 건강에만 관심을 쏟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의 학업문제, 행동상의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 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해서야 비로소 정신적인 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듯 합니다. 이때 부모들은 몹시 당황하기 시작하고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려고 아이들을 야단치고 따라서 협박하고 얼르고 억압하기도 하고 또는 아이들에게 빌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발달에는 순서와 단계가 있어서 어떤 한 가지 현상은 반드시 다른 현상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서를 한번 그르쳐서 보조를 흐트러 놓게 되면 좀처럼 원상회복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어머니들에게서 「아이들의 교육은 보통 몇살 때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이 아이(만 3세)를 서울대학교에 넣으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들은 교육을 뭔가 형식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가정교육을 매일 매일의 생활 그 자체 속에 있는 것이므로 교육은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앙!」하고 産聲을 발할 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며 이 때부터 이미 교육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교육을 아이들이 학교엘 들어가게 되는 때부터로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오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교육은 아이들이 무력한 시기일 때 일수록 하기가 쉬울 뿐더러 더 중요한 시기이며 효과도 좋은 시기인 것입니다. 더우기 그 시기를 지난 후의 교육은 지금까지 배운 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 효과가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가정이 갖는 교육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해서 다루어 볼까 합니다.

4. 밝은 가정분위기

훌륭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뛰니뛰니해도 가정의 분위기가 밝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원들은 서로가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도배체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가족이란 옛날부터 먼 훗날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것, 즉 우리 나라에서는 「집」이나 「집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집」을 지키고 「집」을 위해서 살 것을 강요당 하다시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운 개인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혼까지도 결혼당사자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가문」을 잇고 그것을 단절시키지 않기 위한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원 각각은 독립된 개인이 아니고 「아무아무개 집의 누구」로 「누구 집안의 몇째 아들(딸)」로 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격도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그 「집안 됨」의 한 표현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집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지」가 거의 공식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공식이 거의 다 깨뜨러지고 말았습니다.

더우기 이와 같이 「집안」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가족원들은 공고하게 서로 얽히고 단합해야 하며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부모 자녀관계는 지배—복종의 관계를 기초로 하고 가족원 모두는 불평등한 상하관계로 층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을 물으면 「저는 층층시하에서 삽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집안에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가 생존해서 공주하고 있으면 층층시하가 됩니다.

그 뿐더러 손아랫 사람은 손윗사람에게, 아내 내 남편에게 아우는 형에게,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복종하고 섬겨야 하며, 장남은 차남이나 3남보다 더 우대를 받으며, 아들은 딸보다 더 우대를 받았습니다. 여자는 다른 집안으로 출가를 가기 때문에 외인으로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이 작은

집단 속에 상당히 복잡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생활 속에서는 사람들은 불합리한 관계로 인해서 부자유롭기도 행동을 구속받기가 일쑤이며 체면이나 외형에 사로잡혀서 서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딱딱하고 부자연스럽고 또 부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에게서 건전하며 활기에 넘쳐 있는 인격이 길러지기 어려움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의 성격의 특징으로서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없고 자발성이 없고, 비굴하고, 그 때 그 때를 눈치껏 모면하려는 임시변통을 잘 쓰는 그런 특징이 있음을 볼 때 이것이 다 우리의 가정에서 잘 못길러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우리네 가정은 지금까지의 「집안」이라는 제도나 관념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관계를 중심으로 묶여져 왔던 상하관계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지킨다기 보다는 좀 민주적으로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사이에 얽히기 쉬운 응어리들이 잘 풀려나갈 것이고 서로 지나치게 신경쓰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 돈독해지고 서로가 협조하고 이해해 주고 분위기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조그마한 가정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기 주장만을 하고 다른 가족원의 입장과 처지를 무시하게 되면 그것이 분쟁의 씨앗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뉘니뉘니해도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정의 밝은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뜻한 공기가 감도는 분위기, 얼른 들어가고 싶은 환대가 있는 분

위기,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분위기,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 아이들의 교육은 저절로 되는 법입니다.

가족은 이와 같은 공기 속에서 비로소 제각기 개성적인 특징을 자유로이 키워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우기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이들은 아이로서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동정하며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책임을 다하며 협력하는 것을 경험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제각기 제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언제나 책임감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유와 책임, 협력하는 태도는 지금까지의 명령과 복종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좋은 것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좋은 가정교육을 행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가족원이 각기 서로에게 독립적인 인격으로 인정해 주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밝은 가정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며 아이들은 민주사회의 일원이 되기에 어울리는 살아 있는 인격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 나라 가족에는 개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아직도 뿌리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행해 질뿐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5.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가정

다음으로 자녀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정의 분위기 형성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정서적 안정감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가정 속에서 누구에게서든지 자기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안심감과 만족감을 가지며 장애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 즉 안정감을 가진다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시해야 합니다. 이 안정감은 차츰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주며 자기의 능력을 자꾸 키워나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안정감이 상처를 입게 되면 아이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는 영향을 주며 그 아이의 성장 발달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안정감을 키워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뛰니뛰니해도 그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안심감과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백안시를 당하게 되거나, 또는 방치당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형제만이 특별히 사랑을 더 받는 것으로 믿게 되면 이 안정감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 행동상의 문제, 학업상의 문제 등을 안겨 주는 것입니다.

한편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한다거나 지나치게 보호한다거나 보살피려 준다고 할 경우에도 오히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감이 흐트러지고 그 아이의 성장에 손상을 끼치게 됩니다.

아이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히 다루거나, 잔소리가 많거나 하는 이른

바 엄격한 부모, 완고한 부모, 고집스러운 부모도 아이들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부모 자신이 불안한 일이 많거나 걱정스러운 일이 많고 또 스스로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되거나 안정된 생활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양친 사이에 불화가 오래 계속됨으로써 가정 전체가 불안하고 아이들에게 항상 긴장감을 안겨다 주는 가정에서는 당사자인 부모 자신이 불행해 질 뿐 아니라 아이들의 안정감을 해치게 되고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불신감을 유발하며 아이들 자신을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문제도 아이들의 안정감을 길러주는데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아이들의 안정감은 단지 물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어떤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부모 자신이 안정감을 상실하고 있거나 부모가 서로 불화관계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아이들의 안정감 형성에 역기능적으로 작동할 뿐입니다. 이때에는 돈이 많다는 것이 결코 해결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즉, 아무리 집이 가난하다 해도 그것 때문에 부모가 불안해 한다거나 좌절상태에 있다거나 세상을 비관해 한다거나 하지 않고 도리어 아이들에게 용기를 갖도록 부추기고 위로하고 열심히 살고자 하며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부모가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절대로 정서적으로 문제를 갖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 자체가 안정감을 해치는 것은 결

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날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하면 또 경제적 안정이 깨뜨려져서 아이들의 학비마련이 어려운 형편이라면 이미 이 가정은 자녀를 키운다거나 기른다거나 교육을 행하기에는 자격을 상실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 가정에만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정부나 유관기관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아이들의 학비를 면제해 주는 등의 복지적인 배려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로 하여금 안정감을 갖게 하는 데에는 지금까지 말한 바 있듯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부모자신의 안정감, 행복감에 차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 아이들을 이해하는 일

아이들의 교육학에 있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지가 문제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어른의 입장에서 보거나 그들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어디까지나 아이입니다. 「어른을 작게 축소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 나름의 세계가 있고 보는 방법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어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에서서 생각하고 느끼고 다시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부모도 자녀의 기분이나 생각하는 방식을 알고 무리하게 강요하거나 야단을 심하게 쳐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와 같이 몇 개의 단계에 따라서 발달해 갑

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외형이 바뀌어 지나 부피가 느는 것만이 아니고 동시에 알맹이 즉, 질도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이나 발달이란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지만 그 속도는 결코 똑같은 비율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이들은 하나 하나가 모두 제각기 다릅니다. 그 모습에 있어서만 다른 것이 아니고 정신도 다릅니다. 능력도 다르고 취미도 다릅니다. 이것을 개성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석가가 한 말이 있지않습니까?

「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고, 아이들을 이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아이와 같다는 것을 전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 나름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바로 이해하시려면 우선 아이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보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바로 이해하시려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이해를 원하시면 아이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먼저 아이들을 사랑하라」는 말, 이 말을 되새겨 볼 만한 말입니다. 아이들을 미워하고는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수록 그들에게서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니 외면하면 할 수록 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볼 수가 없으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의 진정한 행복을 염원한다면 그들을 험껏 사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되 때로는 따끔한 사랑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 따끔하게 벌을 주는 그런 사랑이어야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굳게 다진 승공이념

밝아오는 조국통일



效果的인 通信保安과 軍戰力 保護

金 德 龍

高度의 電子技術이 발달됨에 따라 각종 통신수단도 컴퓨터 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으며, 그 利用도 날로 증가되어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電氣通信은 본래의 脆弱性 때문에 하나의 풍부한 情報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러한 脆弱性에도 불구하고 각종 通信手段은 신속한 軍事作戰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敵에 관한 많은 量의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만약 정보의 결여 속에 戰爭을 수행한다면 막대한 戰力損失을 감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세계 각국은 自國의 通信情報 수집기관을 최대한 이용하여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北傀가 최근 통신정보 수집능력을 날로 強化시키고 있는 것도 다 같은 원리인 것이다. 더우기 북괴는 1968년 1월 23일 美國 海軍 情報艦 “푸에블로”호 拉北事件과 1969년 4월 15일 미국의 高空 정찰항공기 “EC-121擊墜事件”以後 수집한 정보와 통신전자 諜報裝備를 토대로 日本 및 西獨 等地로부터 각종 高性能 盜聽裝備를 도입, 휴전선 근접 전방지역에 다수의 盜聽所를 설치, 우리의 通信網 도청으로 정보자료 수집에 혈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通信手段을 이용한 수

많은 정보자료가 敵 또는 假想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만 있다면 이는 軍과 국가안위에 큰 이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전쟁사나 근래 발생한 전쟁에서 보면 통신수단을 통하여 중요 작전기밀이 敵에게 누설되어 전쟁의 敗北는 물론 국가존망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왔던 事例는 수없이 많이 있었으니 그것이 문제이다.

1960년대의 통계분석에 의하면 군사정보 漏泄의 약 80%가 통신수단에 의하여 누설되었고, 이 중 50%는 전화통화에서 군사정보가 누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우리 모든 장병 및 군무원들이 그동안 通信保安에 대하여 무관심 내지 방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통신보안이 군사기밀 보안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實感케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통신보안 문제는 어느 戰力要素보다도 선행하여 완벽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우리 모든 장병 및 군무원은 통신보안 規定遵守와 실천은 물론 통신보안이 하루 빨리 生活化 되도록 각자 깊은 사명감과 군사보안 의식을 갖고 노력을 하여야 되며, 통신보안은 항상 통신정보 수집활동과 상대적인

위치에서 피차간 은폐된 가운데 운용되므로 실제로 통신보안의 成果測定은 실로 어려운 일이나 가능한 최선의 수단과 방책을 동원하여 부단히 研究開發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1. 通信保安의 定義

모든 통신 과정에서 가치 있는 情報, 즉 군사비밀 내용을 敵國 또는 假想敵國이 통신수단으로부터 제반 정보를 획득하려는 것을 미연에 防止하거나 遲延시키기 위하여 取해지는 방법과 이 방법을 시행하는데 사용되는 제반 수단 및 보호방책을 우리는 통신보안이라고 말한다. 즉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이미 한 일 또는 앞으로 해야만 할 일들을 알아서는 안 될 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거나 필요한 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과 문제가 야기되게 마련인 것이다.

전달하는 媒介體(이용되는 통신방식)와 人的要素(통신병 또는 이용자 등) 그리고 立地條件等, 당시의 상황에 따라 전달하는 내용의 은폐책이 適時 適所에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특히나 이러한 은폐책은 상대방에게 완전하게 풀이될 수 없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2. 通信保安의 目的

통신을 保安하는 方法과 그때 상황 및 제반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중요목적은 부여할 수 있겠으나 다음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각종 통신수단을 통하여 비밀사항의 누설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일이다. 즉 통신수단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보안상 취약성

과 그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장비의 保安意識 척도에 따라 비밀의 누설 가능성은 좌우되며 이러한 洩露要素를 배제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감독 그리고 脆弱回路 사용의 최대한 統制 및 保安裝備의 設置 등 대책이 진요하며 전기적 통신수단 중 가장 누설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무선통신을 들 수 있다.

둘째, 통신수단을 통하여 상대방 비밀을 알고자 하는 집단이 획득하려는 정보의 양을 최소량으로 局限시킨다. 즉 우리의 비밀을 수집하려는 집단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정보원천이 될 수 있는 통신망을 도청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가능한 수단, 방법을 총 동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단, 방법이 가해지는 통신수단에서 정보의 가치가 있는 내용의 취급은 철저히 制限함으로써 非認可者가 획득하려는 각종 정보의 양을 최소한으로 국한시킬 수 있다.

셋째, 通信으로부터 적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遲延시킨다. 즉 敵이 우리의 중요 통신문을 통신수단으로부터 入手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相對方이 곧 理解할 수 없도록 暗號 또는 陰語化하여 이를 分析 不可能토록 하거나 解讀 하는데 상당 時日이 소요되도록 함으로써 情報價値를 상실케 할 수 있을 것이다.

3. 通信手段의 紹介

가. 傳令通信

사람이나 또는 잘 訓練된 動物로 하여금 통신내용을 직접 휴대케 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통수단에 따라 徒步전령, 車輛전령 航空전령 등으로 불리우고 있다. 전령을 하고자 하는 때와 장소에 따라 전령의 교통수단이 결

정될 것이며 다른 통신에 비해 통신시간이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 등이 직접 갖고 전달하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나 다른 통신수단 보다는 비교적 保安度가 良好하다.

나. 視號通信

사람의 視覺을 통하여 상호 약정된 신호로 意思를 소통하는 통신수단의 일종으로서 전등수기, 포탄 및 신호탄 등이 있으며, 가시거리 내에서는 신속히 설치 운용할 수 있어 단일목적 수행에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호통신은 短點으로 통신을 하고자 할 때의 날씨와 視界의 제한이 다른 통신에 比하여 크며 적이 쉽게 흉내를 낸다든지 欺瞞과 妨害를 할 소지가 크며 또한 육안으로 敵도 함께 관찰할 수 있어 노출이 크게 흠이라면 흠이 된다.

다. 音響通信

사람의 청각을 통하여 직접 또는 약정된 신호로 상호의사를 소통하는 통신수단으로서 육성, 종성, 호각, 사이렌, 북, 나팔, 피리, 경종 등이 이용되고 있다. 이 음향통신도 앞에서 말한 전령통신, 시호통신과 같이 날씨에 영향이 크며 지형의 영향과 원거리에서는 사용이 곤란한 것이 단점이 되겠다. 그리고 역시 적의 방해와 도청이 용이하고 기만 전술에 이용당할 우려가 큰 것이 흠이 된다.

라. 有線通信

實線으로 연결된 통신망으로 보안성은 비교적 양호하나 선로에 직접 介入時는 보안성이 극히 脆弱하다. 또한 電磁的인 誘導感應 장치

를 통한 간접 도청이 우려된다.

마. 無線通信

無線電話, 無線電信, 無線電信打字, 마이크 로웨이브 통신망 등을 말하며 보안성이 가장 취약하다. 이 통신은 앞에 기술된 다른 통신보다 종류가 다양하고 발전적인 통신방식으로 사용이 편리하나 대부분이 전파 전달거리 內에서의 敵 도청 가능성이 크며 敵이 동일한 장비를 갖고 전파를 교란한다든지 妨害를 恣行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無線電信은 전파가 전방향(360°)으로 확산되고 VHF通信은 우리가 항상 애용하고 있는 商用 FM 라디오로 다이얼만 돌리면 쉽게 들을 수 있는 등 통신보안의 취약성이 제일 크게 흠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4. 通信의 脆弱性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마이크로웨이브 多重通信網은 공군장거리 통신망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통신망으로서 방공작전 및 군수, 행정통신을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웨이브 통신망은 동서남북에 걸쳐서 많은 中繼局이 분포되어 있고, 어느 구간에서 통화를 하더라도 각 중계국 안테나를 통해 전파가 동시에 중계 됩니다. 따라서 안테나 방향이 북쪽을 향한 중계국에서의 전파는 대부분 越北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들면 光州에서 근무하는 장병이 烏山지역에 근무하는 장병과 통화를 할 경우 통화내용이 북쪽에 의해서 감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Tropo scatter 통신망을 통한 통화내용도 전부가 북쪽에 의하여 도청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5. 通信保安의 方法

諸般 통신수단으로부터 정보 획득수단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防禦 즉 통신보안 방법은 상대 통신정보 활동기관에서 행하는 제반 수단에 대응, 상대적으로 취해지는 방어대책이므로 그 방법이 일정한 방법, 범위에 국한되어 행해질 수는 없다. 따라서 통신보안 방법이란 적시 적소에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취해짐으로써 알아서는 안 될 자로부터 보호하는 각종 방법이 곧 통신보안 방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통신보안이란 일개인 또는 일개 기관만의 보호방책으로써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 전체 구성요원과 각 기관이 공동보조를 맞추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적인 통신보안 방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送信保安은 우리가 전기적인 통신수단을 이용할 때 적의 도청, 기만, 방해통신으로부터 우리의 통신을 보호하는 諸般 방책을 말한다.

통신 운용상에 송신보안 대책이 미비하면 적의 통신정보 기관에 의해 교신 내용이 도청되어 우리의 모든 비밀이 누설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누설방지 대책으로는 방해통신 및 기만통신에 대한 방어, 교신분석에 대한 방어책 등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둘째, 暗號保安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전달되는 비밀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원문 내용의 문자나 수자 등에 암호 기술상의 작업을 가하여 내용을 전혀 해독할 수 없도록 변경시키는 각급 암호 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제반 방법인 것이다.

셋째, 資材保安은 중요 비밀내용과 이러한

문건을 필요한 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안전하게 保安維持되어 전달하는데 쓰이는 매개물 일체에 대한 물리적 보호수단으로서 이를 취급하는 요원의 책임은 실로 막중한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6. 電話上의 通信保安

오늘날 전화는 일상생활에서 잠시도 쉴 수 없는 문명의 利器로서 많은 사람들로 부터 널리 종애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公私를 막론하고 누구나가 자유로이 통화할 수 있게 통신의 자유가 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으며 전화는 시간과 거리를 단축시키며 우리의 일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고 있다. 이렇듯 제반 사항이 편리한 전화이지만 그 자체가 지닌 취약성 때문에 어떠한 비밀 내용까지 無制限 통화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화에 있어서 보안은 각 개인의 경각심만이 보안유지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전화 통화자는 전화 送受話器를 잡았을 때부터 통화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각자에게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가. 전화의 보안상 취약성

전화는 의사전달의 매개체로서 그 성능에 따라 유선전화와 무선전화로 대별되며 다음과 같은 보안상의 취약성을 갖고 있다.

(1) 有線電話는 근거리 통신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전화기 상호간의 접속이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실선 중간지점에 同型 受話器를 접속시키면 손쉽게 통화내용을 엿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도청방법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행해질 수 있으며 도청을 당하는 사람은 보통의 정각으로서 도청 당하는 사실

을 알아낼 수 없다.

특히나 대부분의 통화자는 유선전화의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청당할 염려가 없는 것으로 안심하고 중요내용을 통화하고 있으므로 중요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도청효과는 100%인 것이다. 이 외에도 전화의 취약성은 많다. 自動式 전화인 경우에는 기계가 자동적으로 회로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나 이것 역시 회로에 電氣的 유도 현상에 혼신으로 비 인가자의 도청이 염려되며 큰 건물 내에 수용된 전화(자체 교환전화)나 소부대 전화 또는 원거리 전화를 통화하고자 할 때에는 몇 차례 교환수에 의해 연결되게 마련이며 그 구간에는 많은 선로 端子板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매개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안의 취약성이 강해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에 두 말할 것 없이 엿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특히 有線通信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은 대부분의 장거리 통신에 있어서는 도중에서 무선전파를 통해 전달되는 有·無線 統合通信임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통신보안 資材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위험성이 加重되고 있기 때문에 유선전화는 무선전화 보다는 안전한 방법이지만 결코 보안성이 완벽한 것이 못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無線電話는 실선을 가설할 수 없는 長距離 地點間 또는 비행 중인 항공기, 항해 중인 선박, 移動 중인 차량 등과의 통신에 이용되며 기본 통신방식은 유선전화와 대차가 없으나 전달 매개체가 전파이기 때문에 공간을 통과하는 전파를 중간에서 도청하는데는 같은 전파형식의 수신장치 즉 주파수가 같고 變調方式과 中間周波數가 같은 통신기계를 갖고 안전한 장소에서 퍼져 넘어오는 전파만 포착

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유선통신 보다는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손쉽게 도청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나. 電話에 對한 保安對策

電話는 말단 사병으로부터 최상위 직위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전화에 대한 효과적인 보안유지를 위해 군에서는 제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장병의 관심도 여하가 비밀 보호를 가름하는 관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는 평상시 간략한 용건만 통화하지 않고 불필요한 장시간 통화는 하고 있지 않나 또한 私的 通話나 잡사담통화는 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전화기를 들기 전에 자기가 통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메모하여 간략하게 용건만 통화하는 평소의 습관부터 길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만약 전화로서 비밀내용을 통화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통신보안 대책을 강구한 연후에 통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개 신속한 작전지원이나 후방지원을 요구할 때에 당황한 나머지 긴급을 빙자하여 그대로 淸文通話 하는 사례를 우리는 여러 번 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소한 것부터 보안을 지켜 나가는 정신이야말로 국가대사를 결정짓는 주요한 일에도 실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7. 通信保安의 事故事例

가. 第1次 世界大戰

1次 世界大戰을 통하여 무선통신의 발달과 이를 이용한 암호기술의 발전은 비밀통신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곳곳의 전투에서 암호누설로 전투의 승패가 가름된 예는 많았다. 특히 大戦 初 獨逸의 조난 침몰한 경순양艦 “마그레브號”로부터 한 독일장교의 시체가 러시아인에 인양되어 노획된 암호문건은 영국 해군에 넘겨졌고 이를 해독한 英國은 이를 토대로 도청한 독일 통신문을 분석하여 주요 부대 배치 사항을 소상히 알게 되어 전쟁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나. 第2次 世界大戰

2次 世界大戰 역시 각국의 방대한 통신감청 부대와 암호해독기관의 눈부신 활약으로써 전운을 좌우한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또한 통신보안 관계 요원이 1次大戦에 比하여 40배가 늘어나는 통신보안의 비약적인 발전의 일구면을 엿볼 수 있었다. 2次大戦中 대표적인 사고 사례를 든다면,

첫째, 聯合軍의 독일 점령지인 루마니아 최대 유전지 “푸로에스터” 폭격실패 사건이다. 1943년 8월 1일 미 第9空軍司令部는 북아프리카로부터 출격하는 대편대 비행항로를 지중해 지역의 연합군 부대에 극히 짧은 暗號電文으로 알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 무전을 그 당시 “아테네”부근의 독일군 무전정찰대 감시소에 도청분석 됨으로써 독일군은 유전 주변일대에 최강의 대공방위망을 구축하여 연합군의 폭격대를 사상 최악의 대공포화로 괴롭힘으로써 출격한 178대中 53대가 격추되고 수백명의 탑승원을 잃는 참패를 自招케 하였다.

둘째, 1944년 연합군에 의해 감행된 대서양에서의 독일 잠수함 “U-Boat”는 대서양에 있어서 연합군의 호송선단을 모조리 격침시키는 가 하면 해상작전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다. 그러던 중 無敵의 “U-Boat”선언들은 기고

만장하여 무분별하게 무선통신을 이용 연락을 취하고 있었으니 이 때 미국의 통신정보기관은 “Boat”의 위치를 탐색해 냈고 “U-Boat”선단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뒤로는 “U-Boat”의 가장 취약한 해상 연료 보급장소와 일시를 가려 공격함으로써 대서양의 제해권을 확보했으니 실로 암호전쟁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세째, 日本 함대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구 (山本五十六)” 대장 전용비행기 격추사건이다. 1945년 4월 13일 남동 함대사령부는 5일 후에 있을 “야마모토” 사령관의 남방 예하부대 순시 일정을 암호전문으로 통보하였으나 이를 미국 통신정보 해독반은 무난히 해독하고 말았다. 이로 말미암아 일본군의 군신으로 추앙받던 “야마모토”는 불의의 일격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네째, 日本이 태평양 “미드웨이”해전에서 패한 사건이다. 1945년 5월 20일 미 태평양 주력함대를 “알류산”으로 유인하여 “미드웨이”를 격멸한다는 대 작전명령의 비밀전문이 美國 감청기관에 의해 포착 분석되었다. 이 작전에 일본은 무적의 “야마모토”연합함대를 출동시켰으나 기도를 사전 파악한 미국의 함대는 결정적 공격 확증을 얻어 대응한 결과 패승을 거두었던 것이니 실로 암호해독의 공적은 크다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다. 韓國動亂(6. 25事變)

1950年 6月 25日, 당시에는 군장비도 불비했고 통신보안에 대해서도 극히 미흡 했었지만 통신보안이 우리 작전에 기여한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1950年 7月, 아군 6사단 7연대가 충북 음성 지역에서 적의 기갑부대 및 포병으로 증강된

1개연대와 교전 중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적은 7월 3일頃 미명을 기해 기계화부대의 지원하에 공격을 시도할 것이라 하였다. 반면 적의 음성통신에 의해 “포탄이 떨어졌다.”즉시 수송요망”이라는 내용이 아군 무전기에 칭취되었던 바 아군은 안전한 상황판단의 뒷받침 아래 치열한 선전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포로 70명, 지프차 18대, 박격포, 기관총 등 다수의 장비를 노획하는데 진과를 올렸던 사실이 있다. 이 외에도 동란 중 彼我의 밝혀지지 않은 통신보안 사고사례는 많을 것이라 믿어진다.

특히 1968년 1월 21일 사태와 11월 3일 울진, 삼척 대간첩 작전시에는 아군의 작전지시에 대한 복귀의 역지령이 1시간도 못되어 지령되는 사례가 발생되었다. VHF망을 통하여 “모부대 상호간에 68년 11월 4일을 기하여 乙種事態가 선포되었으니 각 사단장은 경찰과 예비군을 장악하여 수색작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통 하달한 바 복귀는 이를 도청 약 1시간 후에 울진지역의 공비들에게 “적은 태백산을 중심으로 정선, 삼척, 영월, 울진, 봉화지역에서 수색작전을 전개하고 있으니 흔적을 남기지 말고 행동하면서 신속히 이탈하라”고 역지령 하는 등 아군작전을 교란시켜 작전지연을 가져온 사례가 있었다.

8. 結 論

예나 지금이나 사회생활에서 모든 지식과 정보는 통신수단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으며, 특히 신속을 필요로 하는 공군의 조직에 있어서의 통신수단은 군작전의 勝·敗를 좌우하는 것이다. 지휘관은 통신수단에 의한 각종 정보

를 토대로 공군 작전 및 기타 작전의 전반적인 狀況을 판단하여 적절한 지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은 성공적인 지휘통제에 필 수 불가결의 요건이 되는 것과 같이 통신보안도 중요한 것이다. 우리 공군이 아무리 우수한 航空機와 숙달된 操縱士로 무장하고 최신 레이다 기지를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원활한 통신업무가 수행되지 않고서는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통신보안의 역할도 중요한 것이다.

또한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많은 정보자료가 적 또는 제3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만 있다면 이는 現代戰下의 軍과 國家安保에 큰 이익이라하지 않을 수 없겠다.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통신보안 문제는 어느 전력요소 보다도 선행하여 완벽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투철한 반공의식과 保安意識을 갖고 군사기밀을 보호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대개 신속한 작전지원이나 후방지원을 요청할 때에 당황한 나머지 緊急을 빙자하여 그대로 평문통화하는 사례를 우리는 접할 수 있으나, 이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통신보안의 중요성을 실감했을 줄로 안다. 특히 통신보안의 책임은 각 個人에게 1차적 책임이 있으며, 통신보안 자재에 대한 보관 관리책임은 該當 取扱者와 保管 部署의 長이 함께 있으며 각 책임은 타인에게 이양 또는 위임할 수 없으며 특히 군사기밀을 누설시킨 자는 軍事機密 保護法이 적용되어 형사적인 책임이 지워진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줄 안다.

臨津江 오리면

河 瑾 燦

몇 해 전 1월 1일 아침, 나는 새해 첫날을 어디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조용한 마음으로 보냈으면 싶어서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어디 조용한 데 가봅시다.』

내 말에 아내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새해 첫날인데요?』

「새해 첫날이면 어때서, 새해 첫날이니까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의의있게 신년을 맞이해 보자는 거지. 어때요?』

『좋고 말고요.』

아내는 얼굴에 활짝 웃음을 띠며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럼, 임진각에나 한 번 가볼까요?』 하였다.

『임진각? 좋지.』

나는 대답 찬성했다.

임진각에 한 번 가보자는 얘기는 벌써부터 있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선뜻 나서지를 못해왔다.

새해 첫날에 임진각엘 간다—괜찮은 일이라

고 생각했다. 실향민은 아니지만 분단된 이 나라 백성으로서 한 번 좁은 임진각에라도 찾아가 보아야 될게 아닌가. 가능하다면 판문점 같은 곳에 가보는게 좋겠지만, 불가능한 일이고.

『임진각에 가면 메기 요리가 아주 맛있대요.』

『메기 요리?』

『예, 임진강에서 잡은 메기래요, 메기 요리도 있고, 잉어 요리도 있고, 싱싱한 민물고기가 많대요.』

아내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특이연하게 지껄었다.

「싱싱한 민물고기」라는 말에 나는 벌써 군침이 도는 듯했다.

『좋아요. 한 번 가보자구.』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선 것은 열두 시가 거의 다 되어서였다.

관광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통일로를 쾌속으로 달리기 시작하자 나는 기분이 매우 후련

해졌다. 언제나 서울을 훌쩍 벗어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아내 역시 기분이 좋은 듯 밝은 얼굴로 차창 밖에 펼쳐지는 풍경을 내다보고 있었다.

『여보, 저 집들 좀 봐요.』

아내가 입을 열었다.

『글썸, 깨끗한데...』

『꼭 무슨 장난감 같죠?』

『그렇군.』

『기자촌인가봐요.』

『기자촌을 어떻게 알지?』

『구과밭에 기자촌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맞아, 그런가봐. 당신 모르는게 없군.』

『하하하...』

『히히히...』

우리는 공연히 유쾌했다.

금촌 근처를 지날 때는,

『여기가 금촌이군요.』

아내는 마치 그곳이 무슨 연고지이거나 한 듯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금촌?』

『왜 저... 우리가 수색에 살 때 춘식이네 집 있었잖아요.』

『있었지, 그런데?』

『춘식이 엄마 친정이 금촌이랬어요.』

나는 힘 웃음이 나왔다. 춘식이 어머니 친정 곳이 금촌인데, 그게 뭐 그리 반가와서...

『춘식이 엄마 애길 들으니까 자기 친정에 가면 이북에서 방송하는 소리가 들리고, 비라가 날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아이 무서워.』

그러면서 아내는 조금 전의 표정과는 달리 약간 두려운 듯한 얼굴로 창밖을 유심히 내다

보았다.

나도 어쩐지 좀 기분이 으시시해지는 느낌이었으나, 그러나 바깥 풍경은 어디를 보나 조금도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고, 평온하고 태평스럽기만 했다. 소달구지가 하나 천천히 논길을 가고 있었다.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나는 팔뚝시계를 보았다. 꼭 한 시간 걸렸다.

새해 첫날이라 그런지 임진각엔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다. 관광버스로 꽤 많고, 자가용 택시도 수 없이 늘어서 있었다.

『저기 누구 동상이죠?』

『글썸...』

우리는 동상 쪽으로 갔다.

트루만 대통령의 동상이었다. 한국을 6·25의 위기에서 구해준 은인의 동상이 등신대(等身大)로 마련되어 있었다.

동상을 지나 조금 가니, 이번에는 유엔군 전몰장병의 위령비가 세워져 있었다. 아주 멋진 조형이었다.

위령비 앞에서 미군 장교들 데여섯 사람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해군 장교들인 것 같았다. 금테가 번쩍거리는 정장을 해서 그런지 멋진 현대적 조형의 위령비와 잘 어울려 매우 이색적이었다. 마치 어디 미국에라도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동료들의 위령비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모두가 싱글벙글 웃는 얼굴이었다. 조금도 심각한 데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즐거운 관광 길의 장난기 어린 기념촬영인 것만 같았다. 그들의 낙천적인 면모가 여실히 드러난다고나 할까. 아마 우리 장교들 같았으면 심중팔구 어깨를 짝 펴고 근엄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으리라 생각된다. 동료의 전몰 위령비 앞이니 말이다. 동서의 어떤 대조가 느껴지는 듯 재미있었다.

『저 사람들은 군인도 어쩐지 군인 같지가 않아요.』

아내의 말이었다.

뺏 걸음 가니 돌에 6·25 동란 일지가 새겨져 있었다. 이 땅의 통한(痛恨)의 기록인 셈이다.

그리고 앞을 2층 건물이 가로막았다. 그게 바로 임진각인데, 다름아닌 식당인 것이다. 아랫층은 한식부와 기념품 판매부이고, 윗층은 양식부와 일식부였다.

아직 점심을 안 먹어서 출출했지만, 곧바로 식당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점심을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은 아니니 말이다. 식당 저쪽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했다.

건물 뒷편으로 돌아간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번쩍 눈이 뜨이는 듯했다.

『하하—』

『어머—』

나와 아내의 입에서 거의 탄성 비슷한 것이 나직이 흘러나왔다. 어떤 충격같은 것이 오는 듯 기분이 얼얼했다.

그곳에 「자유의 다리」와 임진강 철교가 있었다. 그리고 얼어붙은 임진강이 멀리 가로놓여 있었다. 실항민들의 합동 제단도 그 앞에 마련되어 있었다.

건물 앞쪽의 광경이 6·25를 되새기기 위한 인위적인 조경이라면, 이것은 그대로 비극의 자취이며 생생한 현장이었다. 물론 「자유의 다리」나 부서져나간 일부를 보수한 임진강 철교를 사진으로 안본 바 아니다. 그러나 사진으로 보았을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어떤 감동같은 것이 온몸을 찌릿하게 했다. 현장이 주는 긴장감 때문일 것이다.

아내 역시 비슷한 심경인 듯,

『기분이 이상해요.』

하면서 나를 돌아보곤 했다.

우리는 먼저 실항민을 위한 합동제단을 구경했다. 흰 피륙으로 조출하게 꾸민 제단에 갖가지 음식이 귀물스럽게 차려져 있고, 그 앞에 「할아버님 영전」에 「할머님 영전」 그리고 「아버님 영전」에 「어머님 영전」 이렇게 네 가지 신식 지방이 붙여져 있었다.

마침 한 가족이 제단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들과 나란히 서서 절을 하고 있는 조그마한 딸애의 땀때웃이 유난히 곱게 보였다. 흰 피륙의 제단 앞이라 그런 모양이었다.

차례차례 제단 앞으로 나아가 향을 피우고, 제주(祭酒)를 올리고, 절을 하는 실항민 가족들의 색다른 연시제를 한참 서서 구경한 다음, 우리는 「자유의 다리」 쪽으로 갔다.

사진에서 여러 번 본 바로 그 다리다. 나무로 만들어진 일종의 가교(假橋)다. 포로 교환 당시 이 다리를 넘어 많은 국군 포로들이 자유를 찾아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 번 사용되었을 뿐, 그뒤로는 한갓 역사적인 유물로 보존되어 오고 있는 목교다.

길이가 삼사십 미터 되는 듯했다. 비바람과 흐르는 세월에 시달려 꽤 낡아 있었다. 별것도 아닌 그 나무다리가 어찌면 그렇게 사람의 가슴을 멍하게 하는지 몰랐다. 나는 곧장 고개를 끄덕이며,

『하하—이게 바로 자유의 다리구먼. 포로들이 건너온. 흐름—』

하면서 아내를 돌아보았다.

아내 역시,

『어머나—국군 포로들이 이 다리를 건너왔군요. 이 다리를...』

몹시 기분이 이상한 모양이었다.

여위고 후줄그레해진 포로들이 팔을 축 늘 어뜨리고 힘없이 이 다리를 건너 죽음의 세계로부터 빠져나오는 광경이 눈에 보이는 듯해서 나는 약간 떨리는 듯한 숨을 몰아쉬기도 했다.

「자유의 다리」는 임진강 철교에 이어져 있었다. 그쪽으로는 일반인의 접근을 금하고 있어서 자세히 볼 수가 없어 안타까웠으나, 먼 빛으로 보아도 철교의 한쪽 부분이 보수되어 있는 듯했다. 전쟁 때 폭격으로 부서져나갔던 모양이다.

임진강 철교. 이 철교를 넘어 철마가 북으로 달릴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 나는 절로 이런 다분히 감상적이기도 한 기분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썩— 곧 우렁찬 소리와 함께 철교가 커더덕커더덕 울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녹슨 철교 위엔 겨울 바람이 지나가고 있을 뿐이었다.

철교 양쪽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임진강이 길게 가로 뻗어 있었다. 강은 온통 얼어붙어 있었고, 강 기슭에는 철조망이 끝없이 가설되어 있었다. 그런데 강이 그저 예사롭게 얼어붙은 게 아니라, 마치 파도가 치다가 그대로 얼어 굳어진 듯이 보였다. 정말 이상했다. 강물이 얼면 미끈하고 깨끗해 보이는 법인데, 도무지 그게 아니라 거칠고 어설픈듯 짝이 없었다. 그런 강가에 새까만 철조망이 끝없이 가설되어 있으니 그 분위기의 으시시함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더구나 날씨가 지음산한 편이었으니 말이다.

등골이 썩늘해지는 듯해서 나는 가볍게 몸을 떨었다.

『강이 왜 저렇게? 얼은 거예요, 뭐예요?』

아내가 물었다.

『얼은 거지 뭐.』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얼었죠?』

『글쎄 말이야.』

『아이 이상해라. 어쩐지 기분이...』

『으시시하지?』

『예, 아이 무서워.』

아내는 목을 움츠렸다. 공비들이 강을 건너서 곧 기어나오기라도 할 것 같은 모양이다.

한참 그런 으시시한 기분에 젖은 채 임진강의 그 음산한 풍경을 구경한 다음 우리는 「자유의 다리」 밑으로 내려갔다. 다리 밑에 양어장이 있었다. 임진강의 싱싱한 민물고기 요리란 다름아니라 바로 이 양어장에서 기르는 고기인 모양이다.

양어장 역시 얼어붙어서 고기를 구경할 수는 없었으나, 기슭을 거닐면서 「자유의 다리」를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기도 했다.

한 쌍의 젊은 남녀가 손을 잡고 우리 앞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리같은 것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그저 자기들의 대화에만 열중이었다. 허! 혹은 썩! 하고 웃기도 하면서.

그들 젊은 두 사람과 우리 내외와의 거리같은 것이 느껴지는 듯해서 좀 허전하면서도 재미 있었다. 우리 내외는 직접 6·25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유의 다리」나 임진강 철교같은 것이 결코 예사롭게 보이질 않는다. 피부에 와닿는 정도가 아니라, 심장에 와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 젊은이는 6·25를 모른다. 아마 그들은 그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비극의 현장에 와도 그저 좀 색다른 관광 정도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허! 혹은 썩! 하고 예사로 자기들의 젊은 웃음이 나오곤 하는 것이다. 그런 그들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으니 말이다. 책임이 있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선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그들의 그런 면을 좋게 보아 줘야 할 것이다. 밝다면 밝고, 싱싱하다면 싱싱한 면이라고 할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양어장이 있는 다리 밑에서 올라온 나는 이제 식당으로 갈까 하고 걸음을 그쪽으로 떴었다. 그런데 뒤따라 오던 아내가,

『여보, 저것 좀 봐요!』

깜짝놀라듯이 말했다.

얼른 걸음을 멈추고 아내가 가리키는 쪽을 본 나는,

『하—저게 뭐야?』

절로 입이 벌어졌다.

임진강 쪽이었다. 임진강 저쪽 하늘을 새까맣게 덮으며 한 무리의 새가 날아오고 있었다. 수백 마리, 아니 수천 마리가 될 것 같았다.

『까마귀 떼가?』

『……』

아내는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날아온 새들이 임진강에 좌르르 쏟아져 내리었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내려앉는게 아니라, 한 배서리는 강 위에 떠서 너울거리고 있었다. 강에 내려앉은 새 가운데서도 다시 파다닥파다닥 나부껴 오르는 축도 있었다.

『오리 떼군요.』

아내가 말했다.

『오리들인가? 까마귀 아니고?』

『오리예요, 맞아요.』

『야—오리가 저렇게 많이……』

나는 필요 이상으로 감탄을 했다.

파다닥파다닥 나부껴 오른 한 배서리는 어디론지 남쪽으로 날아갔다. 강 위에 떠서 너울거리던 무리는 도로 북쪽으로 향하기도 했

다. 저희들 마음대로였다.

『오리들은 삼팔선도 없나보죠?』

『삼팔선이 아니라 휴전선이지.』

『글쎄, 휴전선도 없나보죠?』

『없지. 오리들에게 무슨 휴전선이 있겠어.』

우리는 좀 바보같은 소리를 주고 받으며 웃었다. 그리고 있는데, 어떤 소녀 하나가 다가와서,

『아저씨예, 저 새들 무슨 새니꼬?』

하고 물었다. 경상도 사투리의 단발머리 소녀였다. 열 서너살 되었을까. 국민학교 5학년이나 6학년쯤으로 보였다.

『오리란다. 오리.』

오립니꼬? 오리가 꼭 까마귀들 같네예.』

『글쎄 말이야. 나도 침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자 아내가 입을 열었다.

『오리 떼니까 강을 찾아오지, 까마귀들은 땅에 내려앉진 않거든. 그리고 까마귀들은 땅에 내려앉을 때 하늘에서 한참 빙빙 회오릴 친 다음에 내려앉는 거야. 먼데서 보니까 비슷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생김새도 판이하지. 물오리야, 물오리.』

옛날에 교편을 잡은 일이 있어서 그런지 아내는 어떻게 그런 방면까지 환했다.

『옛날 선생님이 다르군.』

하고 나는 웃었다.

그러자 소녀가 아내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옛날 선생님」이라는 말에 새삼스럽게 바라보이는 모양이다. 그리고 마치 학생이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듯 사투리가 안 섞인 어조로 물었다.

『저 오리들 북피 오립니까, 우리나라 오립니까?』

『……』

아내는 말없이 힘 웃으며 나를 보았다. 그 대답은 당신이 하라는 뜻이.

나도,

『히히히...』

웃었다. 조금 억지로 웃는 그런 웃음이었다.

그런 질문쯤 아무렇게나 대답하려면 간단했다. 그러나 나는 얼른 대답이 나오질 않았다. 생각하면 결코 간단한 질문이 아닌 것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저 오리는 우리나라 오리다. 혹은 북괴 오리다. 하는 식으로 대답하는 방법이 있겠고, 둘째는 우리나라 오리도 되고, 북괴 오리도 된다. 휴전선 남쪽으로 날아오면 우리나라 오리고, 북쪽으로 날아가면 북괴 오리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고, 셋째는 우리나라 오리도 북괴 오리도 아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오리들을 북괴 것이니 우리나라 것이니 하는 것은 우습다. 우리들에게는 북괴니 우리나라니 하는 것이 없다. 말하자면 국경이니 분단이니 하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오리들이다. 하는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첫번째 답변은 우리나라와 북괴를 어디까지나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적인 발상에서 나온 대답이라 하겠고, 두번째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으며, 세번째 것은 동물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답변이었으나, 다분히 비정치적이고, 인간 혐오적이며, 약간은 감상적이기도 한 대답이라 하겠다.

나는 세 종류의 답변 가운데서 선택 어느 것을 택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 것으로 이 어린 소녀의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옳을 것인지...

그래서 나는 엉뚱하게,

『너 몇 학년이지?』

하고 물었다.

『6학년입니다.』

『그래, 경상도에 사는구나.』

『예.』

『경상도 어디지?』

『대구예.』

『대구, 응.』

『아버씨, 저 오리들 어느 쪽 오리라예? 우리나라 오리에, 북괴 오리에?』

소녀는 기어이 그 점이 궁금한 듯 다시 사투리가 섞인 어조로 물었다. 휴전선을 넘나드는 새들이니까 몹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이리라. 국민학교 학생다운 호기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자 아내가 나 대신 얼른 입을 열었다.

『오리가 어디 북괴 오리, 우리나라 오리 따로 있니?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하늘에는 삼팔선도 휴전선도 없는 거야. 우리나라 쪽에 오면 우리나라 오리고 북괴 쪽에 가면 북괴 오리겠지 뭐.』

유치한 질문이라는 투였다. 자칫 심각하고 괴로운 성질의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얼버무리 버렸다.

아내의 대답은 말하자면 내가 생각한 두번째와 세번째 대답을 혼합한 형태의 것이라고 하겠다. 그것을 그저 적당히 입에서 나오는대로, 조금은 귀찮은 투로. 지껄인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가볍게 넘겨버리는 편이 옳을지도 모른다.

나는 씩쓰레하게 웃었다. 그리고 화제를 돌리듯이 말했다.

『누구하고 같이 왔니? 아버지하고?』

『아니예.』

『그럼?』

『혼자 왔심더.』

『뭐, 혼자 와?』

나는 약간 놀랐다. 아내 역시 좀 놀라는 기색으로 소녀를 새삼스레 훑어보았다.

『혼자 오다니, 아니 너 혼자서 여길 왔단 말이야?』

『예.』

『어떻게 알고?』

『……』

소녀는 좀 수줍은 듯 웃으며 살짝 일글을 숙였다.

『여길 혼자 찾아오다니, 국민학교 학생이……』

나는 곧장 고개를 끄덕거렸다.

아내 역시,

『혼자 어떻게 관광버스를 탔지? 관광버스가 어디서 떠나는 줄 알고?』

기특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러자 소녀가 입을 열었다.

『우리 외갓집 근처에 관광버스 회사가 있음 떠더. 그래서 표를 사가지고 탔지에 뭐.』

『흠, 그래? 그런데 어떻게 임진각을 알았지?』

『책에서 봤심더. 임진각에 가면 「자유의 다리」가 있다고예. 그래서 방학에 서울 외갓집에 가면 임진각에 가서 「자유의 다리」를 한번 봐야지 하고 결심 안했음니꼬.』

소녀는 이번에는 하얀 앞니를 드러내 보이며 킁! 웃었다.

『아, 그래? 장한테, 장해.』

나는 소녀의 등을 가볍게 두들겨 주었다. 소녀는 기분이 좋은 듯 문지도 않는 말을 계속 지껄었다.

『우리 아버지 고향은 이북이래예 6·25 때

월남하셨담니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서울 외갓집에 가면 임진각에 한 번 가보겠다 했더니 아버지가 아주 칭찬하시대예.』

『칭찬하시겠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임진각 얘기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응, 그래야지』

『우리 어무이는 서울이 고향입니더.』

『그래? 히히히……』

그러자 아내도,

『하하하…….』

소리를 내어 웃었다. 아이들은 재미 있다는 듯이.

『자, 그럼 우리 같이 식당으로 가자.』

내 말에 소녀는,

『예?』

하고 반짝 두 눈을 치떴다.

『같이 식당으로 가서 점심 먹자.』

『나는 점심 먹고 왔심더.』

『그래도 벌써 몇 시니. 같이 가서 뭐든지 좀 먹자.』

『……』

소녀는 난처하고 부끄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자, 어서, 하도 착해서 아저씨가 같이 가자는 건데…….』

아내도,

『같이 가자. 혼자서 심심할 테니…….』

하고 말했다.

그제야 소녀는 마지못하는듯 걸음을 떼놓았다.

우리는 아랫층 한식부로 갔다. 한식부라야 메기 요리가 있는 것이다. 점심 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식당은 대만원이었다. 얼른 앉을 자리가 없을 지경이었다. 이리저리 서성거릴 끝

에 저쪽 출입문 가에 겨우 빈자리를 하나 발견해서 앉았다. 그리고 메기 매운탕 이인분을 시켰다. 소녀는 끝내 점심을 먹었다고 사양을 해서 별도로 비스킷이란 빵을 몇 개 시켰다.

임진각의 메기 매운탕은 과연 일미였다. 나는 딱끈한 정종과 함께 콧등에 땀을 흘려가며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시장했던 참이라 금새 뱃속이 후끈해 왔다. 어젯밤의 망년회 술이랑 오늘의 피로가 한꺼번에 확 풀리는 느낌이었다. 아내 역시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어가며 『맛이 다르군요.』 『진짜 싱싱한 맛이에요』 하면서 먹어냈다.

소녀는 우리의 먹는 모습을 힐끗힐끗 보면서 비스킷을 씹고 있었다.

이때, 두 노인이 우리 식탁으로 다가와서, 『좀 같이 앉을까요?』

하고 물었다.

식탁 한쪽이 조금 비어 있어서 두 사람 정도는 더 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별로 반갑지는 않았으나 나는,

『예, 예, 앉으세요.』 하였다.

한 사람은 머리에 모발이 거의 없는 문어 대가리같은 노인이었고, 한 사람은 좁은 이마 위에 술이 짙은 반백의 머리가 얹혀있는 노인이었다. 언뜻 보기에 서울 어디 변두리에서 복덕방을 함께 경영하고 있는 사이 같았다. 실랑민인 듯 어찌면 해마다 이곳을 찾아오는 모양으로, 잠깐 이곳에 놀러 온 듯한 차림이었다.

자리를 잡고 앉자, 두 노인은 빵 한 접시를 시켰다. 빵이 오자, 그것을 먹으면서 문어 대가리같은 노인이 우리 내외를 힐끗힐끗 번갈아보고, 소녀를 보더니,

『너는 어드레 혼자서 과자 먹디?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안먹고소리...』

하고 입을 열었다.

소녀는 수줍은 듯 킁! 웃었다. 내가 입은 여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 애가 아닙니다. 아, 글썄, 혼자서 여길 구경왔다지 뭐예요. 하도 기특해서...』

『아, 그래요? 그것 참 기특하외다. 너 어디에 사니?』

『대구 살아예.』

소녀는 비스킷을 깨물며 힐끗 노인을 보았다.

『뭐이? 대구 살아? 기르던 대구서 여기까지 혼자 구경하러 왔다 그말이니?』

『.....』

소녀가 대답을 않자. 내가 대신 대답해 주었다.

『서울에 외가가 있답니다. 방학에 외가에 왔다가 혼자서 여길 구경했다는 거예요.』

『허, 그것 참, 여길 어떻게 알고소리... 너 몇학년이가?』

『6학년이라예.』

『응, 6학년..... 그런데 여길 어떻게 알았디?』

『책에서 봤심더, 책에 보니까 임진각에 가면 「자유의 다리」가 있고, 이북 하늘도 보인디 그래서.....』

『허, 그래? 이북 하늘도 보인다고? 음— 너도 고향이 이북이니?』

『나는 대구가 고향인데예, 우리 아버지는 이북이 고향이라예.』

『그래? 허허허... 이북 어디메가 고향이러던?』

『청산포래예.』

『청산포?』

노인은 약간 놀라는 기색이었다.

『나도 청산폰데…, 강서군 청산포 말이디?
폐양남도.』

『몰라예. 좌우간 청산포라 잡니더.』

『음— 아버지 성이 뭐이가?』

『안씨라예.』

『안씨?』

노인의 얼굴에 한결 놀라는 표정이 떠올랐다. 먹고 있던 빵 조각을 자기도 모르게 접시에 놓기까지 했다.

『이름은?』

『병구예.』

『병구? 병구 맞니?』

『예.』

『병기 아니니? 안병기.』

『아니예. 안병굽니더.』

『틀립었니?』

『예.』

『음—』

노인은 가볍게 무너지는 듯한 소리를 내뱉으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이마가 좁은 노인이.

『뭐이 또 빗나갔어?』

하고 웃었다.

나는 대략 짐작이 갔다. 아마 안병기라는 사람이 노인의 아들이거나 동생이리라. 6·25 무렵에 헤어져서 지금껏 만나지 못해 한이 되어 늘 어디서 소식을 얻어듣지 못할까 하고 아직도 추각이 그런 쪽으로 사 있는 것이겠지. 그런데 오늘 우연한 소녀와의 대화에서 초점이 맞아들어가다가 그만 빗나가 버린 것이다. 병기의 「기」자와 병구의 「구」자 차이 때문에 말이다.

노인은 눈을 떴다. 그리고 미진한 듯 다시 물었다.

『너저 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됐디?』

『……』

『몇 살이가 말이야.』

『마흔하홉십니더.』

『마흔하홉? 흠— 그럼 나이도 비슷한데…』
나는 약간 긴장이 되는 듯했다. 아내 역시 그런 모양으로 손가락질을 잠시 멈추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너저 아버지 키 크디?』

『예.』

『눈도 크디?』

『눈은별로 안 큰데예.』

그러자 모두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노인도 한 번 벌죽 웃고는 질문을 계속했다.

『별로 안커? 클 텐데… 그럼 기운은 쉼디?』

『몰라예.』

『모르다니, 아버지가 기운이 쉼디 안 쉼디도 몰라?』

또 웃음이 터졌다. 소녀는 약간 귀찮고 싫은 듯한 표정을 떠올리더니, 깜짝 생각이 난 듯 나를 보고,

『아저씨, 지금 몇 시예?』

물었다.

『네 시 다 돼가는데… 오분 전이야.』

그러자 소녀는,

『우야꼬!』

깜짝 놀라더니, 먹고 있던 비스킷을 얼른 접시에 놓으며 후닥닥 일어났다. 그리고 나를 향해 꾸벅 머리를 숙이며,

『고맙심더. 아저씨.』

인사를 했다.

『왜? 시간이 됐니?』

『예, 네 시에 출발한다 쉼심더.』

『아, 그래?』

『우야꼬—』

소녀는 냅다 정신없이 식당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러자 노인도 당황한 표정으로,

『야! 잠깐만 잠깐만...』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어느새 소녀는 밖으로 뛰어나가 저만큼 마구 달려가고 있었다. 엉거주춤 일어나서 어쩔 줄을 모르며 창 밖으로 달려가는 소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을 향해 이따가 좁은 노인이 입을 열었다.

『이름이 틀리는데, 뭘 그러디? 빗나갔어, 빗나가. 자, 앉으라우.』

그리고 우리 내외를 보고,
『저 양반 6.25 때 헤딘 동생을 아덕두 못 잊구서 찾고 있다우.』
하고 말했다.

『음—』
하면서 노인은 힘없이 도로 자리에 앉았다. 조금 전보다 현저히 혈색이 가신 듯한 얼굴에 체념의 빛이 떠올랐다.

나는 내 빈 잔을 노인 앞으로 내밀었다.
『노인장, 술이나 한 잔 드시죠.』
『아니외다. 이거 이거 미안해서...』
노인은 힘없이 그러나 고맙다는 듯이 잔을 받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노인과 합석이 되어 잠시 술잔을 주고받은 다음, 우리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버스는 네시 반에 귀로에 올랐다. 네시 반 인데도 어느덧 날이 실핏했다. 서서히 저물어가는 겨울풍경을 창밖으로 내다보며 나는 혼 혼한 주기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어찌된 셈인지 나는 묘하게 피로했다. 어떤 야릇한 긴

장감이 풀린 다음의 피로감같은 것이었다. 그 긴장감이 아직 덜 풀린듯한 느낌이기도 했다.

아내 역시 그런 모양으로, 멀뚱히 창 밖을 내다보고 있을 뿐 말이 없었다.

버스가 문산을 지날 무렵, 우리는 비로소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다. 아내가 크게 하품을 하고나서 말했던 것이다.

『여보, 아까 그 애 아버지가 그 노인 동생 아닐까요? 어찌면 그럴 거 같애요.』

『이름이 틀리는데?』
『이름이야 틀릴 수 있잖아요. 이쪽에 와서 호적을 새로 했을 테니...』

『글쎄...』
그러고 보니 그렇듯도 했다. 그러나 나는 더 뭐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음—』
하면서 지그시 눈을 감아버렸다.

버스는 빨랐다. 어느덧 구파발이었고, 곧 불광동이였다. 갈 때보다 훨씬 빠른 느낌이었다. 버스가 더 빨리 달릴 덕도 없는데 말이다.

터미널에 도착하여 시계를 보니 다섯 시 반이었다. 그러니까 갈 때나 올 때나 똑한 시간인 것이다.

버스에서 내린 나는 약간 휘청거리는 걸음을 떼놓으며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다.

『서울이 너무 가깝군. 휴전선에서...』
그러자 아내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고 말했다.

아내의 표정을 힐끗 보니, 불안한 정도는 아니었으나, 조금 굳어져 있었다.

— 독자에게 알립니다 —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부지불식간에 적의 전략 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은 책자의 취급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3,700

제목 : 공군지 제 188 호

1984년 2월 20일 인 쇄

1984년 2월 25일 발 행

발 행 :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 쇄 : 공 군 교 재 창

용사의 다짐

조정제 작사
최창권 작곡

썩썩하게

남 아 의 끊 는 피 조 국 에 - 바 쳐
우 령 찬 기 상 나 팔 을 릴 때 - 마 다

충 성 을 다 하 리 라 다 짐 했 - 노 라
출 기 차 게 샘 솟 는 새 로 운 - 용 기

눈 보 라 물 아 치 는 참 호 - 속 에 서
벽 차 고 고 될 수 록 즐 거 - 운 나 날

한 목 숨 바 칠 것 - 을 다 짐 - 했 노 라
부 모 - 형 제 지 키 는 보 람 - 에 산 다

(후렴)

전 우 여 이 제 는 승 리 만 이
우 리 의 사 명 이 요 갈 길 이 다

軍人의 길

나는 榮光스런 大韓民國 軍人이다.

하나.. 나의 길은 忠誠에 있다.

祖國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나의 길은 勝利에 있다.

不屈의 鬪志와 戰技를 닦는다.

하나.. 나의 길은 統一에 있다.

기필코 共産敵을 쳐부순다.

하나.. 나의 길은 軍律에 있다.

嚴肅히 禮節과 責任을 다한다.

하나.. 나의 길은 團結에 있다.

指揮官을 核心으로 生死를 같이

한다.



공군의 결의

우리는 자랑스런 필승의 공군이다.

엄정한 군기 아래 깨끗하고 씩씩하며
서로 도와 단결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